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4월 6일, 20일, 27일 64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3월 9일(음력1월 29일) 수요일 (주간) 제516 호

"불교환경운동 패러다임을 바꾸자"

시민·단체·네티즌 '효율성 위한 변화' 목소리 확산

지율 스님이 100일 단식을 회향하고 천성산 환경영향조사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불교환경운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생명' 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부터 환경운동의 공(功)과 과(過)에 대한 논의까지 그 범위도 다양하다.

특히 '불교환경운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목된다. 네티즌과 시민들은 불교환경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대응을 극복해야 한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불교환경운동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정토회(대표 유수)가 펼친 '빈그릇 운동'은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열띤 호응을 얻었다. 2004년 9월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 운동은 전국의 거리와 학교, 각종 행사장은 물론 이웃 종교에까지 확산되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불교의 전통생활문화인 발우공양에서 출발한 것이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말 그대로 '가장 불교적인 것이 가장 환경적'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경우다.

최근 활동 분석·반성으로
거시적인 담론 형성 필요
"조직·논리·실천력 갖춰야"

삼보일배를 진행한 수경 스님역시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뭇생명을 살리겠다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당시 여론이었다. 삼보일배는 이후 각종 집회와 행사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하나의 '코드'가 됐다.

지율 스님의 천성산 살리기 운동과 불교계 ?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한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 또한 우리 사회에 개발만능주의와 환경영향평가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중요한 계기였다.

밀양대 이병인 교수는 "불교의 가르침과 생활 자체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제시하고 모범을 보인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불교환경운동이 변해야 할 부분은 더 많다. 사찰의 생활양식부터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개선해야 할 것들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최근 불교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환경운동의 순수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문제다. 최근 수행환경을 위협받고 있는 사찰 중에는 보상금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A사찰은 몇 억을 받았다", "B사찰은 몇 억을 요구했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터무니없는 보상요구에 관련 기관들이 혀를 내두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대목이다.

불자와 사찰이 생활에서부터 환경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쓰레기를 줄이고 경내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는 등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불자 가정과 사찰에서부터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면 사회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 제3의 '빈그릇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사찰들이 불사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해인사 불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불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제는 꼭 필요한 불사는 지역 주민과 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불교계 내부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대형 개발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북한산과 천성산 문제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에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다는 인상을 심어준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문가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 지율 스님이 '도롱뇽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인으로 학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했던 것이나 천성산 환경영향조사를 함께 진행할 전문가를 섭외하는 데 애를 먹었던 것은 불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사전에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불자와 사찰, 지자체,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망라한 '불교환경의제21'은 불교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라며 "불교계는 '지율 스님 단식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지금이야말로 불교환경운동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재점검과 담론형성이 필요한 때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새내기들아, 법당으로 오렴~"

새 학기가 시작된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새내기 모집을 위한 총불교학생회의 홍보활동이 한창이다. 전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법당에서 새롭게 인연을 맺을 새내기를 기다리는 곽기훈 회장(사진 가운데)과 회원들은 3월 4일 설레는 마음으로 학생회관 바깥벽에 회원모집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사진=고영배기자

선원 '공동청규' 제정된다

전국선원수좌회, 추진위 구성 8월에 시안

선원의 수행풍토 진작을 위한 '전국선원 공동청규'가 제정된다.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함주현산 인각, 이하 수좌회)는 2월 28일 합천 해인사 원당암에서 선림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림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수좌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전국선원별 해제비 조정, 차담 문화 등 관련 청규내용이 선원마다 달라 수행풍토 진작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8월 24일까지 구체적인 공동청규 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좌회는 이를 위해 청규분과위원장에 대전 스님(기본선원 선감)을 선임하고, 인각(봉은사 선원장) 혜국(석종사 선원장)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정찬(마곡사 선원장) 의정(상원사 선원장) 정묵(직지사 선원장) 지현(송광사 구참) 스님 등 총 7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수좌회는 '영축총림 방장추대'와 관련, 이날 선림위원들은 "성원미달로 방장추대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추대 자체는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총림법에 의거한 방장추대를 촉구해온 '영축총림 방장추대 대책위'를 유지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또 필요에 따라 대책위 인원을 보강하는 등 기본입장을 고수,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해인사=김철우 기자

간화선?…"아, 그렇구나"

조계종, 간화선 수행지침서 4월에 출간

조계종 '간화선수행지침서 편찬위원회(위원장 혜국)'와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는 3월 8일 제9차 편집위원회의를 끝으로, 일부 오탈자 등을 점검한 뒤 간화선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오는 4월 중순 발간한다. 당대 선지식들의 감수를 통해 종단 최초로 발간되는 간화선수행을 위한 지침서는 2002년 11월 조계종 수행체계 연구회가 결성된 후 만 2년 5개월 만의 결실이다.

이 책은 간화선수행을 시작하는 출·재가자를 대상으로 간화선의 기초, 실참방법, 깨달음과 그 이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문체도 산문형식의 서술로, 초심자들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특히 간화선을 배우고 실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초심 출가자들과 재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학연구소는 지침서를 각종 교육기관과 연수교육시 강의교안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선수행 지도자 교육과정을 신설 하는 한편, 간경, 염불, 주력, 절 수행지침서 등을 추가로 간행해 종단의 수행종풍 진작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편찬위원회 위원들은 2월 28일 해인사에서 종정 법전 스님을 예방, 지침서의 정식발간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최종 윤문본을 점검 받았다. 이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간화선수행지침서는 종단의 미래를 밝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지침서 발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수좌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용수 기자

수행지침서 목차 및 요약 4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3월 12일 오후 2시 범어사 / 법주: 혜국 스님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할'



그림·조태호

대선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2005
졸업·입학 기념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구독신청 '大'혜택 2가지
부모님은 평생구독! 자녀는 스마트폰!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최저가 특별보급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아이벗

MP3·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특별 보급가 아이나비 일체형 세트 880,000원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나비(484,000원)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www.buddhanews.com / www.buddhapia.com

나부터 '공명'해 환경단체들과 대화할 터

지율스님 단식 중단후 첫 기자회견… "과학적 조사 기대"

천성산 환경영향 조사가 3월 하순 본격 시작된다. 정부와 지율 스님측은 3월 3일 정토회관에서 14명의 공동조사 전문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담을 열고 조만간 천성산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3월 20일경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환경조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최종합의 전까지 협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양측은 3월 2일 연세대 한정상 교수와 밀양대 최송현 교수를 비롯한 공동조사 참여 전문가 14명을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은 지하수, 구조지질, 지구물리탐사, 토목지질, 생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율 스님도 정책협상을 맡아 공동조사에 참여한다.

한편, 지율 스님은 3월 2일 단식 회향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심경 등을 밝혔다. 지율 스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환경영향조사를 해 보겠다"며 "조만간 천성산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율 스님과의 1문 1답.

▲건강은 어떠한지.

-아직까지 10m이상은 걷기 힘들다. 몸에 한기도 남아있다. 일어서면 조금 어지럽기도 하다. 미음을 먹으며 회복하고 있다.

▲단식 이후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파장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이 나온 것 같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봐주신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100일 단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조갑제씨의 글을 봤다. 또 이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도 들었다. 천성산 홈페이지에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해 놨다.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다.

▲3개월간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천성산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늪과 계곡, 지하수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결과보다 환경영향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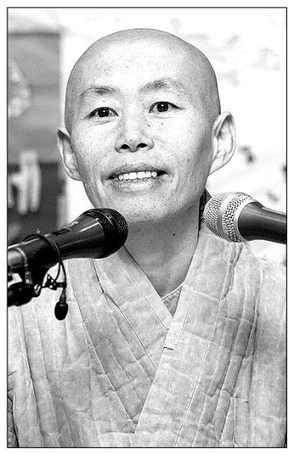
▲공동조사에 참여하는가.

-천성산 문제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조사단에 들어가 협상과 조정 역할을 할 생각이다. 과학적인 조사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나는 보조역할을 한다.

▲그 동안 단식을 진행하면서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모두 나의 잘못이다. 사회운동 전반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았다. 나부터 '공명'해 앞으로는 환경단체들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활동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율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능인선원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못쓴다

서초동 법당 멸실이유… "명칭 바꾸겠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도심포교당인 능인선원(원장 지광) 명칭 앞 '대한불교조계종' 표기를 할 수 없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3월 3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능인선원 소유의 서울 서초동 법당에 대해 등록말소를 결정했다. 총무원은 곧 이 같은 결정과 능인선원 명칭 앞에 '대한불교조계종'이란 표기를 못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총무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서초동 법당이 삼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이미 멸실돼 신탁등기 됐기 때문이다. 총무원측은 현재 서초동 법당에서 종교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교당이 건립되면 다시 등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능인선원측은 아파트 준공 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새 포교당을 건립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능인선원이 위치한 서울 포이동 건물의 종단 등록여부다. 능인선원측은 총무원으로 발송한 2월 25일자 공문에서 "포이동 소재 부동산은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의 기본재산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1995년 9월 7일 보존등기가 완료됐으며, 동 부동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종단 재산 등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측은 포이동 건물은 서초동에서 이전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이동 건물을 능인선원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체로 간주해야 하며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능인선원측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명칭을 종단등록 사찰인 고양시 국녕사 소속으로 밝히는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새로운 봉축음악 들으세요"

봉축위 '나눔과 기쁨' 등 제작…영상물도 접수

봉축위원회는 "올 연등축제와 봉축기간에 사용할 봉축음악을 작곡가이자 가수인 김현성('이등병의 편지' 작곡가)씨에게 의뢰해 '연등 들어 밝히자'와 '나눔과 기쁨'을 개발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이 중 '연등 들어 밝히자'는 흥겨운 민요풍의 노래로 온 세상 모든 생명이 함께 노래하는 부처님오신날에 연등을 밝혀 축복하자는 뜻을 담았다. '나눔과 기쁨'은 건전가요풍으로 작은 냇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모으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음악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자료실 동영상자료란에서 들어볼 수 있다.

봉축위는 또 연등축제를 준비하는 모습과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모은 영상물을 접수한다. 5월 30일까지 자체 편집 완료 후 6mm 테이프 및 화면 설명 문건을 봉축위(02-2011-1747)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불기 2549년 봉축표어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박종학 과장이 응모한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이 선정됐다. 또 '우리도 부처님같이'도 부처님오신날 고정 표어로 함께 사용된다. **남동우 기자**

세계여성학대회에 지율스님 패널 마련

6월 19~24일, 환경·종교·생명 등 3개 분야

지율 스님의 100일 단식을 종교와 여성의 눈으로 보면 어떠할까?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함께 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이화여대 등에서 진행되는 제9회 세계여성학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지율 스님 패널토론에서는 서강대 종교학과 김성례 교수가 '생명증여의 사회윤리와 여성적 힘'을, 서울대 철학과 조은수 교수가 '도롱뇽을 위한 외로운 싸움: 불교의 환경윤리 실천하기'를 각각 발표한다. 또 원불교 이원조 교무는 '지율 스님 단식의 종교적 의미'를 고찰할 예정이다.

조은수 교수는 "종교인이면서 여성이기도 한 지율 스님이 우리사회에 일으킨 반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패널토론을 마련하게 됐다"며 "국제적인 자리에서 지율 스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여성학대회는 3년마다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로, 올해 대회에서는 '경계를 넘어서: 동-서/남-북'을 주제로 진행된다. **유철주 기자**

'호주제 폐지' 승려자격에 어떤영향 미칠까?

출가자 자격규정 안 바뀌면 종헌·종법상 문제될것 없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된다. 그렇게 되면 조계종의 승려자격 규정과 이를 검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변화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종헌에는 승려자격을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독신자'라는 문구. 조계종은 '독신자'를 '결혼을 하지 않은 독거자'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찰에서 독신으로 상주하는 승려'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불교계 일각에서는 출가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호주로 돼 있는 경우 진정한 '독신승려'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나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조계종 종헌이나 종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가 자동 폐지되더라도 조계종의 출가자 자격규정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적이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독신자'라는 검증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새로운 신분제도 개인호적제 채택 가능성 높아 '무관'

현재 정부와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신분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신상을 상세히 기록하는 '개인호적제' 즉 '1인1적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혼인 등을 포함한 개인의 모든 신상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도 기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계종은 2010년에 분한 신고를 받게 돼 있어 법이 시행되는 2008년 이후 2년 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한명우 기자**

사회부장 정념 스님, 호법부장서리 종수 스님 조계종 총무원 인사



정념 스님



종수 스님

조계종 총무원 새 사회부장에 정념, 호법부장서리에 종수 스님이 3월 3일자로 임명됐다.

정념 스님은 1982년 사미계, 8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99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총무원 사회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 봉정암 주지를 맡고 있다.

1975년 사미계, 82년 구족계를 수지한 종수 스님은 삼불사·분황사 주지, 총무원 감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영덕 장육사 주지를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방장선출 산중총회 무산 통도사, 성원미달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통도사는 2월 28일 설법전에서 방장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총원 366명중 167명이 참석해 과반수 성원 미달로 개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통도사는 향후 산중총회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미희 기자**

"국가의 호법신장되자"

군불총 결성 5주년기념법회열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권영기 중장)는 2월 25일 서울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포교원장 도영, 군불교위원장 성광 스님과 권영기 중장 등 군불자 500여 사부대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불교총신도회 결성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군불자들은 호법신장처럼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아적인 삶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2000년 2월 25일 군 간부와 가족들의 신행생활 여건 개선과 젊은 장병 불자 양성을 위해 육·해·공군 각급부대 신도회를 전국 차원으로 통합시켜 만든 국군불교총신도회는 현재 400여 곳의 군법당과 150여 명의 군법사, 15만 신도를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강유신 기자**

訃 告

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도암당 성도 대종사 원적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도암당 성도 대종사께서
세연(世緣)이 다 하시어
불기 2549(2005)년 2월 25일(음력 1월 17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중구 신당4동 흥도사에서
원적(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결일시 : 불기 2549(2005)년 3월 1일 (음력 1월 21일)오전 9시
◈ 영결식장 : 서울 잠실 아산병원
◈ 다 비 장 : 오산 진위사
◈ 문 의 : 02)3010-2294 02)2234-2198(흥도사)

■ 성도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회 명단

◉ 증 명(證明) : 월하
◉ 고 문(顧問) : 법청, 청암, 법정, 법효
◉ 지 도 위 원(指導委員) : 법상
◉ 호 상(護喪) : 법공
◉ 장의위원장(葬儀委員長) : 법천
 ●부 위 원 장(副委員長) : 법진
 ●장 의 위 원(葬義委員) : 법명, 원해, 법운, 벽송, 봉실, 혜공, 성룡, 도일, 보해, 보명, 혜천, 법은, 연심, 혜월, 혜암, 법등, 혜진, 해명, 혜륜, 혜일, 천와, 혜안, 일몽, 일각, 선림, 선담, 혜진, 혜련, 혜일, 선천, 명진, 혜명, 원심, 혜정, 법성, 진각, 법덕, 법심, 법봉, 법하, 법경, 여일, 법우, 법계, 법진, 법홍, 운강, 지산, 대성, 법향, 청운, 혜선, 송풍, 경덕, 경인, 법일, 혜동, 도성, 모덕, 벽천, 법광, 농일, 벽담, 법신, 일산, 일각, 황해, 성명, 일련, 혜성, 법경, 혜선, 벽암, 보인, 성만, 혜천, 혜선, 본정, 정향, 덕문, 혜원, 지덕, 정광, 보심, 보덕, 수암, 태원, 혜민, 정도, 수현, 묘법, 지명, 경보, 경화, 경각, 경은, 연화, 도혜, 법청, 혜정, 보화, 보현, 태현, 관봉, 일공, 정보, 권응, 일봉, 혜원, 수경, 수월, 청암, 법정, 정륵, 법정, 경법, 일두, 해동, 덕수, 도림, 혜승, 지우, 청심, 법경, 호암, 월상, 보광, 영인, 성법, 혜원, 도우, 여래, 무상, 벽민, 필아 (무순)
◉ 집행위원장(執行委員長) : 법호
◉ 도 감(都監) : 지법
◉ 병 법(秉法) : 법타, 혜심, 보덕
◉ 의 전(儀典) : 법인, 덕문, 성공, 덕일, 수암, 벽담, 일봉, 법웅, 법현, 법진
◉ 호 법(護法) : 법인
◉ 재 무(財務) : 법웅
◉ 홍 보(弘報) : 법서, 법명, 도성, 원심, 혜능
◉ 문 도 대 표(門徒代表) : 법공, 법정, 법상
 ●상 좌(上 佐) : 법명, 법천, 법성, 법청, 법광, 법등, 법화, 법신, 법효, 법장, 법진, 법오, 법운, 법현, 법인, 법관, 법춘, 법우, 법창, 법서, 법홍, 법웅, 법혜, 법호, 법관, 법화, 법계, 법향, 법경, 법산, 법열, 법덕, 법홍, 법륜, 법수 (무순)
 ●손 상 좌(孫上佐) : 일봉, 봉실, 벽화, 벽인, 벽진, 벽목, 벽성, 벽송, 벽천,벽암 (무순)
 ●재 가 상 좌(在家上佐)
◉ 흥도사 신도대표
 ●회 장 : 서운자
 ●부 회 장 : 배상옥
 ●총 무 : 이지희, 최윤정

불기 2549년 2월 25일

대 한 불 교 대 승 종 총 무 원 장

북한땅에 묻힌 조상님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탈북여성 보금자리 성남 하나원서 3 · 1절 맞아 천도재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이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3 · 1절을 맞은 여성탈북자들의 보금자리 성남 하나원 분원(분원장 박경섭) 대강당에서 봉행된 천도재. 탱화와 괘불이 걸려있는 불교식 영가의식을 남한에서 처음 접해 머쓱하게 바라만 보던 77명의 탈북자들이 북한 땅에 묻혀있는 조상을 생각하며 단상 위로 올라와 서툰 몸짓으로 절을 올린다. 어떤 탈북 여성은 북에 두고 온 부모 생각에 눈물을 보이고는 끝내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스님들은 바라춤과 나비춤으로 원생들의 조상들이 극락왕생하기를 축원한다.

천도재가 끝나고 펼쳐진 노래자랑 한마당. '연예인 자비실천연합회(회장 박병호)' 가수들의 신명나는 공연에 원생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인다. 아예 자리에서 일어난 원생들도 여기저기 보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빼어난 노래 솜씨를 뽐내기도 한 자리. 조상을 위로하고 난 이후 이제 그들의 앞날을 위해 근심을 털어버리도록 마련한 자리는 즐거운 노래와 춤사위로 원만하게 회향된 것이다.

'가족을 두고왔다'는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3월 1일 열린 천도재에는 조계종 포교사단 통일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와 인천 서광사 주지 경봉 스님(인천불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태고승가자비회 스님 10여명, 신도 70여명이 함께 참여해 화합의 한 마당을 이뤄냈다.



3월1일 성남 하나원에서는 북(北)에 묻어두고 온 가족을 위한 천도재와 원생들을 위한 노래자랑 대회 등 흥겹고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사진은 합창을 하고 있는 원생들.

이 날 행사의 선봉장인 경봉 스님은 "'다른 종교 성직자들은 선교활동을 하는데 스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현대불교 기사(2004년 10월 6일자 494호 참조)를 접하고 하나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내가 하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이 제대로 스님을 접할 기회가 없는 만큼 한달에 한 번, 법회를 집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성남 하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줄기차게 법회를 진행해온 통일 3팀 허정희 팀장은 "배고프고 한 많은 시절을 보낸 원생들의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며 이번 천도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경봉 스님에게 감사했다.

이 날 천도재를 처음 접한 원생 이미애(34 · 가명)씨는 "17일이면 하나원을 떠나는데 그 전에 불교를 접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너무나 의지가 된다"며 '참 좋은 인연'이라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성남=김강진 기자

이색 강좌로 불자 잡아라

만해문화대학 · 포교사대학원 · 불교상담대학

예술 · 포교실무 · 상담 전문가 과정 개설 '눈길'

만해문화대학, 포교사대학원, 불교상담대학에서 일반 불교대학들과 다른 커리큘럼을 갖춘 특별한 강좌가 3월 잇달아 개강한다.

3월 9일 첫 강의를 시작하는 만해문화대학은 개금 단청 전통불화 불교문양 등 불교예술을 가르치는 문화전문대학이다. 법인 스님(공덕사 주지)의 강의로 관음42 개금 작업에서부터 단청 모리초, 4천왕 불화, 한지 만다라 조명등, 다포, 금니 수월관음도 등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포교사들을 위한 전문대학원 포교사대학원은 3월 중 개강한다. '포교사'라는 자격을 갖춘 특수계층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기는 하지만 눈길을 끄는 '포교 전문'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수행문화학과(학과장 미산), 불교사회복지학과(학과장 유승무)에서 불교문화해설, 불교수행론과 수행법 지도, 사회복지학 등 이론과 포교실무, 불교의식, 스피치 집단상담, 포교현장 활동 등 포교실무 분야 12개 강좌가 개설된다.

23일에 개강하는 불교상담대학은 '상담'만을 다룬다. 1학기는 일반인 대상으로 분야별 상담 전문가가 나서 각종 상담에 대한 강좌를 연다. 2학기에 들어서면 상담 전문가 과정으로 변모해 전화 · 사이버 · 청소년사이버 · 현장실습 · 상담사례연구 등의 분야별 이론과 사례분석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강좌로 구성된다. **강지연 기자**

북관대첩비 돌아온다

100년전 일제 약탈…南 거쳐 北으로

100년 전 일제에 약탈된 '북관대첩비'가 올 상반기 내에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 반환운동을 펼쳐온 북관대첩비환국범민족운동본부 회장 초산 스님과 일한불교복지협회장 가키누마 센신 스님은 3월 1일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 난부 도시아키 궁사와 첫 협상을 갖고 북관대첩비의 조기 반환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임진왜란 승전기념비인 북관대첩비는 빠르면 4월 무렵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반환된 비석은 다시 북관대첩비의 원 소재지인 함경북도 길주로 보내진다.

초산 스님은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이 북관대첩비 반환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자는 요청해옴에 따라, 12월 금강산 남북한 대표 회동을 통해 북관대첩비를 남측에서 인수한 뒤 북측으로 넘기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북관대첩비의 북한 인도를 위한 회담은 4월경 북경에서 열린다. **강유신 기자**

디지털콘텐츠 무료 이용

4월까지 시범서비스

3D사찰 모델 등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3월 2일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에서 '사찰건축 디지털 세트, 절집' 등 일부 문화원형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를 4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제공 콘텐츠는 사찰의 각종 전각들을 디지털화한 '사찰건축 디지털 세트, 절집'을 비롯해 '길상 이미지' '우리문화의 상징아이콘, 부적' 등 5개 주제 콘텐츠군이다. 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무료 콘텐츠는 2주마다 교체될 예정이다.

문화원형콘텐츠는 우리 전통문화를 디지털로 재현해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현재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업의 결과물인 61개의 테마가 문화콘텐츠닷컴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이는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에 창작소스로 활용 가능하다. **강신재 기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中 청소년초청사업 주관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문화관광부의 중국청소년초청사업 주관단체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중국 청소년 지도자 100명을 초청해 행사를 치룬바 있는 파라미타는 올해도 내원청소년단과 공동으로 문화관광부의 2005년 중국청소년초청사업에 참여한다.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40세 이하 공무원 100명으로 이루어지게 될 초청단은 10월 17~2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산업시설 견학 △역사문화 탐방 △한국가정 민박 △청소년수련시설 견학 및 체험 △한국문화체험 및 관광 △국제 행사장 견학 △국내 청년지도자와 교류회 개최 △관련기관 및 단체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한편 파라미타는 2월 25일 열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단체로 선임됐다.

강지연 기자

한국불교 미래를 듣는다

조계사 13일부터 기획법회

지난해 전국선원장 초청대법회를 개최했던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한국불교의 지향점과 역할을 모색하는 '한국불교 미래를 듣는다' 기획법회를 3월 13일부터 8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불교신문사(사장 향적)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서는 '수행과 실천'을 주제로 중진 스님 8명이 차례로 법석에 오른다. 먼저 도법 스님(3월 13일 · 생명평화의 불교)과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3월 20일 · 불교의 깨달음)이 법회의 큰 줄기를 잡고,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3월 27일 · 전통적 '계율의 의미'),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4월 3일 · 현대사회에서의 계율),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4월 10일 · 우리들의 가까운 벗, 수트라)이 수행의 현대화, 대중화를 모색한다. 이어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4월 17일 · 글로벌시대의 한국불교),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4월 24일 · 지역과 함께하는 불교), 민추본 본부장 명진 스님(5월 1일 · 통일시대의 불교)이 불교의 올바른 사회적 실천방향을 논한다.

한편 조계사는 불교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소를 상반기 중에 발족, 소장학자들을 육성해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축원기도금의 15%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 **관련기사 16면**

이밖에 3월 12일 일주문 기공식을 시작으로 중창불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용수 기자**

뉴욕총영사 성경강좌 중단

"이웃 종교인에 사과"

성경강좌 개설로 파문을 일으켰던 문봉주 뉴욕총영사가 강좌를 중단했다.

문 총영사는 2월 27일 열린 마지막 강좌에서 "공직자로서 종교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월 23일부터 시작한 '성경의 맥을 잡아라' 강좌 중단을 선언했다.

문 총영사는 또 "이웃 종교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각각 성명을 내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강좌를 중단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외교관들의 종교 편향활동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세계불교성지보존협회 창립

불교성지의 복원과 불교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한 세계불교성지보존협회(회장 선일)가 2월 25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세계불교성지보존협회는 네팔 룸비니, 인도 부다가야, 녹야원 등의 불교성지 뿐만 아니라 역대조사들의 불교유적을 보호 복원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협회는 앞으로 이 지역에 한국사찰 건립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입안, 공연, 전시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불서 순회 도서전 열린다

불출협, 올해의 불서 선정 등 사업 확정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중대형 서점 20여 곳과 사찰 등에서 '불서 순회 도서전'이 열리고 연말에는 '올해의 불서'가 선정되는 등 올 한해는 불서가 불자들의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다.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는 2월 28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찰순회도서전'과 '올해의 불서 선정' '독후감 공모전' 등의 사업안을 확정했다. 또한 불자들이 손쉽게 불서를 접할 수 있는 사찰 도서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창화(민족사 대표) 수석부회장은 "올 한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불서 읽기 문화'에 불을 지핀다는 뜻에서 이 같은 사업들을 마련했다"며 "불교출판인들과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 봉은사 신도교육 안내 -

지혜의 샘 행복의 길

www.bongeunsa.org

2005년도 봉은사 신도교육 안내 및 수강생 모집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입문교육

불교와 봉은사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를 대상으로 봉은사에 대한 소개와 불자예절,기도방법 등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교육합니다.

○ 일 시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등록금 : 무료
○ 대 상 : 초심자 및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

▣ 봉은불교 기초학당(주간/야간)

불교의 기초교리 및 수행법을 이해하며 참된 불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의무 기본교육과정입니다.

○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 기 간 : 3개월 과정 (12회 로테이션)
○ 등록금 : 3만원 (교재비 별도)
○ 대 상 : 초심자 및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

▣ 봉은불교대학

○ 교육과정 : 1년 2학기제
○ 교육내용 : 불교역사, 불교교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불교사회복지, 포교상담계율론, 경전과불교 신앙사, 선종의 역사와 봉은사 등
※상기과정은 사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구분 : 주간반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10시~12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9시30분
○ 지원자격 : 기본교육이수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
○ 특 전 : 조계종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교 육 비 : 30만원(학기당 15만원)
※ 교재비 별도

▣ 봉은 경전학교

○ 경전명 : 금강경
○ 기 간 : 2005년 3월 25일 - 7월 1일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 개 강 : 2005년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 등록금 : 10만원(교재비 포함)
○ 대 상 : 봉은불교대학 졸업자, 신도전문교육 이수자

▣ 봉은 연화대학

○ 기 간 : 2005년 3월 11일 ~ 7월 13일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4시
○ 개 강 : 2005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 등록금 : 4만원
○ 대 상 : 60세 이상 어르신

▣ 문의 / 접수 : 포교팀 516-5652, 3218-4814
홈페이지 : www.bongeu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봉은불교대학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2호선 삼성역 6번출구)

간화선 수행지침서 주요내용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발간을 준비 중인 간화선 수행을 위한 지침서는 선 수행의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화선 기초' '실참' '깨달음'을 단계별로 서술, 총 3부 13장으로 구성됐다. 제1부는 조사선과 간화선의 형성과정과 기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간화선이 왜 대승불교의 최상승 수행법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화두의 결택과 참구 등 실참을 다룬 제2부는 특히 스승의 역할과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병통과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마지막 제3부는 궁극적인 깨달음이란 무엇이고 이를 점검하고 인가하는 과정, 깨달음 이후의 중생교화와 사회적 역할 등을 상세히 밝혔다. 4월 중순 발간을 앞둔 간화선 수행을 위한 지침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기초⇨실참⇨깨달음 단계별 정리

초심자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4월 중순 발간



조계종 최초로 발간되는 간화선수행을 위한 지침서는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초·실참·깨달음으로 간화선 수행의 단계를 나눠 구체적 수행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은 화두참구에 열중하고 있는 재가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제1부 기초단계

제1장 조사선의 그 역사적 전개

조사선은 역대 조사들이 '본래성불(本來成佛)' 자리를 있는 그대로 보인 것이다. 부처님은 성도후 45년간 쉼없이 법을 설하면서 자신의 깨달은 세계를 마하가섭에게 전하신 것처럼, 조사선은 인도에서 건너와 중국 조사선 초조가 된 달마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이어진 33조사는 중국 선종의 큰 물줄기를 형성했다.

한국은 9세기경 신라말과 고려초의 당나라 유학승들로부터 전해진 육조 혜능의 조사선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고려에서 구산선문을 열어 한국 조계종의 선맥을 확고히 했다.

간화선의 정착은 고려말 태고보우, 나옹혜근, 백운경한 세 선사에 의해서다. 조계종의 중흥조로 인정받는 보우는 화두참구-깨침-본색종사-구경결택의 간화선 수행체계를 명확히 밝혀 간화선을 한국선의 주된 수행법으로 정착시켰다.

제2장 간화선의 개관

간화선이란 '화두를 간(看)하여 본래 성품자리를 곧바로 보는 것'이다. 간화선이 모든 수행법 가운데 뛰어난 것은 화두를 들고 그 자리에서 견성성불하기 때문이다. 조사선과 간화선의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구조는 같다. 시대적 의미가 그렇게 구분을 나눴을 뿐, 간화선 속에는 조사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만 간화선은 '화두'라는 것을 방편으로 '정형화'하고 '체계화' 한 것일 뿐이다.

간화선이 대승불교의 최상승 수행법인 이유는 간화선이 부처님과 가섭으로부터 이어져온 조사선의 전통을 가장 잘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과 행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롭다. 또 간화선은 화두 참구를 통해 분별의식의 흐름을 끊는 뛰어난 힘을 갖추고 있는 수행법이다.

제3장 부처님의 가르침과 간화선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깨달으신 존재의 실상을 중도·연기·무아·공으로 표현했다. 선은 부처님께서 밝힌 이 진리를 당장 이 자리에서 환히 드러내 보이는 길이다. 간화선은 가섭을 위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염화미소를 보이고,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만들어 앉히며,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 후 두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신 일 등 '삼처전심(三處傳心)'의 일화로 이심전심의 법을 가섭에게 전했던 부처님의 마음을 뿌리로 여기고 있다.

경전 밖에 따로 문자를 전하지 않는다는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가르침은 중도·연기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선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는 수행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제4장 간화선의 기초수행

선에 들기를 원하는 초심자는 본래불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비·지혜·원력을 세워야 한다. 또 불퇴전의 정진력, 계율의 실천, 화두 참선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마지막으로 '정견'을 확립해야 한다.

선 수행에 앞서 교(敎)와 계(戒)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해야 한다. 사교입선은 말에 말리지 말라는 뜻일 뿐 교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며, 간화선 수행자라 해서 계율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참선 수행자에게 계는 굳이 지키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제2부 실참 단계

제1장 화두의 결택

'화두(話頭)'란 단순히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유와 분별의 통로를 막기 위해 선사들이 사용하던 말이다.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그 뜻을 파악할 수 없는 화두는 공안(公案) 또는 고칙(古則)이라고도 한다. 화두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말로 몸과 마음에 의심의 열기를 가득 채워, 마침내 그 의심이 둑이 터지는 경지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화두도 발심이 온전히 안 된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다. 자신이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의 단계인 발심이 없이는 화두를 들 수도, 타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심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발심은 생사 고를 뛰어 넘어 근원적 자유를 실현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 한다. 화두는 발심 후 선지식으로부터 내려 받게 되는데, 대개 자신의 근기에 맞게 탁하고 걸고리에 물리듯 걸리는 것이 자신의 화두가 된다. 일단 한번 정한 화두는 함부로 바꾸지 말고 의심의 끝을 타파하려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지도자의 역할

선수행에 있어 스승은 한수행자의 온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발심하고 스승에게 법을 묻고, 참구를 통해 의단을 풀고, 다시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단계를 거치는 선수행 공부는 스승의 올바른 지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어록에는 제자가 선지식을 만나서 깨치는 과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수행을 하다보면 만나게 되는 순경계와 역경계를 헤쳐 나가는데, 눈밝은 선지식의 가르침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제3장 화두의 참구 단계

화두 참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무(無)'자 화두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초심자는 우선 무자 화두의 무자 앞에 '전제'를 붙여 들든지, 아니면 좀 막연하게 '무' 그대로(단제)를 든다.

참선을 시작할 때는 '전제'와 '단제'를 섞어 사용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단제 만들게 된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주 스님은 "무"라고 대답한 것을 놓고 참구할 경우, '무라?' ⇒ '왜 무라 했을까?' ⇒ '왜 무라…' ⇒ '왜…'로 지극한 의심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이 화두를 참구하기 위해서 <선요>는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화두공부를 통해 반드시 깨칠수 있다는 믿음, 나도 깨칠수 있다는 분심, 깨달음을 위한 간절한 의심이 화두공부의 필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화두를 올바로 들기 위해서는 '의정(疑情·의심이 일순하여 끊어진 상태)'과 '의단(疑團·의정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치는 단계)'의 상태를 거쳐야 한다.

의정에 넘쳐 다른 무엇도 범접하지 못하는 상태를 '타성일편(打成一片)'이라 하는데 이경지에 이르면 다시 '은산철벽'을 뚫고 '확철대오' 해야 한다.

또 화두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뭣고'나 '무'를 염송하듯이 외우거나 주역에 몰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화두 참구자는 끈질김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제4장 병통의 극복

알음알이로 분별하는데만 익숙한 수행자가 처음 화두를 들었을 때 병통을 일으키게 된다.

<서장>은 '무'자 화두의 예로 이러한 10가지 병통을 해결하라고 일러주고 있다. 대혜 스님은 ①있다·없다로 이해하지 말라 ②이치로 이해하지 말라 ③분별하여 헤아리거나 알아맞히려 말라 ④눈썹 움직임이나 눈 깜박임에 알음알이를 두지 마라 ⑤말과 글의 틀로 살림살이를 짓지 말라 ⑥일없이 머물러 있지 말라 ⑦의정 없이 화두를 들어 알려고 하지 말라 ⑧문자를 끌어와 증거삼지 말라 ⑨유무를 초월한 참무가 있다 생각 말라 ⑩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으로 병통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밖에 화두를 빈틈없이 챙기지 못해 오는 '혼침(정신이 몽롱한 상태)'과 '도거(마음이 산란하여 들떠는 상태)', '색욕'과 '수마(잠 마구니)'는 화두 수행자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장애다.

제5장 일상생활에서 화두 참구법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는 수행에 출·재가의 구분이 없다. 재가자들의 경우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받으면 매일 아침저녁으로 30분씩 거르지 말고 참선에 들어야 한다. 초심자에게는 이것도 쉬운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평소 한 두 시간의 좌선이 규칙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시민 선방의 철야정진에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초심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하며 화두를 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화두 따로 생활 따로가 되어서는 선수행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출가자이나 재가자는 더 힘써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들어야 한다. 걷거나 차를 타거나 누구를 기다릴 때도 틈만 나면 화두를 들어야 한다.

제6장 화두 참구와 삼매의 단계

화두 공부가 조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아서 공부의 힘(得力處)을 얻게 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두를 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화두가 깊어지면 망상이 사라지고 의정이 일순해져서 아무런 맛도 재미도 못 느끼는 '몰자미(沒滋味)'상태가 온다. 고려말 나옹선사는 이 몰자미 상태에서 화두 참구를 쉼 없이 밀어 붙일 것을 강조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공부하면 은산철벽을 뚫게 된다.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되어 고요하며 흔들림 없는 경지를 삼매라 하는데, 선에서는 이런 삼매의 경지도 그 정도에 따라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항상 밝고 깨어있는 '동정일여(動靜一如)', 화두가 꿈속에서 변함이 없는 '몽중일여(夢中一如)', 깨어있거나 잠들었거나 항상 화두가 들리는 '오매일여(寤寐一如)'로 구분하고 있다.

제3부 깨달음의 세계

제1장 점검과 인가

점검은 수행자가 선지식에게 자신의 공부정도를 물어 확인 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자신이 경험한 깨달음을 제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삿된 길로 들어서는 불행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참구한 화두를 놓고 선지식은 깨달음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감변(勘辨)하는데, 이때 선지식은 수행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그 정도를 확인한다. 이것을 통해 공부가 모자라면 다시 정진하고, 인가를 얻으면 스스로도 한점 의혹 없이 '확철대오'하게 된다.

이렇게 공부의 점검은 선지식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이 마땅치 못할 경우 조사어록을 의지해 스스로 공부를 점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고 냉정한 판단이 필수다. 대혜의 <서장>, 서산의 <선가귀감>, 나옹의 <나옹어록>에는 이러한 공부점검법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영명의 <종경록>에는 이 깨달음의 경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①완벽하게 견성해 대낮에 물건을 보듯 지혜가 밝은가? ②사람을 만나고 상황에 대처하며,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발을 들고 내리며 눈을 감거나 뜨는 것이 모두 도와 상응하는가? ③ 부처와 조사의 말을 깊이 듣고도 두려워 않고 , 이들의 모두 살펴도 의심스러운 곳이 없는가? ④온갖 질문에도 능히 사변(四辯)을 갖추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가?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2장 깨달음의 세계

<서장>에서는 화두를 타파하여 깨닫게 되면 꿈에서 깨어난 듯 하고 하늘에 백천개의 해가 비치는 것과 같다고 한다. 깨달음은 역경계(逆境界), 순경계(順境界), 선경계(善境界), 악경계(惡境界) 고요한 경계나 시끄러운 경계 그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깨달음이 어떤 별천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삶이지만 추호의 의심도 없으며,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이 정확하고 또렷해진다.

이러한 깨달음은 선사들뿐만 아니라 방거사, 한퇴지, 백낙천, 배휴, 소동파, 부설 거사 등 재가자이면서도 선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많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깨침과 닦음의 문제는 일찍부터 논란이 되었다. 육조 혜능의 남종선은 '돈오'를, 신수의 북종선은 '점오'를 주장했다. 돈오돈수는 단박에 깨치므로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만, 돈오점수는 단박에 깨닫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혜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박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보조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양육의 기간을 거쳐야 어른이 되는 것처럼 깨달은 후에도 수행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3장 간화선과 중생교화

부처님은 고행끝에 깨달음을 이루고 45년간 중생들을 교화했다. 깨달은 이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깨달음의 두 축은 지혜와 자비다. 나와 남, 이것과 저것의 경계를 깨고 자타불이의 세계를 체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깨친이의 삶은 그 자체가 동체대비의 실천이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간화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간화선이 성립되던 북송은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사회가 어지럽고 피폐한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공허, 화, 스트레스, 대립, 갈등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수행자들의 삶과 수행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법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종단 사부대중의 겸허한 반성과 뼈를 깎는 정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불교가 가진 뛰어난 선수행 전통을 널리 펼치기 위해 개인과 시대를 아우르는 출·재가 수행자들의 모범적인 참선수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선의 무애자재하고 활발발한 기운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전파되어 각자의 마음이 평화롭고 지혜롭고 자유로워지는데 기여해야 한다.

정리=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가제)간화선 수행지침서' 목차

제1부 기초단계

제1장 조사선의 그 역사적 전개

조사선의 의미와 그 흐름/ 한국선의 역사와 전통/ 우리나라 조사선 가풍

제2장 간화선의 개관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간화선이 지닌 조사선으로서의 특징/ 간화선이 본래성불을 강조하는 이유/ 역대조사들의 수행 및 깨달음의 기연과 간화선/ 간화선은 왜 최상승법인가?/ 간화선에서 보는 견성의 내용/ 재가자도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제3장 부처님의 가르침과 간화선

부처님 말씀과 마음, 그리고 간화선/ 화두참구법과 연기, 중도의 구조/ 불립문자·교외별전과 간화선/ 화두를 참구할 때 부처님 말씀도, 역대조사의 말씀도 듣지 말라고 한 이유

제4장 간화선의 기초수행

간화선에서 정견의 확립이 중요한 까닭/ 간화선의 기초수행 어떻게 해야 하나?/ 간화선에서 바른 세계관을 중요시 하는 까닭/ 간화선 수행에 앞서 교(敎)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 간화선 수행과 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제2부 실참 단계

제1장 화두의 결택

화두란 무엇인가?/ 발심과 화두참구/ 화두를 참구하려면 어떻게 발심해야 하나?/ 수행자 자신에게 꼭맞는 화두는 있는 것인가?/ 화두는 언제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화두는 평생 하나만 참구해야 하는가?/ 화두는 기존의 천칠백 개 공안만 사용해야 하는가?

제2장 지도자의 역할

간화선에서 스승의 역할과 지도방법/ 좋은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선지식을 찾아가는 수행자의 마음자세/ 수행자는 스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나?/ 주변에서 점검 받을 선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참 의심을 일으키려면 왜 스승과의 만남이 중요한가?/ 조실스님이 법문하고 있을 때 질문할 수 있는가?/ 구참 수행자들도 수행지도를 할 수 있는가, 그 밖의 방법은 없는가?/ 선원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공부를 탁마해 가야 하나?

제3장 화두의 참구 단계

화두참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대신심·대분심·대의심을 갖추어야 하는 까닭/ 의정, 의단, 타성일편, 은산철벽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것과 관하는 것의 차이점/ 화두가 들리지 않을 때 주력이나 송화두, 염화두를 해도 되는가?

제4장 병통의 극복

화두참구에서 열 가지 병통을 벗어나는 법/ 속효심과 분발심의 차이/ 상기 다스리는 법/ 혼침과 도거를 다스리는 법/ 색욕과 수마를 극복하는 법

제5장 일상생활에서 화두 참구법

정중공부를 해야 동중공부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일상생활이나 만행중에 화두를 챙기는 법/ 일상공부과정에서 역경계와 순경계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화두참구와 장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재가자가 일을 하면서도 화두를 들 수 있는가?

제6장 화두 참구와 삼매의 단계

화두참구와 성성적적/ 화두참구에서 득력처란?/ 화두참구시 몰자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화선에서 말하는 삼매란?/ 동정일여 몽중일여, 오매일여의 세 가지 단계란?/ 상근기 중생은 한마디 말끝에 화두를 타파할 수 있는가?/ 고요한 경계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화두가 일순하다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제3부 깨달음의 세계

제1장 점검과 인가

점검과 인가란 무엇인가?/ 점검과 인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점검과 인가과정의 실례/ 스스로 공부를 점검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제2장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깨치면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는가?/ 깨달음에 대한 자기점검 기준은 있는가?/ 깨달음과 성성적적의 관계는 어떠한가?/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란?/ 깨달으면 역순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까닭/ 재가자도 깨달을 수 있는가?

제3장 간화선과 중생교화

깨달은 이는 중생교화를 어떻게 하나?/ 간화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사랑의 교복 … “공부 잘 할게요”



부산 두송복지관장 지현 스님이 2월 28일 저소득층 자녀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새학기에 입을 교복을 전달하고 있다.

두송복지관 저소득 가정에 전달
분양한 복돼지 1년 모아 보시행

부산 두송복지관(관장 지현)이 2월 28일 관내 저소득층 자녀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신학기 교복을 전달했다.

이날 다송중학교에 입학하는 광진이를 비롯한 17명의 중학생 새내기들은 새 교복을 받는다는 설렘으로 전달식에 참석했다. 파키스탄 출신 이주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쌍둥이 형제인 하산, 후센 형제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연방 수줍은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선물한 사람들은 인근 주민과 관음사 신도들을 비롯한 후원자들. 살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저소득 세대가 밀집된 두송복지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살림이지만 1년 동안 모은 동전들로 참다운 보시의 의미를 일깨워 잔잔한 감동을 전하기에 충분했다.

매년 두송복지관에서 분양하는 복돼지 저금통을 가득 채워 온 이들 가운데는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많아 이번 교복 지원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는 주민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아이비클럽 괴정 · 다대점 김종광 대표도 이날 8명의 교복을 후원했다.

학생들은 이웃 주민들의 사랑이 담긴 교복을 입어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복에 담긴 이웃의 사랑과 두송복지관장 지현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들으며 마음까지 푸근해졌다.

새 교복을 입은 하산은 “기분이 너무 좋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중학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넥타이가 가장 마음에 든다는 광진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교복 마련에 걱정이 많았는데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제법 어른스런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복을 선물 받는 조카와 함께 전달식에 참가한 이귀옥(사직동) 씨는 “교복 장만이 큰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겠다”고 말했다.

지현 스님은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알을 깨는 것과 같다”며 “지금까지의 삶의 방법을 바꿔보다 높고 넓은 시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며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님, 이웃의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송복지관의 교복지원사업은 2003년 1월 시작된 ‘작은 사랑 큰 기쁨-1일 100원 동전 모으기’ 운동으로 시작됐다. 연초에 복돼지 저금통 1000개를 분양해, 매년 12월 후원금을 정산한다. 이렇게 모인 성금으로 지난해에는 12명의 학생에게 동복과 하복이 전달됐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직지사 교구 신도회 활성화 모색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주지 성응)는 2월 27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8교구 신도회 2005년 신년 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병무 신도회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신도회는 이날 김천, 구미, 예천 등 교구 본사 산하 지역회장, 본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회칙 개정과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한병무 회장은 “3월 중 신도회 임원단을 구성하고 직지사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신도조직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단위 사찰은 본사 차원의 신도교육에 참여하고, 분기별 임원회의를 통해 임원들의 수행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부산 묘관음사 분원장 임명 충돌

당대의 선지식 향곡 스님이 주석했던 묘관음사가 분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끄럽다.

지난해 12월 23일 선학원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분원장 혜오(前 표충사 주지) 스님이 3월 2일 새벽 4시 10분경, 묘관음사로 진입했다.

묘관음사 분원장을 둘러싼 갈등은 2004년 12월 14일 향곡문도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혜오 스님을 추천하고 12월 23일자로 임명장을 발부했으나, 前 분원장 혜원 스님이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본격화됐다.

양측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펴며, 몇 차례 사찰 진입을 시도하고 막는 과정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부상을 입는 등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혜오 스님을 반대하는 신도들은 집회 신고를 내고 사찰 길목에서 혜오 스님 분원장 임명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반복성 탈피 다양화 대중화 돼야
위덕대 ‘불교축제’ 주제로 심포지엄

위덕대는 2월 25일 교내 공덕관 4층 지역혁신센터에서 ‘경주문화콘텐츠 · 불교축제’를 주제로 2005 인문콘텐츠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1부는 △경상북도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발표:경북도청 황인동 문화예술과장) △ESODO의 CT산업과 문화원형, 경주 사례를 통한 Solution과 Application(발표:ESODO 김진희 대표)을, 2부는 △한류의 중심 ‘겨울연가’의 문화콘텐츠, 내러티브의 기호학적 분석(한국외대 백승국 교수) △불교 축제의 새 모델 연등축제-지역 축제의 대안 모색(호서대 안이영노 교수)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경주 불교문화콘텐츠의 새로운 기획과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좌장인 인문콘텐츠학회 부회장 김기덕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한편, 지역불교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연등축제의 활성화를 제시한 안이영노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통등이 갖는 국제적 보편성이 큰데다, 전통등 연구 및 제작의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연등축제가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의 반복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조용수 기자

대구 경북 108 여성불자회 창립

대구 · 경북지역에서 불자 여성지도자들이 ‘대구 · 경북 108여성불자회(회장 박소현)’를 3월 8일 창립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사상을 지역사회에 회향하기 위해 창립된 108여성불자회는 이날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여성불교예술가인 박소현씨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조직구성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08여성불자회는 앞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자원봉사활동과 여성불교회관 건립 등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영주암 어린이집 우수 보육시설

(사)불국토 산하 영주암어린이집(원장 범산)이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2004년도 보육시설 인준평가에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인정기간은 2004년 12월~2006년 11월.

더구나 이번 선정은 1998년과 2002년에 이어 세 번째 선정이어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범산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 부처님의 팔정도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선생님들의 노력이 일군 성과”라며 “미래의 새싹을 귀중하게 여기시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는 정관 스님의 뜻을 받들어 참다운 전인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755-5500 천미희 기자

관음선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

(재)관음선행장학회(대표 지현 · 이하 장학회)는 2월 22일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관음선행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장학회는 이날 송광사 율원(3명), 강원(5명), 동국대 대학원(2명), 이화여대 대학원, 부산대 의과대학, 경의대 한의학과, 동아대 대학원, 순천대 대학원 등 20명에게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이 총재직을 맡고 있는 장학회는 1991년 정재선 김소연 등 10여 명의 보살들이 운영해오던 것을 2004년부터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은 맡아 운영하고 있다. (051)294-9300 천미희 기자

지역불자 마음 모으니 ‘신나는 법회’



구미지역 6개 신행단체들은 3월 2일 첫 연합법회를 열고 지역불교발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구미, 6개 신행단체 첫 연합법회

2005년 구미불교 신행단체들이 힘을 모으면서 지역불교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3월 2일 구미불교대학 큰법당에서 화엄탑사 주지 승오 스님을 법사로 신행단체들이 연합법회를 봉행하는 등 구미 지역 불교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구미신행단체 연합법회에 동참한 단체는 6개. 구미불교거사림회(회장 김홍배)가 주축이 됐고 구미시청불자회(회장 신영근), 구미교사불자회(회장 최한규), 구미경찰불자회(회장 구흥모), 구미운불련(회장 정천섭), 구미연향회(회장 이미정)에서 사부대중 150여명이 법회에 참석했다. 법어, 발원문 등의 순서로 봉행된 이날 법회는 구미 지역 신행단체가 함께 봉행한 첫 법회라는 점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승오 스님은 “구미 신행단체들이 서로 화합하여 부처님 법을 펴는 것은 무엇보다 고귀하고 값진 일”이라며 “앞으로 신행단체들이 힘을 모아 구미 시민들의 마음 밭을 가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법문했다.

법회를 주관한 구미불교거사림회 김홍배 회장은 “앞으로 분기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성지순례, 구미 시민을 위한 큰스님 초청 대법회, 사월초팔일 합동 행사, 청소년포교, 사회봉사 등을 꾸준히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법회 후 상견례와 차담 시간을 통해 향후 구미지역 불교발전을 다짐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부산 보훈병원 법당 증축 개원

부산 보훈병원 법당이 3월 9일 증축 개원한다.

2000년 1월 개원한 5평 남짓의 법당이 14평 규모로 50~60명이 한꺼번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법당으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이날 오전 11시 정관 스님을 증명 법사로 부처님 이운법회를 봉행한다.

이처럼 새로운 법당이 마련된 데에는 그동안 보훈병원 내에서 꾸준히 활동을 벌여온 부산불교교육대학 동문회, 부산 보훈병원관음회 봉사자들의 몫이 컸다. 또 봉사자들이 활동 뒤에는 매달 후원금을 보내준 정관스님의 뒷바라지도 큰 힘이 됐다. 2년 전 신년 법회에 참석했던 정관 스님은 법당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듣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왔다. 스님의 그러한 관심은 병원 포교 활동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됐다.

불교봉사자 70여명 활동
호스피스 · 상담 · 안내 등

새 법당이 개원으로 그동안 법당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휠체어 환자들의 불편도 말끔히 해소됐다. 또 부산 보훈병원내 불교봉사자들의 활동도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 보훈병원관음회(회장 윤재구)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 봉사자들을 구성,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현재 보훈병원에서 활동 중인 불교봉사자는 약 70여 명. 목욕봉사, 염불봉사, 호스피스, 상담, 안내 등의 분야로 나눠 매주 월요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목욕 봉사는 불자 봉사자들의 꼼꼼하고 친절한 봉사덕분에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 밖에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독경 요청이 늘면서 염불 봉사자들도 분주해지고 있다. 앞으로 새 법당에는 상근자를 두고 법당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기도와 수행을 돕는다. (051)601-6347 천미희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3월 중 수시모집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 원광대 ·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 1995년 1월 20일 학장혜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일행 방한
· 1995년 10월 25일 南京中醫藥大學 漢語 分校설립, 분교장 취임 이병용(李秉鎔.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학원 교직원 방한 (中國 江蘇省 教育委員會 永鎭 國際教育學院長 楊公服, 教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11일~11월17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琦琈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11월 중국 국가의사고시 7명 합격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눈높이 맞춘 새로운 군포교 기대

육군 7군단 군불교발전협 창립

이천 여주 양평 사원련 연합 결실

지원체계 구축·다양한 활동 계획

3개 지역 사원연합회가 주축이 된 군불교 지원단체가 불교계 최초로 결성돼 주목된다.

이천사원연합회(회장 혜봉, 용학사), 여주사원연합회(회장 법성, 법천사), 양평사원연합회(회장 화암, 사나사)가 힘을 합쳐 육군 제7군단을 지원하는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공동의장 혜봉 · 법성 · 화암)를 3월 5일 창립했다.

지금까지 군불교 지원단체들은 지역 사찰에서 군법당을 지원하는 식이 대부분이어서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에 거는 불교계의 기대는 남다르다.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는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7군단 전체 예하 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 예하부대에 대한 지속적이고 시스템화된 지원을 결의했다.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해 3개 사원련은 2004년 10월 1일 여주 신륵사에서 1차 모임을 가진 이후 각 지역 사찰을 다니면서 7차례에 걸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임원진, 회칙 정관 등이 구성됐다.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는 창립과 더불어 2005년 첫 번째 사업으로 군법사가 상주하는 7군단 호국상승사, 수도기계화사단 호국연호사, 20사단 호국득도사, 60여단 호국흥국사, 항공작전사령부 호국비승사 등 5곳에 올해 안으로 300만원 상당의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의 창립으로 이천 여주 양평지역에 위치한 법당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는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세대적 감각에 맞는 포교 · 지원의 다양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선응 스님은 "새로운 형태의 군포교 지원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포교원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육군 제7군단 호국상승사 주지 경연수 법사도 "3개 지역 사원련이 군불자 포교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군불교발전협의회의 창립을 이끌어내게 됐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군불교 지원단체가 속속 결성돼 전국적으로 군불교 지원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제주 법화사 구화루 복원



이번에 복원된 법화사 구화루 전경.

제주를 대표하는 천년고찰 법화사의 누각인 구화루가 복원됐다.

법화사는 최근 구화루 복원불사를 마치고 3월 30일 낙성식을 봉행한다.

이번에 완공된 구화루는 2층 110평 규모로, 고려건축을 대표하는 부석사 무량수전 양식을 본떠 건축되었으며, 겹처마에 팔작지붕 형식을 띠고 있다. 기단 및 돌기둥은 제주산 조면암을 사용했다.

이번 구화루 복원은 법화사가 수정사와 함께 고려 후기 제주를 대표하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미 대웅전 복원을 마친 법화사는 내년까지 선방과 승방을 복원하고 유물관을 지어 법화사 복원불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송산노인복지관 개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송산노인복지관(관장 석봉)이 3월 7일 본격적 운영을 시작하고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700평에 하루 이용인원 700명을 예상하고 있는 송산노인복지관은 앞으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컴퓨터 교육실은 물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지역 노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꾸려갈 계획이다. (031)852-2595 김강진 기자

"방방곡곡 화합의 장 만들터"

도법 스님, 2005 생명평화 탁발순례 시작



도법 스님을 비롯한 생명평화 탁발 순례단. 3월2일부터 전남지역 순례에 나섰다.

3년 일정으로 전국을 순례중인 생명평화 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이 지난 3월 2일 전남 광양시청 앞에서 '2005 생명평화 탁발순례 출정식'을 갖고 순례를 시작했다.

출발에 앞서 순례단장 도법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지역민들과 만나 대화를 통해 생명평화의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지난 1년간 탁발순례를 통해 농촌붕괴와 종교, 이념은 물론 계층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삶의 가치가 이해타산이 아닌 평화와 생명가치가 되도록 지역마다 생명평화의 정신을 운동차원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탁발순례단은 지난해 지리산권, 경남, 제주지역 순례를 마치고 새해 들어 전남지역 순례에 들어갔다. 전남권 순례는 오는 7월 25일(21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남 5개시 16개군을 순례하게 된다. 순례기간동안 매주 토, 일요일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움직이는 생명평화학교를 운영한다.

한편 순례단은 이원규 시인을 팀장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동참한다.

글 · 사진/광양=이준엽 기자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세요"

광주 한마음선원 위문 공연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합창단은 지난 2월 26일 동일동산 양로원을 방문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년소녀 합창단은 찬불가 음성공양,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추는 댄스경연에 이어 준비해간 과일과 떡으로 조촐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준엽 기자

초기경 통해 간화선 바로 알자

선우논강, 남원 실상사서

상생위한 윈-윈 전략 필요

"초기불교 수행법의 기본인 <대념처경>은 마음챙김(sati)의 대상을 설해놓은 경으로 마음챙김이 없으면 통찰지(반야)도 생길수 없어 화두라는 대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간화선의 입장이야말로 초기경에서 강조하는 마음챙김과 같은 선상에 있다."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은 2월 26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제 11회 선우논강(대표 철오) '대념처경으로 읽는 초기불교의 수행'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각묵 스님은 "간화선과 초기불교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한국불교가 더욱 당당하고 힘을 받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양쪽 모두 부처님 제자이기에 수년 내에 간화선과 초기불교를 바라보는 잣대가 같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집중 강연에 이은 토론에서 지일 스님은 "<대념처경>에서 강조하는 분석과 해체는 서구사상의 기본으로 동양의 직관과 다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백담사 무금선원장 신용 스님도 "역대 조사들은 언어사랑을 떠나 직관으로 깨침에 들어갔다"며 "조계종의 정체성과 초기불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고양 광명사

아낌없이 주니 불법 홍포 절로



광명사 기도법회 모습. 광명시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어엿한 기도도량이자 도심포교당으로 자리잡았다.

불우이웃 · 관공서 등에 '사랑의 떡 나누기' 펼쳐

한글의식, 발원 · 참회 등 5개 테마 기도 큰 호응

참 특이한 절이다. 스님도 그렇다. 유흥가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무조건 퍼주기 바쁜 스님도 그렇고, 테마별로 열리는 법회 형식도 그렇고…..

나한기도도량인 경기 고양 광명사. 빌딩 7층에 위치해 있어 일반 사찰처럼 금방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일대 사람들 중에서 광명사를 모르는 이는 없다.

광명사(주지 대덕)가 이곳에서 개원한 것은 2003년 5월. 서울 신촌에서 홍제포교원을 운영하던 대덕 스님은 누가 보더라도 포교당이 위치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이곳을 도량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공격적인 포교'를 시작했다.

작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광명사는 인근 공원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시민들에게 작은 떡이며, 과자며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작은 연꽃등을 하나씩 손에 들려주었다. 어려운 이웃이나 병든 이웃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다주면 무조건 등도 달아주었다. 아파트촌을 돌며 '사랑의 떡 나누기' 행사도 벌였다.

지장기도, 나한기도 등 기도회향 때마다 경찰서, 동사무소, 소방서, 노인정 등을 돌며 떡도 돌리고 후원금도 지원했다. 신도들로 구성된 원왕생팀은 일산병원 등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무료염불봉사를 벌였다. 경기 전곡에 위치한 26사단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군포교에도 나섰다. 매달 법당운영비를 지원하고 푸짐한 선물도 전달했다. '무조건 주는 포교'는 그렇게 계속됐다.

광명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법회시 한글의식도 병행했다. 기도 형식도 파격적으로 변화시켰다. 108일 지장기도는 발원 · 참회 · 소원성취 · 감사 · 회향 기도 등 5개 테마로 나누고 각 테마별로 내용이 다른 발원문을 염송토록 하면서 기도하도록 했다. 한 달에 한 차례 불교대학도 열어 신도교육도 강화했다. 그러자 광명사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자연히 신도도 늘기 시작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잘나가는 도심포교당'이 되기까지는 주지 대덕 스님과 불교잡지 <세계불교>의 발행인이자 광명사에서 불교대학 강의를 맡고 있는 보현 법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덕 스님과 보현 법사에게는 꿈이 있다. 광명사를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심포교당으로 가꾸는 것이다. 벌써 그 꿈이 영글기 시작했다. 작은 포교당이지만 광명사는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031)978-9782 한명우 기자

제 7회 진각논문대상 공고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 및 밀교연구를 촉진시키고, 진각종 교학을 확립하기 위해 **'진각논문대상'**을 공모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주 제 :** • 불교일반(불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 밀교일반(밀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 진각종 교학(진각종학과 희당사상 관련)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정 :** • 접 수 마 감 - 2005년 4월 22일(금요일) • 당선작 발표 - 2005년 5월 21일 예정
• 당선논문 발표회 - 2005년 11월 22일 예정
◈ **당선작 및 상금 :** 불교분야 3편, 밀교분야 3편, 진각종 교학 2편. 각 20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연구소모임 공고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 및 밀교 관련 대학원생(석 박사과정)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모임을 공모하고 있사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모집 소모임 :** 종단 외부 2팀, 종단 내부 2팀
◈ **지원금 및 지원기간 :** 종단 외부 월 30만원, 종단 내부 월 20만원, 향후 1년간 지원 예정
◈ **응모자격 :** 대학원생 5 ~ 6명 이상
◈ **전형방법 :** 연구소모임 지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정 :** • 접수마감 - 2005년 4월 22일 • 발 표 - 2005년 5월 21일 예정

접 수 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 홈페이지 www.jingak.or.kr e-mail : sanghun515@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대한불교 조계종 심원사

조상령 및 유산아 천도 합동 49재 법회안내

생 지장 영험 도량 철원 심원사에서는 조상 영가 및 유산아 천도로 영가의 왕생극락의 길로 안내하는 합동 49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지장 보살님의 원력을 빌어 기도 성취 하시고 무량 대복을 누리시고 업장 소멸 하시기 바랍니다.

■ 법회 봉행 일정 ■

• 입재 : 3월 20일 일요일 (음력 2월 11일) 오전 9시 30분
• 회향 : 5월 8일 일요일 (음력 4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도입재일 부터 회향때까지 매주 토요일은 철야기도 법회
일요일은 사시기도법회 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기도 동참금 : 10만원 (국민은행 307-01-0589-726 예금주: 김도중)
• 심원사 종무소 **033-455-3468, 5882**
• 교통편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
조계사 차량문의 [덕문거사 018-357-4406, 02-715-4406]
수유리 버스터미널에서 30분 간격으로 관인행 버스 출발
(지하철 4호선 수유역 4번출구)
• 매월 지장재일 전날(음력17일) 오후 5시 조계사 앞에서 버스출발, 철야정진기도합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1리 72번지
종무소 033-455-3468, 5882



구미 불로사 룸비니합창단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시엠립 와뜨남 사원에서 공연을 가졌다. 룸비니합창단은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초전법륜의 역사 전방위 포교로 승화

경북 구미 · 김천



김천 개운사 녹야유치원은 지역어린이 포교의 산실과도 같은 곳이다. 녹야 유치원 어린이들이 다도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신라불교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자라난 곳 구미와 김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 불심이 깊다. 특히 해동최초의 가람 도리사가 있는 구미시는 곳곳에 큰 사찰들이 특색있는 활동을 펼치며 지역불교를 이끌고 복지 문화 등 지역사회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청년불자를 비롯한 재가불자들의 활동 또한 왕성하다. 반면 김천은 직지사의 거대한 그늘 아래 70여개의 사암들이 소박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구미 옛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하기 위해 세운 해동(海東) 최초의 가람 도리사가 있는 곳 구미는 신라불교의 씨앗이 뿌려진 텃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또, 신라불법의 초전법륜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구미사암주지연합회 회원사찰간의 단합이 잘 되고 각 사찰별 활동도 왕성하다.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30여개 사찰로 이뤄진 구미사암주지연합회는 85년 결성된 이후 매년 초파일 제등행진을 주최하면서 신심고취와 불법홍포에 앞장서 왔다.

또, 2001년에는 지역불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불교대학을 설립했고, 매년 불우이웃돕기,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후원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사찰별로 보면 신라불법의 초전법륜지 도리사는 불교성지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월 초하루 해맞이 법회나 타악 뮤지컬 공연 등을 개최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금강사는 시내에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80년대 초반야불교학생회와 구미불교청년회의 창립을 도우며 오늘날 구미불교의 틀을 형성했고, 천해사와 보천사는 다도반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교천태종 천태복지재단이 구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과 급식을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학대아동그룹홈인 문수의집, 지난 1월 조계종단 최초로 승인 받은 학대아동예방센터를 연계해 운영하면서 보다 차별화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교계 자원봉사자들을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연결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의견 반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구미는 첨단산업도시, 젊은 도시로 청년불자들의 활동이 왕성했던 곳이다. 최근 직장 직능단체에 청년 불자들이 흡수되면서 활동이 침체되었지만 79년 창립한 구미불교청년회는 81년 구미 첫 제등행진을 이끌 만큼 활동이 대단했다.

특히 81년에 창립한 구미반야불교학생회는 오늘날 구미불교의 주역들을 배출했다. 반야불교학생회는 지역 우수 학생들을 구미불교청년회를 거쳐 불법외호세력으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외 구미에는 거사림회, 시청공무원불자회, 경찰 공무원불자회, 운불련, 교사불자회 등 다양한 신행단체들도 활동하고 있다.

 # 김천 추풍령 아래 첫 고을 김천은 소백산맥 줄기에서 발원한 감천 직지천이 이루어 놓은 충적평야를 기틀로 터를 일군 고장으로 황악산 직지사, 금오산 아래의 길항사터, 수도산 깊은 골에 자리한 청암사와 수도암이 신라불교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자라난 내력 깊은 고장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황악산 직지사는 조계종 25교구본사 중의 하나로 큰 그늘을 드리우며 김천불교를 아우르고 있다. 그 외 청암사는 비구니 강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암은 스님들의 수행도량으로 유명하다.

서기 418년 아도화상에 의해 세워져 한국불교 1600년 역사와 세월을 함께 해온 직지사는 아름다운 경내가 뭇 사찰 중 으뜸이다. 현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이 1958년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 30년에 걸친 중창불사로 6개 전각에 불교했던 직지사를 67개동의 불전(佛殿)과 당우(堂宇)를 갖춘 오늘의 가람으로 발전시켰고, 국제회의와 대법회를 위한 본사 최대의 건물인 만덕전(萬德殿)을 건립했다.

과거 10여 년 동안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녹원 스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과 포교에 지대한 원력을 가지고 직지사를 중심으로 김천지역 불교발전을 이끌어왔다. 일찍이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개운사 유치원 개원에 나선 것도 녹원 스님의 원력에 따른 것.

한편 김천에는 직지사 외에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80여개의 사암이 김천사암주지연합회를 형성해 30년을 넘게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비록 김천시내에 있는 개운사나 천태종 금강사 등 몇 개 사찰을 제외한 개별 사찰들의 활동이 미약하지만 직지사와 함께하는 연합회 활동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편이다.

김천사암주지연합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합 초파일 봉축법회 대신 거리 제등행진에 나서 2천 여 명의 불자가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또 몇 해 전부터 시행해 오는 매주 목, 금요 무료급식과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은 지역불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천지역 불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직지사내에 불교대학을 개설했다. 또 개운사가 운영하는 녹야 유치원, 금강사가 운영하는 금강유치원 등 불교계 유치원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발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이다보니 직지사에 창립된 신행 단체 외에 활동하는 대표적인 신행단체는 없다. 직지사에는 거사림회, 관음회, 교사불자회, 합창단, 운불련 등 19개 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지역불우이웃 돕기나 장애자 수송 외에 각종교계 행사 등에 적극 나서는 운불련의 활동이 단연 돋보인다.

‘산업도시’ 청년불심 지역발전 토대
종합복지관 3곳…신행 기반 튼튼

직지사 교육·문화·새싹포교 견인
사암주지련 무료급식 등 앞장 ‘귀감’

그 외에 금오산 자락에 있는 남화사는 2001년 12월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운영해 왔으며, 진각종 보광심인당은 20년 넘게 보광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포교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구미불교는 지역복지나 사회참여도 타 종교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구미시에 있는 3개 복지관 중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한불

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포교효과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대상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여 불교문화를 알리고 올바른 정법홍포에 앞장설 계획이다.

기존 사업들을 보다 내실있게 이끌면서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스님은 산중어른 스님을 위시해 본말사간의 화합과 신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구미불교 발전에 헌신

법등 스님 (구미 도리사 주지 ·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81년 도리사 주지로 부임한 스님은 신라에 불교가 전파된 성지로서 가람의 면모를 갖춰놓았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또 일찍부터 지역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지역 사회복지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다. 구미사암주지연합회가 설립한 구미불교대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봉곡동에 새로운 보금자리인 화엄탑사를 준공하여 그 운영을 맡게 됐다.

스님은 지역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참여하고 있다. 구미경실련대표로 또, 전국 경실련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스님은 불교계를 지역사회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정책을 이끌어내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지금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복지관 증축공사를 통해 750평 규모의 전국최대규모 복지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스님은 곧 남화사에 건축될 외국인근로자 · 실직노숙자를 위한 보현의 집 건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도교육 · 템플스테이 주력

성웅 스님 (김천 직지사 주지)



‘율사’로 불릴 정도로 수행과 계율을 강조하는 성웅 스님은 수행의 참맛을 느끼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신도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업과, 템플스테이도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세워 놓았다.

성웅 스님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통하여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인적 자원을 조직화할 생각이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양적, 질

학생·청년 불자들의 ‘대부’

정우 스님 (금강사 주지 · 구미사암주지연합회장)



정우 스님은 79년 금강사 주지를 맡은 후 구미불교청년회와 81년 구미반야학생회 창립을 이끌고 85년 구미사암연합회 결성을 주도한 구미불교의 구심점이다. 스님은 81년 청년회와 학생회를 주축으로 장엄물과 등을 만들어 무조건 초파일 제등행진을 시작했던 장본인이기도하다. 88년에는 유치원을 개원해 어린이포교에도 앞장을 서고 있다.

금강사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유치원 불교문화회관이 준공됐기 때문이다. 총 5층 연면적 570평 규모의 불교문화회관은 1,2층은 유치원으로 2,3층은 도심 속 일반 대중이 다도, 예절, 서예, 음악 등을 배우는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원 ‘맥’ 이으며 환경불사

지형 스님 (김천 청암사 강원 강주)



청암사 학장 지형 스님은 현 주지 상덕 스님과 1987년 청암사에 들어와 비구니 강원을 설립하면서 70년대 이후 끊어졌던 강원의 맥을 잇고, 진영각과 육화료, 중현당, 선열당, 교육관 등 19여 동의 전각과 당우들을 하나하나 보수 건축불사하면서 오늘날 130명의 대중이 경학에 정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비구니 강원으로 만들었다. 불사에 있어서 항상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스님은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청정지역을 그대로 보전하는 사찰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했으며, 매주 어린이, 중학교, 김천 소년교도소 포교를 20여 년간 이어오면서 지역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해 왔다.

공동체 마을 설립 발원

명효 스님 (구미 죽장사 주지)



명효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선산 죽장동 5층 석탑(국보 130호)이 너무 초라하게 방치돼 있는 것이 안타까워 오직 부처님 전을 짓겠다는 원력 하나로 88년 죽장사에 들어왔다. 두두물물(頭頭物物) 부처님 아님이 없다는 믿음 하나로 기도를 통해 불사원력을 성취해온 스님은 4년째 여성 쉼터 연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오갈 곳 없는 여성들을 받아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게다가 지역 독거노인 2명도 함께 모시고 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수 없다”는 스님은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 환경 속에서 노인과, 아이, 젊은이가 모여 사람 사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화합 도모 앞장

성현 스님 (김천 고방사 주지 · 김천사암주지연합회장)



“할매요, 항상 건강하시소”

성현 스님의 구수한 사투리는 김천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등 4개 면의 시골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듯한 온기를 불어 넣는다. 9년째 고방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성현 스님은 사암연합회장을 맡은 6년 동안 김천지역 각 사암들의 화합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모든 사암 스님들이 화합하여 매사에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스님은 직지사 회주 녹원스님의 포교에 대한 원력과 관심 또한 잊지 않고 거론했다. 출가수행자의 본분대로 주지 소임을 놓으면 꼭 선방에서 한 철을 나겠다는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타종교 간병인의 보호를 받으며 개종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언제가 불교 간병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악포교’ 한차원 높여

현오 스님 (구미 불로사 주지)



현오 스님은 1998년 어린이 불교합창단인 룸비니합창단을 이끌면서 어린이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교계의 다양한 행사에 어린이합창단 하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스님은 1998년 직접 단원을 찾아 나선 끝에 10여명의 어린이들로 룸비니합창단을 창단한 것이 지금은 단원이 50여명을 넘고 있다.

또 발표경력도 화려하다. 2000년에는 한국불교음악협회기념 연주회에 특별출연하면서 세종문화회관에도 섰고, 임진각 리틀앤젤스회관에도 섰다. 또 2003년에는 이태리 순회공연을, 2월 23일부터는 5박6일간 캄보디아 와트남 사원에 위문공연을 다녀왔다. 스님은 이제 단원 중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을 발굴해 본격적으로 불자 예술가 육성에 나섰다.

어린이교육 특성화 몰두

진원 스님 (김천 개운사 주지 · 녹야유치원 원장)



5명만 모여도 어디서건 법회를 이어간다는 진원 스님은 20여명 남짓한 유치원생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녹야유치원을 5년만에 김천 최고의 유치원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비가 새고 문이 떨어져나간 개운사에서 스님이 처음 시작한 일은 도량 청소. 그리고 스님은 개운사를 인식시키기 위해 어린이 한문서당을 개최하고 신도 기본교육을 시행했다.

또 유치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밤낮 선생님들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했다. 이제 녹야유치원은 지역민의 성화에 못 이겨 제18회 입학식을 맞아 3학급을 더 증축해서 모집했다.

불심고양 위한 테마법회 준비

김흥배 거사 (구미거사림회장)



“불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법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불교대학 1기 출신인 김흥배 회장은 포교사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의 정기법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1월 축원, 2월 108참회, 3월 신행단체연합법회, 4월 타 지역 스님 초청법회 등 월별 테마가 있는 법회를 제안하는가 하면 칭찬 릴레이, 이달의 거사, 우수 거사 선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불자라면 풍경에 달린 물고기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회장은 지역 신행단체들의 연합회를 모색하면서 지역불교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옛 명성’ 되살리기 화두

이병정 거사 (구미불교청년회장)



“예전 구미불교청년회의 명성을 되찾고 싶습니다.”

구미불교청년회 이병정 회장은 요즘 과거 화려했던 구미불교청년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구미불교청년회는 우선 금강사에서 불로사로 활동무대를 옮겨 불로사 청년회를 새롭게 창립했다. 금강사에는 구미반야불교학생회출신 청년불자들로 금강사지회를 새롭게 창립한다는 복안이다.

구미불교청년회는 불로사 주지 현오 스님의 후원으로 마련된 청년회관을 거점으로 지역민을 위한 문화관을 운영하면서 지부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구미 · 김천=배지선 기자

교육·미륵십선 운동으로 내실 다진다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신년 인터뷰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복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불교복지의 이정표를 세우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한 신생종단 미륵종은 올 한해 한의원, 노인복지시설, 납골당 설립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종단의 주요사업은?

-창종기념법회가 3월 19일 김해에서 열리며, 이날 함께 보살계 수계법회가 진행됩니다. 가을에는 종도 대상의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연수교육 첫날 금강계단을 설치, 각 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교육을 마친 행자들에게 사미계를 줄 계획입니다. 승려연수 바로 직전 3주간 행자 집중교육도 실시할 것입니다.

말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육, 행자교육 등이 제대로 되면 승려자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스님 교육이 끝나면 신도 대상으로 '미륵십선법'을 강의해, 미륵십선운동을 전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복지법인 '미륵원'의 설립입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설립 신청이 들어간 단계이고 적어도 4월이면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법인 등록이 끝나면 말사들을 중심으로 복지관, 탁아소, 요양원 등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포천에 1만 4천평 부지를 마련해 탑묘, 공원묘지, 납골당 건립도

복지법인 설립해 시설 위탁 운영
전국신도회·비구니회 발족 박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미륵한의원 등이 결합되면 종합적인 '불교복지'를 실천할 길이 열리게 되리라 장담합니다. 종단이 소속사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면 포교역량도 한층 배가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생종단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텐데요.

-현재 전국 10개 교구 200여 개 사찰에 320여 명 스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륵종은 짧은 시간 내에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적지 않은 형편입니다. 신생종단이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종단협에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며, 종단명 난립을 막기 위해 '미륵종' 상표등록도 마쳤습니다.

올해 가장 시급한 일은 개별 사찰 신도회를 하나로 묶는 전국신도회를 발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지부 대표회의를 개최, 전국신도회를 창립시킬 방침입니다. 그와 함께 비구니회 발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방불교계와 교류가 많은데요.

-3월 29일에는 150여명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태국 아유타야 사원 등을 방문하는 성지순례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한 스리랑카 불교계와도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5명 정도의 인적교류를 하고 있고 2007년 경 콜롬보에 불사가 끝나면 남방불교 습의와 경전을 배우는 등 불교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대승종 종정 도암당 성도 대종사 입적



대승종 종정 도암당(道庵堂) 성도(性道) 대종사가 2월 25일 저녁 9시 40분경 서울 중구 신당 4동 흥도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6세. 법납 71세.

1920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난 스님은 38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대륜 스님을 은사, 춘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으며 39년 개운사에서 한영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1988년 대한불교 대승종을 창종, 초대종정에 취임했다.

영결식은 3월 1일 서울 현대아산병원에서 대승종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성도 스님은 입적 전에 '허공 가득히 해와 들이 드니(日月入滿空)/ 시방 삼세에 걸림없어라(無十方三世)/ 하늘 꽃은 항상 고요히 비추이네(天花常寂照)/ 어느 곳에 티끌 성품있으리(何處有性塵)/'란 열반송을 남겼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명의로 토지등기된 신촌 봉원사
법원 "말소등기하고 환원" 판결

"조계종 고창 도솔암 주지 이준복 스님이 2001년 11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로 표시변경 한 토지 146,068㎡와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을 말소등기하고 원래의 봉원사로 환원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손윤하 판사)는 2월 1일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가 고창 도솔암 주지 이준복 스님과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및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등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1962년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한 뒤 수차에 걸쳐 주지를 임명하였으나 그 취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조계)종단 소속 승려가 봉원사에 재적하거나 포교나 법요집행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봉원사가 통합종단의 발족으로 당연히 이에 흡수되어 그 소속 사찰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라는 사찰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신촌 봉원사 토지 소유권 문제는 조계종 봉원사 주지 이준복 스님이 1981년 "일부 건물을 조계종에 인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계종이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차원에서 2001년 11월 5일 일부 토지를 '조계종 봉원사'로 서대문 등기소에 등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태고종 봉원사 주지 박일동 스님은 조계종이 등기소에 봉원사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실체가 없고 무권리자에 의한 등기인 만큼 소유권을 말소해야 한다며 조계종 이준복 스님을 대상으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원우 기자

선암사 강원 역대 최대 학인 입학

치문반 46명 등 총 88명 수강



순천선암사 강원 입학식이 3월3일 88명의 학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국불교 태고종립 선암사 강원에 역대 최대의 학인이 모여 한국불교 교육과 태고종단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3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2005학년도 입학식에는 신입학인(치문반) 46명을 비롯해 대교반 6명, 사교반 12명, 사집반 17명, 청강 7명 등 총 88명의 학인이 참석했다.

이날 선암사 주지 상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암사 강원은 조선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1문 4대 강백이 연이어 배출된 전통 강원으로 승가교육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학인 외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암사는 강주 성천 스님을 중심으로 승인, 도운 스님 등 강사를 확충하고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해 사중의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선암사 강원은 입학식에 앞서 이날 오전 17회 졸업식을 거행, 7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순천=이준엽 기자

동방불교대학 졸업식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은 2월 28일 설법전에서 제 22회 졸업식을 갖고 불교학과 37명, 범패과 10명, 불교미술과 6명 등 총 5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장 법장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모교에서 갈고 닦은 학문과 수행력으로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사회와 대중을 위한 교화사업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박찬희씨가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돼 종정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불교미술과 조건행씨와 김옥희씨가 총무원장상을, 불교학과 오지광 졸업생과 불교미술과 조법련씨가 학장상을, 범패과 홍성원씨가 공로상 받았다.

김원우 기자

진각종 올해 아사리과정 연다

진각종 원의회(의장 효암 통리원장)는 2월 24일 서울 통리원 회의실에서 제 233회 원의회를 열고 올해 밀교수행 중의 최고 과정인 아사리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원의회는 또 경당(대구 시경심인당 주교) 정사와 회성(대구 불정심인당 주교) 정사를 대정사에, 불지인(서울 법륜심인당 교화) 전수와 승법륜(경주 선혜심인당 교화) 전수를 대전수에 품수키로 의결했다.

원의회는 한편 진각종비 장학생으로 고봉조(위덕대 불교학과 3년), 정혜림(위덕대 불교학과 2년), 제 39기 회당장학생으로 △서울교구 신준형(인하대 4년)씨 등 9명 △대구교구 김미경(대구대 2년)씨 등 19명 △포항교구 김버들(원광대 3년)씨 등 5명 △경주교구 이은경(울산대 3년)씨 등 총 53명을 선정했다. 김원우 기자

밀교학 연구 소모임 지원

진각종, 논문공모 당선자에 각 200만원 지급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이 불교와 밀교학 연구를 촉진시키고 진각종 교학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 7회 '진각논문대상' 논문계획서를 4월 22일까지 공모한다.

불교일반 3편, 밀교 3편, 진각종 교학 2편 등 총 8편의 논문계획서 당선자들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당선논문은 2006년 6월중 회당학회에서 발간하는 '회당학보' 제 11집에 수록된다.

또 진각종 교육원은 불교와 밀교학을 공부하는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05년도 연구 소모임도 모집한다. 매월 일정 금액을 1년 간 지원하는 연구소 모임 신청접수는 4월 22일까지이다. (02) 913-0133~4 김원우 기자

법륜종 보령 금륜사 낙성·부처님 점안식

법륜종 보령 금륜사(주지 성타) 대웅전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식이 3월 1일 봉행됐다. 대웅전 및 요사채 복원에 따라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시우 보령시장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금륜사 대웅전은 2000년 착공해 총 6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4년여의 긴 공사 끝에 복원됐다.

강유신 기자

웰빙룸정보 울트라슬림 매트, 돌침대야! 가라

반신욕을 하기 위하여 사우나 찜질방에 가십니까?

wellbeing life DK 웰빙온돌

참선 수행에도 최고인 웰빙온돌

DK21 웰빙라이프사에서는 은나노액상, 북한신비의금강약돌외 7종의 최첨단 소재를 사용한 초슬림 초간편 특수시공, 온돌 공법 개발에 성공하였다. 폭발적인 인기속에 반영구적인 웰빙룸 시공 주문을 접수 받는다. 참선기도에도 최고인 DK-웰빙온돌 (간편시공 초슬림형이다.)

따끈 따끈한... 구들짱이 그리우십니까!

❖ DK웰빙 아랫목은 누워만 있어도 비만해소, 노화방지, 미백효과, 변비 개선.
❖ 열에너지를 발생 혈액순환 증진. 긴장 완화. 심부 진동으로 각종 통증 치료.
❖ 음이온 효과 로 산후조리. 수술 후 환자. 요양과 정양에 필수.
❖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허약체질, 노약자등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 수맥파를 차단하여 氣를 보호 하고 집중력이 강해진다.
❖ 전자파를 차단하고 초 간편 사용. 즉시가열 자유로운 조절기능 고효율 절전형.
❖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심신이 안정되고 맑아져 다시 찾고 싶어 한다.
❖ 환절기 가족 건강관리 및 건강 회복. 자녀 성장 촉진 및 체질개선.
❖ 참선이나 명상 기도 수행 시 필수. 간접가열 복사열 방식으로 최적
❖ 공간차지 무거움등 값비싼 건강매트, 돌 침대의 불편함을 저렴한 웰빙룸으로 해결
❖ DK웰빙룸은 저렴한 비용 효능 및 건강에 최고. 넓은 공간 활용 선물로도 최고

음이온, 원적외선방사, 수맥파, 전자파 차단. 항균, 탈취는 기본
맞춤 웰빙룸 = 온돌방기능 +반신욕실 +온열복대

❖ 당뇨나 손발이 차거나 저리신분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 업무상 자주 술을 드시는 분
❖ 운동선수 및 프로골퍼
❖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분
❖ 희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
❖ 신경통 및 관절통이 있는 분
❖ 갱년기 주부우울증

추가 혜택 : 선착순 50명 은행석 온열복대를 증정 합니다.

상담및문의전화 : (02)3210-3178 www.dk21.net

전국판매시공대리점모집 : 주택 및 아파트 리모델링전문점, 벽지.전기시설업체 등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건강정보 열침의 효능 은행석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비만과 배가 찬 것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북한 3대 특산품인 세계 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강력한 열과 생명의 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과가 있어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서 숨만 쉬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변비, 복부비만,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어깨, 허리,무릎 결림등이 자연 치유된다. 바닥에 온열복대를 놓고 발을 올려만 놓아도 뜨거운 조약돌을 밝는 열침효과가 있다.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덮게 하는 "두한족열"은 동의보감의 원리를 응용한 족욕 효과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한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가정의 필수품이자 산후조리,배탈,몸이차거운분,과음하시는분 등에게도 최고의 선물이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의 은행석 온열복대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원적외선 "침"의 효과로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피부에 접촉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과 사용하기가 안전하고 편리한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는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닥터 (02)3210-3170 www.dk21.net

月影(월영)선생의 영적 삼매화 작품 세계로 초대합니다.

마음은 창의문이요 영혼은 창문 속의 밝은 달이건만 나의 그림은 손, 눈, 머리가 부족하여 영혼으로 대신하고 모자라는 눈으로 그 영혼을 구경한다. 봄날에 아지랑이 들녘 파꽃에 벌, 나비가 춤을 출 때 우리들도 영혼으로 마중하여 함께 나비춤을 추었으면... (月影家(월영가)의 작업장 및 전시장은 항시 오픈되어 방문 환영합니다.)

월영가 • TEL : (031)585-7077 H · P 011-9056-2177 • 주소 : 경기 가평군 외서면 호명리 산130-1

세계최고의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바이오니아염주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바이오니아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108염주, 손목 합장주 1set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온다.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입을 수 있다.

소원도 이루고 건강에도 최고 북한 신비의 바이오니아 금강염주

염주만을 생산해온 금강염주사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세계희귀의 금강석과 천연광물에서 추출한 음이온,약약카리 게르마늄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인 최첨단 기능성 바이오니아 금강염주 개발에 성공 화제가 되고 있으며 1.000set 한정 판매 한다. 소원도 이루고 건강에도 최고인 음이온 금강염주는 스님께 보시로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 사용하세요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건강(氣)이 약하신 분

108,손목염주 1set 168.000원 기존의 금강염주도 판매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金剛念珠社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직영매장 : 이화불교사 (불교용품일체 도.소매) TEL : (02)720-1700, 734-1383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천안 부루나유치원 입학식 현장

"부처님 마음 반가워요"



천안 부루나유치원생들은 누굴 만나도 합장으로 인사한다. '부처님 마음'으로 불리는 합장을 하며 입학식을 하는 아이들 모습에서 파릇한 봄소식이 느껴진다.

인성교육 우선… 등·하교시 경호원 동승 '안전 Good'
다도·요가·국악·중국어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인기'



"원생 여러분! 부처님 마음! 다함께 원장 스님께 인사!"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충남 천안 성정동에 위치한 부루나유치원 · 어린이집 입학식이 열리는 3층 법당.

노란 원복을 입은 아이들이 고사리 손을 모으며 원장 광현 스님에게 합장인사한다. 합장이 '부처님 마음'으로 통하는 부루나유치원의 첫날 풍경이 정겹다.

입학식에 참석한 원생 110명을 따라온 학부모까지 2백여명으로 가득찬 법당 안이 새 봄처럼 활기에 넘친다. 빙그레 미소를 머금은채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광현 스님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아기 부처님들! 반가워요."

반응을 살피던 스님은 다시 큰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스님이 안 반가운 친구 있어요?"

일곱 살 아이들로 구성된 보현반의 장난꾸러기 광현이가 "예"하고 대답하자, 뒤에서 지켜보던 학부모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 덩달아 아이들도 신이 났다. 법당은 다시 시끄러워지고 말았다. 그러나 죽비소리가 세 번 울려 퍼지자 좌중이 조용해졌다. "죽비소리면 OK"라던 광현 스님의 말이 퍼뜩 떠오른다.

입정시간, 사회를 맡은 장혜진 주임교사의 설명이 재밌다.

"부처님 다리!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리고 아빠손, 엄마손이 사리살짝 뽀뽀를 해야죠!"

'부처님 다리'는 가부좌다. 여느 유치원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 사이 천안불교사암연합회 대표로 참석한 각원사 부주지 대원 스님이 단상에 올랐다. 대원 스님이 팔을 이용해 하트 모양을 만들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자, 또다시 웃음바다가 된다.

만나는 이마다 합장으로 인사하는 부루나유치원생들은 입학식이 끝나자 엄마손을 붙잡고 담임교사를 찾아갔다. 네 살짜리 막내들로 짜여진 연꽃반 황현주 교사는 교실로 찾아온 엄마들에게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일러준다. 이를 지켜보는 광현 스님의 표정이 밝다.

개원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원생이 110명이나 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부루나 유치원.

비결은 인성개발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헌신적이고 친절한 교육방식에 있다. 올해는 4대의 등 · 하원 차량에 경호업체 직원을 동승시켜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해 학부모들을 감동시켰다. 아이들을 직접 유치원까지 데리고 와야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루나 유치원의 배려다.

보현반 교실에서 만난 김정순(36 · 백석동)씨는 "법희나 다도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왔다"고 했다.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는데도 일부러 부루나유치원을 찾아왔다는 김미형(32 · 영성동)씨는 "아이(한주혜)가 우리의 전통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 왔다"며 "7살 된 주혜의 사촌도 함께 이곳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무종교인이라는 심경란씨(32 · 원성동)도 만족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얼마 전에 스님과 선생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보여서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완벽합니다."

고객감동시대. 부루나 유치원은 원생과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한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법회, 교육을 시작하기 전 죽비소리로 시작되는 가부좌 명상, 광현 스님이 직접 가르치는 다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영어 · 중국어 특별수업, 국악놀이, 민속놀이 등은 일반 유치원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들이다. 다도, 풍물, 요가 등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도 있다.

이 때문일까. 부루나유치원 교사들은 천안시의 유일한 불교유치원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아이들과의 사투(?)를 이겨낸다. 다섯살 아이들을 맡은 김선민 기린반 담임교사는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원장 스님과 선생님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유치원의 자랑거리"라며 쑥스레 웃는다.

주의사항까지 모두 들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하나 둘 유치원을 나서는 동안에도 교사들은 합장으로 인사를 건넨다. 형진(7)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던 장경희(37 · 신부동)씨의 말이 오래 남는다.

"그동안 불교유치원이 없어서 집 주변의 개신교유치원에 보냈는데 아이의 행동이 가족정서와는 맞지 않아 고민을 많이 했었지요.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부처님과 불교를 보다 친근하고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불교유치원이 곳곳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041)578-0360

천안=박봉영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식 프로그램으로 '고객감동'을 열어가는 부루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삼배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부루나유치원장 광현 스님이 원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부루나유치원은 다도로 아이들의 심성을 계발시켜 준다. '부처님 다리(가부좌)'를 하고 차를 마시는 아이들.

생명의 소중함 일깨우는 불교식 교육이 비결

■ 사찰 유치원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계 유치원에는 일반 유치원과 다른 불교만의 교육이 있다.

서울 동원정사에서 운영하는 은영유치원은 원장 정원 스님의 남다른 원력으로 다양한 불교의 세계를 접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삼귀의 찬불가 등과 함께 참선을 하고 스님이 직접 20분 정도 어린이 오계, 부처님 일대기 등 불교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준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스님이 가르치는 다도와 한자수업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경주 동국대 부속유치원은 경주의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프로젝트 활동이 왕성하다. 체험활동으로 하고 있는 생명존중 배우기는 바로 불교의 불살생을 몸소 체험하며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어린이들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다. 어린이가 함께 하는 명상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수업.

목포 보현정사 보현유치원은 매주 법당에서 어린이 집회가, 산회가를 부르고 참선정진을 하며 법회를 한다. 여름이 되면 여름불교학교에 원생 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 전원 참가하는 열기를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불교동화를 같이 읽으며 불교의 세계에 젖어든다.

광주 향림사의 향림유치원은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참선과 다도수업도 향림유치원에서 만날 수 있다. 스님에게 합장인사하는 법 등 사찰 예절교육도 수시로 접할 수 있다. 때때로 향림사 마당을 거닐며 산책하는 것도 향림유치원 어린이들만의 자연교육이다. 부처님오신날이 가까이 오면 모두 다같이 고사리손으로 연등을 만든다. 손 안에서 만들어지는 연꽃은 어린이들이게 인기 최고이다.

평창 월정사 연꽃유치원은 기본예절 교육시간이 사찰예절 교육을 함께 받는다. 어린이들은 한달에 두 번 있는 다도 수업과 부처님 일대기 등을 통해 불교를 접한다.

강지연 기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 달마카드
- 앞면 : 달마도
- 뒷면 : 만사형통부 건강부
-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달마 12호-그림: 35×125cm 액자: 47×155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열린우리당 불자의원들 5월에 모임 결성

윤원호 의원 등 20여명 초파일 전후 창립 계획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불자의원들이 국회 정각회와는 별도로 불자모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창립 시기는 열린우리당 의장 선출과 4·30 보궐선거가 끝난 뒤 부처님오신날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성, 김영주, 이영호, 한병도, 정봉주 등 열린우리당 불자의원과 불교에 관심을 보여온 제종호, 이근식 의원 등은 2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사진)한 직후 열린우리당 불자의원 모임을 가동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또 회장에 불심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진 윤원호 의원(문화관광위·국회운영위)을, 실무를 담당할 간사에 최재성 의원(교육위)을 내정했다.

열린우리당 불자의원 모임에는 정각회에 가입돼 있는 14명의 의원과 친불교적인 활동을 해 온 의원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과거 새천년민주당 시절 연등회 회장을 역임한 조성준 前 의원도 4·30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의원실의 김봉준 보좌관은 "현 정당구조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불자의원들이 움직인다면 불교계를 위한 정책입안은 물론 불교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공불련 총무단회의

19~20일 유성서 개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세호)는 3월 19~20일 대전 유성 한국토지공사연수원에서 총무단회의를 개최한다.

공불련 소속 2백50여기관에서 총무, 조직 담당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님오신날 행사, 해외 성지순례 등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단위불자회 활성화 방안, 공불련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02)739-1080 **박봉영 기자**

서울 법원청사 불자들의 교리공부현장

"점심식사요? 공부가 더 맛있어요"



서울 법원청사 불교공부모임 회원들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불교 공부를 한다. 수업은 토론식 강의로 진행된다.

쉴새없이 돌아가는 바쁜 직장업무 속에서도 슬기롭게 신행생활을 이어가는 직장모임이 있다. 서울 법원청사 불교공부모임이 그들이다. 이들은 자발적인 신행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지만 알찬' 모임을 꾸려가고 있다. 하나를 배우면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직장생활의 활기를 얻고 있다는 법원청사 공부모임의 신행현장을 들여다보았다.

2월 28일 오후 12시 10분, 다른 직원들은 점심식사를 할 이 시간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내 가사 12조사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10여명의 직원들이 3평 남짓의 공간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이었다.

"홍성자 선생님은 고법 사무국으로 자리를 옮겼다면서요?"

"예, 아는 사람이 많아서 맘이 참 편하네요."

이들은 매월 한차례 열리는 서초반야회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회원과 불교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은 순수한 열정으로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 곳에 모여 교리공부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다.

김옥희 사무관의 집전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한 참석자들은 <예불이란 무엇인가(정각 스님 저)> 책을 폈다. 12시 30분부터 시작된 기초교리 공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김옥희 '법사'가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보낸 학습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숙지한 내용을 편하게 발표한 뒤 교재를 정독했다. 그러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다음주 다시 토론하기로 했다. 공부는 한시간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10여명 월요일 점심시간마다 토론·교재읽기로 신심 배가

늘 분위기를 돋구는 송창순(중앙지방법원)씨는 불교공부를 시작한 이후 직장생활과 달리 또다른 보람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불교를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이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직장에서 돈만 얻어가면 반쪽짜리 직장생활이라니까요."

이들은 모두 불교에 대해 아는 것 없는 초보불자들이지만 불교를 알고 싶은 욕구는 뒤지지 않는다. 모임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알고 싶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신행을 다지기 위함이다.

김옥희 사무관(서울가정법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단지 불교가 좋아서 법회에 참석하기는 하는데 아는게 있어야죠. 법회시간동안 남들 하는대로 따라하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교에 관심은 많으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못하는 이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회원은 많으면서도 법회 참석자는 소수인 다른 직장불교회와 달리, 법원 공부모임은 15명 내외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된다. 매주 높은 참석률을 자랑한다. 도반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맏언니 권영선(중앙지방법원) 사무관의 이야기에서 이유가 분명해진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도반들의 직장생활은 물론 가정사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서로 챙겨주고 같이 공부하니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외롭다는 생각이 들 틈이 없거든요.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 전화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니, 안나올 수 없는 겁니다."

법원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외부인원으로는 유일하게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박수은 법무사(남계합동법무사사무소)는 "도반들을 만날 기대감으로 월요일만 되면 설렌다"며 쑥스런 웃음을 짓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끝>

경찰청 불교회

경찰청 불교회는 1988년 창립된 이래 활발한 활동으로 경찰 및 직원들의 다양한 신행활동으로 경찰조직 내에서 모범이 되고 있어 회원들의 자부심이 강합니다. 매주 열리는 특별활동과 법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회는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불자가수 남강수 선생님의 지도로 찬불가를 배우고 있으며,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예강좌를 열어 정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기 서예반과 현재 교습을 받고 있는 2기생을 포함한 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예전시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 불교회는 매주 서예와 찬불가를 배우는 것은 물론 정기법회를 여는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서예반 회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예를 하는 모습.

신행열기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법당

찬불가·서예·중국어 등 '자아발견' 원동력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시간에는 前 KBS 아나운서인 김남규 선생님의 지도로 중국어 강좌를 실시하여 경찰청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어반(반장 이경애)은 5월께 성지순례를 겸한 어학 실수를 중국으로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청 불교회는 18년동안 자체적인 운영을 통해 신행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법당의 불전함 관리를 前 경승스님의 요구로 경승실에서 해오고 있는 점입니다.

경찰기관 불교회 가운데 경승실에서 불전함을 관리하는 곳은 경찰청이 유일합니다. 이로 인해 직접 불전함을 관리하는 예하기관 불교회의 질타 섞인 충고를 받고 있는 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총회에서 경승스님들에게 불전함 관리를 불교회로 환원해달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마치 경찰청 불교회와 경승스님들간 대립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찰청 경승인 조계종 포교원장인 도영 스님과 포교부장 일관 스님을 대신해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이 법회를 주관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문을 맡고 있는 스님들을 초빙해 법회를 열고 있는 점은 우리 불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는 고문으로 위촉된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에게 위촉패를 증정하였으며, 법회후 지관스님과 회원들은 구내식당에서 공양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불교회는 박재진 前 회장과 이만형 前 수석부회장의 승진전보로, 임승택 경비1과장(총경)을 회장으로, 박노현 경비계장(경정)을 수석부회장으로 추대하고 보다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치는 모임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총무(정보통신 2과)

제 54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삼천부처님이 계신 당 **감로사**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삼천배 참회기도를 제방 큰스님을 모시고 음력 **2**월 **10**일에 시작하여 삼천불 재일날인 음력 **2**월 **14**일에 회향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조복받아 지금까지 지음 모든 업장을 일시에 소멸하고 성불 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일시 : 불기 2549년 음력 2월 10일 ~ 14일(양력 3월 19일 ~ 3월 23일) 4박 5일

■ 법문큰스님 : **지 관**(가산문화원 원장) **인 환**(동국대 교수) **정 관**(前 범어사 주지)
대 성(범어사 주지) **세 민**(前 해인사 주지) **각 성**(화엄사 주지)
홍 선(중앙승가대 교수) **금 담**(극락선원 원장) **법 희**(감로사 회주)
성 우(파계사 주지) **철 우**(영산율원 원장) **지 안**(승가대학원 원장)
태 원(중앙승가대 교수) **경 성**(중앙승가대 교수) **지 운**(前 송광사 강주)
혜 총(감로사 주지)

■ 삼천배유나 : **철 우** 큰스님

■ 인례사스님 : **종인 경법 경원 경무 경제 경상 옥산 원담 설오 각목 영월 경증 경지 경적 경소 경진 경여 경중 화용 법여 법준 법진**

■ 동 참 금 : 5만원(위패 한분 모시는데 1만원) ※ 회향날 방생갑니다.

■ 지 참 물 : 백미, 꽃, 과일 약간씩(주무실 분은 담요 한장)

■ 계 좌 번 호 : 조흥은행 **409-04-472968** •예금주 :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주지 혜총 합장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33번지 전화 051)809-0926, 803-0188

직지불교대학 제 3기(대구 동구 지원) 제 20기(대구수성포교원) 신입생모집

깨끗한 공기와 자연 속의 직지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강의 내용

제 1강의	사찰 예법 및 특강 그리고 찬불 배우기	제 6강의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
제 2강의	불교란 무엇인가?	제 7강의	근본교리 및 발우 공양 체험
제 3강의	합장예배 찬불가 배우기	제 8강의	영혼의 윤회와 인과법칙
제 4강의	일주문(一柱門)에서 절대적 하나의 세계 불이문(不二門)까지	제 9강의	대승보살도의 육바라밀
제 5강의	부처님의 생애 및 찬불가 배우기	제10강의	선 사상과 참선 체험

▶강사진 : 혜창큰스님, 흥선스님(직지사강주), 도일스님(직지불교대학장), 덕선스님(동화사강사), 정인스님(직지사강사)

쉽고 재미있는 불교강의 및 생활법문.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습니다.

【고찰 김천 직지사 사찰순례 법회 일정】
● AM 9시 출발 : 11시 직지사 도착(걸어서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 대웅전참배 → 녹원큰스님친견 → 점심공양 후 경내 박물관 견학 자유시간 1시간 후 → 대구로 출발

◆ 입학일시 : ● 대구수성포교원 – 2005년 3월 17일 ● 대구동구지원 – 2005년 3월 18일 오전 10시 (야간) 오후 7시
◆ 수강시간 : ● 대구수성포교원 – 매주 목요일 ● 대구동구지원 – 매주 금요일
◆ 입 학 금 : 5만원(교재포함) ◆ 수 강 료 : 1개월 2만원 ◆ 기 간 : 초급 5개월 과정
◆ 장 소 : ● 대구수성포교원 – 지산동 지산삼거리 옆「양지산」직지불교대학 황룡사 법당
● 대구동구지원 – 동호동 반야월 네거리 직지선원 법당 5층(반야월 지하철 3번입구)
◆ 특 진 : 1. 수료시 불명수여 2. 희망시 조계종 신도증 발급(사찰무료입장) (수시접수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 대구수성포교원 053)784-8620, 8619 • 대구동구지원 053)961-8620
※ 계좌이체 : (농협) 718-02-165594 (예금주 : 이현무)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직지불교대학** 황 룡 사·대구수성포교원 직지선원·대구 동구 지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제3기 불교의식범음범패 학인 모집

기초과정 3개월 (목탁,요령,태징,법고 다루는법)
도량석,쇳송,상단예불,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대령관욕,지장청,신중작법,관음시식 등)
고급과정 3개월 (49재,예수재,수륙재,전문범음범패)
특수반 (천수바라 ,오공양작법,요잡바라)

011-849-0961/051)554-1518

최면개인지도

그동안 최면을 배우긴 했으나 활용치 못하시는 분들

전생, 빙의치유, 각종질병, 우울증, 비행청소년 교정

사찰을 비울 수가 없는 스님들, 배울곳이 원거리에 있어서 등 여러조건이 여의치 못하시는 분들께 본인이 전국어디든 출장하여 상주하면서 확실히 완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011-597-6700

학인모집 · 분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주회(포교단)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봉직자과정 – 원사, 원무, 사감, 신주 작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관리포교사
▶법 사 과 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대법사과정 – 종사, 선사, 대사, 율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염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침술비법 전수

- 안면 주름 제거 (아사풍 사전 예방)
- 비만, 침술 책임 (요요현상 없음)

스님 직접 지도

010-2323-1499

경리보살 구함

50세 이하. PC 가능한 자
월 4일 휴무. 숙식가능한 사람
월 보시 90만원
경주시 강동면 국방리 왕룡사원
054)762-4269
017-531-7770

새로 꾸민 포교당에 삼존불과 후불탱화 저렴한 보시금으로 보시받습니다

016)261-20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 부근
조계종
010-9456-84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011-9951-00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내에 산사
010-6245-53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숙식 가능한분
경기 파주 (40~50대)
010-4875-9626

함께 일할 처사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384-7557

수강생 모집

주역원전강좌

- 3월2일 개강 매주(수) 오후 7-9시
- 4월6일 개강 매주(수) 오전 11-1시
- 회비 : 6만원
- 기타 : 오운육기론 (화) 오후 7-9시
  대학소주 (월) 오후 5-7시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8970

비구입니다

기도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조용한 도량을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오후6시 이후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0-0176

사업인수하실분

적은 자본으로 새로운 사업
하실분 1분만 모심
인터넷쇼핑몰 겸 매장판매
SBS 이색상품 방영. 발명특허 출원제품
참조 www.bujukshop.com
011-537-1739

조계종스님으로 소백산 지장보궁에서 자기 수행기도 하실분을 찾고있음. 그리고 부산교통중심지에 위치한 90평 포교당을 인수받을 스님을 찾습니다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051)441-1430

참신한 비구입니다

기도스님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010-2870-2555

공양주보살 구함

나이제한 없음
신심 깊은분
상담 후 결정
054)751-481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288-6263

토 굴 혼자수행할 비구니스님

016-450-6763

기도스님 모십니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
02)3218-4800~5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출가학교 및 행자 모집

▶ 출가학교 3기 : 만40세이하 독신 남
4월 15일~5월 5일(3주간)
교육비 전액무료.
▶행자(예비승) : 언제든지 가능, 남 · 녀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053-474-8228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강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시스템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유치원, 식당
오피스텔, 기숙사, 가든, 고시원 상가

이런점이 좋습니다
① 간편한 시공 ② 경제적 시공
③ 쾌적한 난방 ④ 건강한 난방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규사 직수입품입니다.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7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을 시공한 사찰전문 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를 권합니다

소승은 전남 보성 회천에서 직접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미, 당뇨, 기관지, 변비, 만성위염 .....
꿀벌이 만들어낸 천연건강식품, 강력한 항생, 항균작용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016-779-2237 일림사 성구 스님 합장

범 음 범 패 학 인 모 집

기초교리, 바라춤, 나비춤, 불화(불경) 무료 강습

● 대상 : 스님, 재가자 누구나 환영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원 권선구 세류사거리 대흥사

031-223-3477 / 017-227-429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웅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보리암
- 법당,주방,방2개,실내화장실, 총 40평 에어컨, 집기일체 완비
- 가액 : 총 1,950천만원, 월 23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십시오
011-9850-294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정시장
- 평수 : 35평, 3층 건물 2층
- 법당, 방2개, 주방, 화장실, 옥상, 창고1개
- 가액 : 전세 보증금 1천만원,월 45만원 시설비(삼존불, 탱화, 인등, 연등,집기류 일체 포함) 2천만원.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51)529-3302
010-6236-284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새마을 금고 앞
- 삼존불, 신중탱화, 용궁탱화, 산신탱화, 원불, 관음지장80불, 생활도구 일체
- 전세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월40 시설비(집기포함) 2천만원

010-8623-9234
011-9556-8413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200평(등기필)
- 전통한옥건물 2동(안채, 사랑채)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됨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 토굴이나 노후 가족 휴양처로 최적의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상가 2층
- 평수 : 법당 2층, 약사여래불, 삼존불, 탱화, 스님방1, 큰공양간1
- 보증금 2천만원 / 월 7만원 시설비 500만원 ● 즉시 입주 가능

016-580-1573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에서 고급과정까지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5. 4. 4
월 · 화반 /수 · 목반 / 금 · 토반 (주 · 야간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경로자 우대

매화역수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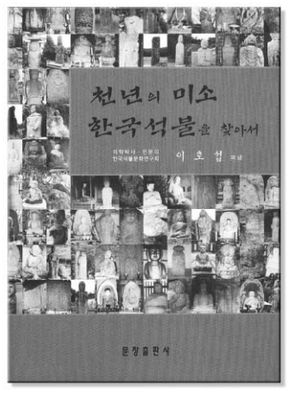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 산 : 좌천 지하철역 1번 출구 옆(다전리치텔 1004호)
문의 : 051)644-8571. 018-312-7110

의학전문의 이호섭 박사의 천년의 미소 - 한국석불을 찾아서



이호섭 글/사진
문장출판사
가격 : 9만 5천원

"저마다의 얼굴과 수인(手印)을 가진 우리 석불들에서는 은은하고 고요한 미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近世에 이르러 수많은 石佛은 많이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이 분명하며 소중한 예술품입니다. 이 귀중한 유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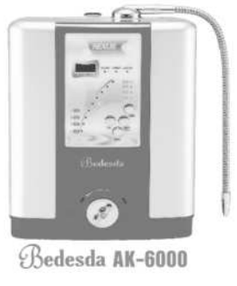
한국석불문화연구회 고문 이호섭 박사가 20여년 간 전국 550여 곳의 석불을 직접 답사하며 찍은 사진과 약도, 조성연대, 특징 등을 정리했다.

구입문의 : 02)2678-3042
이호섭 이비인후과

www.hinexus.com (주)넥서스 환원수

FDA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A 물인증 획득은 국내최초로
넥서스가 해냈습니다.

FDA
BIO SCIENCE RESEARCH
물인증 획득



FDA시험 성적서



FDA Registration
No : 2022038

세계발명특허 •치명적인 미네랄 도금현상 완전 해결
MBC특집 [생명수의 진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임상실험에 적용된 제품임.

상담문의 ☎ 080-080-178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2-7 밀화밀라트 1010호

원효사 불교교리 무 료 강 좌

◎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참여가능
◎ 기초교리, 경전 및 중 · 고등 천자문, 신앙상담(무료)수지침, 사혈침(3 ~ 6개월 과정)
◎ **강 사 진** : 원각 큰스님, 고산 법사, 초청강사
◎ **개강일시** : 을유년 첫 개강일 3월 20일 (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 **특 전** : 본 강좌 수료 후 포교사 응시자격 부여

초청특별강의 : 박 완 일
(동국대 교수, 전 불교신도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불교대학. 원효사
주지 · 학장 **석 원 각** 합장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248의 6
(대구호텔 옆 삼원신협 3층)
따르릉 053)563-9154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법당 : 20평
● 명부전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500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충남
● 법당 : 26평
● 요사 : 90평
● 부지 : 1600평
● 가액 : 7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부지 : 1350평
● 가액 : 2500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미래공인중개사(구청송)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① 8억(대250/건138) ② 5억5천(대175/건90)
• 경기 ③ 9억(840/건383) ④ 9억(700/건180) ⑤ 2억5천
• 원주 ⑥ 토굴8천 ⑦고찰2억2천(1000/63) ⑧ 납골당25억(대4만평/건210평)
• ⑨ 납골당부지3억(대24000평) ⑩ 절터관악산계곡20억(2085평)
• 안양보 3천원80 (70평) 수원보 2천원100 (65평옥상130)
※ 사찰, 사찰터 다양보유, 공양주 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동 역 입구 3층 중 3층
● 평수 : 20평
● 보증금 포함 2천만원 월 45만원

02)816-2764
016-535-2754

사찰(터)안내

● 산세수려한곳 사찰터 최적지
● 대지 2천평 (총 6천평)

0505)794-525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01평, 전 : 33평, 법당 : 20평
● 법당내 108소불,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지장, 탱화 등 영가단 설치 최고시설(즉시법회가능)
● 요사채 : 1동, 40평 - 방 3개, 주방, 화장실내 2개, 옥외화장실 3개, 창고1개, 대형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1-817-4027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즉시법회,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사찰 안내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총평수 : 전답 임 포함 약 3천7백평
● 가액 : 15억. 현주위시세 평당 30만원
※ 명산,계곡절경,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010-4876-553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평수 : 33평 (시유지 20평 포함)
● 법당, 요사, 부엌 별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016-467-5822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청 옆
● 대지 : 310평
● 건물 : 3층건물 1동 100평, 슬라브 기와 1동 45평, 부속 건물 1동 10평 (소나무 조경 및 그림같은 포교당)
● 가액 : 8억 5천만원

010-4876-5535
011-584-4418

경관 수려한 사찰을 원하십니까!!

● 위치 : 경산 와촌면 음양리
● 대지 : 총부지 813평 (대지 200평, 주차장 613평, 공터 200평) ● 건물 : 건축물 45평
● 전체부지를 자연적으로 조성됨
● 특징 : 본존불, 탱화 (고려시대 고불과 똑같이 조성)
● 가액 : 3억 2천만원 가능 (융자 6500만원 포함)
● 부동산 중계업자 전화사절

011-9378-563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1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15억
● 산세좋으며 대구최고의 도량임

● 위치 : 서울시내 명산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양도가 : 5억5천
● 산세 계곡절경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상도동 장승백이
● 대지 : 66평, 건평 56평 1층- 요사채 2층 - 법당
● 가액 : 4억 8500만원

02)815-0302

사찰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옆(도로 2분거리)
● 면적 : 950평중 허가대지 150평
● 건물 : 양옥 20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이 매우 좋음
● 가액 : 평당 30만원 답사 후 가액절충 可

011-804-1748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남성면
● 평수 : 대지 466평, 2층 법당 26평 1층 요사 26평 창고 30평
● 가액 : 2억(절충가능)

010-9427-499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삼존불)2천5백만원

053)957-9551
011-398-9807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장흥읍 도로변 소재
● 대지 : 120평, 2층건물, 2층법당 30평, 1층 요사채 50평, 건평 80평
● 가액 : 1억8천만원(융자5천포함) 사실분만 연락요. 시설비 없음

011-9621-8989/061)862-6626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여수 경관, 위치 최고
● 임법당, 요사 완비
● 조용한 수행처 토굴 원하시는 분
● 가액 : 전세 1천만원

061)662-5580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마을 끝집
● 대지 150평, 건평 30평
● 시맨트 기와 깨끗한 전통한옥 (주방, 욕실)
● 가액 : 5천만원

011-9212-5079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
● 대지 50평, 건평20평
● 가액 : 2천 7백만원

055)391-3799
011-9207-2488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100만원

011-9238-996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 부천역 8분거리
● 2층, 3층 각 35평 2층 : 큰방,주방,사무실,스님방 3층 : 법당(지장전,산신각, 각단탱화,지장탱화,산신탱화)
● 모든시설 완벽
● 가액 : 3천 5백만원 (시설비 포함), 월 60만원

010-3167-177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목조) 12평
● 요사(벽돌) 25평
● 가액 : 9천만원

016-652-754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부근 (한라공대옆)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미륵불,약사불, 관세음보살님), 요사채 20평 ※ 산세 수려하고 경관 좋음
● 가액 : 2억

033)766-0057
011-471-19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전전면
● 대지 : 600평
● 건물 : 요사채(37평) 큰방3개, 주방, 화장실
● 법당 : 대웅전(고건축 신축건물) 22평
● 특징 : 시골 아산 마지막터 (산세수려)
● 가액 : 4억 5천(답사후가격절충 可)

011-530-8490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 대지 : 160평 요사 : 2동
● 밭 : 250평, 임법당
● 법회 즉시 가능 비구니스님 적합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554-5674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근교 (시내버스 다니는 신도시)
● 대지 60평, 평당 200-250만원대
● 건물 64평 신축건물 1층 32평 요사채 2층 29평 법당 3층 4평 칠성, 산신, 나반
● 실 수요스님 일절 중계인 사절

011-868-5997

절터 기도원 노후생활 최적지

● 위치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산세 좋은 명당
● 전 1,407평 대지 200평, 조립식 25평 산 12,800평, 평당 12,000원
● 4차선에서 5분거리

043)255-2773
016-402-1159

사찰(암자) 구함

● 법당1, 요사채(방3개) 주차가능지역 (서울1시간~1:30분정도거리)
● 보증금 : 1500-60(조정가능)
※ 특히, 사찰운영이 어려우신분은 연락주세요 불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011-785-8813

포교원 (급)안내

● 위치 : 부산 남포동 전철 2분
● 평수 : 55평, 한옥식 (게르마늄), 온돌방, 삼존불, 삼존탱화, 연등 220, 집기일체
● 가액 : 보증금 4천만원,월50 (시설비 약간)

011-9193-2351
010-8674-4484
중계인 사절

사찰안내(천연동굴)

● 위치 : 강원도 홍천, 횡성 새말근교(각 15분거리)
● 산신각, 천연동굴 15평, 산신백옥불
● 임야 3만평, 답 1천평(군유지사용), 납골당 터 가능, 대웅전, 차평 방2, 주방1, 지장전 15평, 요사채 55평, 방 7개, 부대시설 25평
● 가액 : 7억 5천만원(중계인사절)
● 산새수려하고 기도, 별장용지로도 최적지

011-369-4154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 종교용지 840평, 1년 도지 600평 쌀2가마, 대웅전 30평, 적멸보궁 20평, 삼성각 5평, 요사채 45평,
● 미륵대불, 석가탑
※ 전국 각지 불자 포교 중심 영법한 도량, 스님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6억 3천만원. 방문요

010-6213-5949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60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3존불) 삼성각 10평, 칠층석탑, 요사 66평
● 경치 전망 좋고, 산세 수려함.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7억

011-9411-5302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평수 : 100여평
● 시설 : 오존불, 108부처, 방4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8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2330-7784

포교원안내

● 위치 : 용인시 시내
● 평수 : 42평. 4층 건물 중 4층
● 구조 : 법당, 산신각, 주지실 방1, 넓은거실, 주방, 욕실 및 화장실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10만원 시설비 : 상담후 절충

017-372-896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지하철역에서 가까움
● 평수 : 30평, 3층건물 중 2층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세 25만원(절충가능) 시설비 방문 후 결정

053)427-5430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부근 역세권
● 3층건물 중 2층 약 5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고급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 또는 300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스님의 사정상 싸게 양도함
● 즉시 입주 법회 가능함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016-261-206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 뒷편
● 평수 : 60평 2층 방3개, 3층 방 1개
● 전세 :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554-1406
051)556-145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현곡면 상구 1리
● 2층 법당, 1층 요사채,
● 산신각, 스님독방 1
● 대지 120평. 집기 부분 협의 가능
● 가액 : 9천5백만원

011-544-9777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평수 : 120평
● 가액 : 4천 8백만원
● 임법당1, 방2개, 주방1 집기일체

011-462-527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시내
● 평수 : 600평
● 건물 : 대웅전(목조단청)20평 그 외 요사채, 지하수 있음
● 법당 앞 주차 가능 가액 : 2억

011-563-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 3층건물 중 3층. 건평 60평. 관음 지장, 소불, 불사 잘 되어 있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절충가능)
● 서울에서 대중교통 원활. 광주터미널에서 두 정거장 거리

010-3131-109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15년된 포교당 3층중 3층
●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 시설A급(답사 후 절충)

011-253-7729

법왕정사 부산법당

【첫 법회 : 2005년 3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교육

2시간 만 투자하면 500만 배를 성만 하며 체득한 비법을 완벽하게 배우게 된다.
➡ 매주 월, 화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 9시

자동단전복식 호흡법 교육

자동단전호흡법의 비밀은 횡격막과 큰 관련이 있는 무릎의 사두박근을 이용하는 것!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저녁 7시 30분 ~ 9시

※수행 삼매를 이루려면 쾌적 쾌락 호르몬이 나와 저절로 뇌파가 알파파가 되어야 하는 날숨에 비밀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번뇌망상을 키우지 않고 없애려면 횡격막과 새끼 발가락, 악관절을 이용한 최첨단 마음 다스림 법으로 감정조절 호르몬이 끊임없이 나오게 해야 한다.

※요가나 위빠사나 같은 더운 나라 수행법을 한국인이 수행하면 氣가 상승하여 피곤하고 머리 열나고 상기병 될 확률이 높다. 호흡에 맞춰 절하면 순간 수승화강 되어 극복됨!

※참선(화두선)수행자가 상기병, 위장병, 허리병, 무릎병, 아상병 걸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바로 자동단전호흡법이다.

※아무리 건강하고 수행을 잘해도 입을 벌리고 잠자며, 입으로 숨을 쉬면 단전호흡이 되지 않아 잠재의식의 큰 번뇌 망상이 끊임없이 떠올라 병고액난의 늪에 빠지게 되니 와선 단전호흡법으로 간단히 극복하라.

수련을 통해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체지방, 면역력, 혈류의 좋아지는 수치를 즉석에서 스스로 체크 하십시오. 100% 확신을 드립니다. 불면증, 기미, 주근깨, 손발이 노랗고 차가우며, 머리가 검고 끈적끈적한 땀이 나며, 몸이 냉하고 얼굴이 검어지는 병은 100일 이내에 확실히 극복됩니다.

백만불자 108배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63-29번지 경우빌딩 4층
♣ 전화 : 051)583-7886, 011-9088-9449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두실역 7번 출구 100M, 남산정비 앞에서 좌회전 50M
서울 군자 법당 : 02)456-4994, 0035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 남덕유산자락 아늑한 남향집
● 대지 : 130평, 건평 : 27평
● 교통편리, 대전 1시간 거창↔대구 1시간 청정계곡 등산로 포행코스 일품
● 가액 : 4800만원

055)945-3330
011-693-40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 약40평
● 전세금 : 보증금 3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절충 후 결정
● 교통편리,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 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51)317-0011

포교당 안내

● 위치 : 용산 후암시장 입구 서울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2층 건물 중 2층. 12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400만원
● 철학원 최적지

02)771-190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은행융자 : 3천 5백만원
● 가액 : 1억9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9543-0226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 법당 38평, 시설일체 완비, 집기 일체
● 가액 : 전세 7천만원 (월세도 가능) 시설비는 조정가능

016-239-1475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 건물 1동 60평(인법당, 방7개, 넓은 입식주방, 욕실, 화장실3개), 밭 3,000평 사용
● 창고, 하우스, 심야전기 보일러, 최고 지하 암반수
● 답사 후 가격(7천만원)절충

011-6611-7749
(꼭 하실 스님 만 연락주세요)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동(대도로변)
● 교통편 : 버스정류장 2분 전철(2, 5호선 8분거리)
● 평수 : 50평 2층 전체사용(주차장 완비)
● 가액 : 2천만원(월 115만원, 부가세포함)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시설 : 즉시법회(완벽),법당3존불, 스님방(화장실, 샤워실),사무실,집견실,공양실, 에어컨시설

02)2699-7637(직)
02)2699-7638

도심속 최고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우방아파트입구 상가 지역내 도로변.
● 대지 : 100평(매입당시가 : 평당100만원)
● 건물 : 법당 20평(삼존불,지장보살,인등,법당등,에어컨히타 및 보일러설비), 요사 60평 (방4개:주지실1개,주방1개,보일러2개 공양실1개,욕실2개,화장실2개,에어컨2대)
● 가액 : 2억2천 (은행융자 6천포함)
● 특징 : 아파트(5천세대)상가지역내 유일포교원, 400여가구신도인계, 즉시법회, 인터넷 전산 (사찰종무 PC2대)시설완비, 비구니스님 환영

011-524-9052

사찰 안내

● 위치 : 영주
● 평수 : 200평(등기허가필)
● 법당 : 20평, 단청 블랙조 기와, 내부신설
● 삼존불, 후불탱화, 약사여래불, 후불탱화, 신중단 후불탱화, 범종, 원불, 집기, 삼성각 5평, 단청기와, 요사채 20평, 신축건물, 방4개, 입식 수세식 화장실
● 소백산 산신지기가 응집된 곳, 산신터
● 가액 : 상담 후 결정
※ 꼭 필요하신분 연락요망

011-9870-4207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자유공원 내
● 3층건물 3층, 법당 30평, 방3개, 주방, 시설일체
● 가액 : 전세 6천5백만원, 시설비 없음
● 즉시 법회가능, 스님 해외포교로 급히 안내함

011-331-815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법당 : 62평
● 건물 : 상가 단지 3층 건물 중 3층(옥상 사용가능 약 200평)
● 방4, 화장실, 욕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 엠프시설 완비 집기일체 양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7165-5670

우현 고유섭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황

선구자의 큰 그늘에 '경의'

한국미술사학회 주최, 학계원로 등 300여명 "본받자" 다짐

"탑파의 모국인 인도에 요만한 탑이 있느냐? 탑파의 경신국(更新國)인 중화에 요만한 탑이 있느냐? 실로 너무나 탈신(奪神)적 기교다. 당장(唐匠)의 성업(盛業)이라 말하되 나는 부(否)타 한다.(…)당대 탑파의 어느 것에서 이 수법의 일단을 찾아내려느냐? 나는 오직 백제의 혼이 이 탑에 남아있다 하노라." 다보탑을 바라보는 고유섭 선생의 시선에는 탁월한 예술미에 대한 경탄과 민족적 자긍심이 가득하다.

올해는 한국미술사학의 개척자며 선구자로 추앙받는 우현(又玄) 고유섭(1905~1944) 선생이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다. 선생은 40여년의 짧은 생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의 근본과 한국미술의 실상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미술사학 분야에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한국의 미를 '무기교의 기교' '무관심성'으로 표현한 이도 선생이었고, 국보78 · 83호 반가사유상의 제작국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림에서 화기(畵記)에 처음 주목한 이도 선생이었다. 이 같은 안목은 미술사에 대한 통찰력과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생의 수제자인 황수영 전 동국대 총장, 진홍섭 전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강경숙 전 충북대 교수, 서울대 안휘준 교수, 윤용이 명지대 교수, 김리나 홍익대 교수 등 후학들이 참석했다.

2월 26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는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한 뜻 깊은 행사가 한국미술사학회(회장 홍선표) 주최로 열렸다. '우현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그것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우택 동국대 교수가 '고유섭과 불교미술'을 박경식 단국대 교수가 '고유섭과 탑파연구'를 발표하는 등 고유섭 선생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연구업적과 한국미술사에 미친 영향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정우택 교수는 "고유섭 선생은 불교 수용이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큰 역할을 했음을 지적했다"고 전제한 뒤 "개별작품 고찰 뿐 아니라 제작의 근본을 이루는 불교의 교리적 배경과 영향, 그리고 교리에 따른 도상과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큰 의의를 부여했다. 도상학적 탐구를 통한 예술적 가치 규명과 신앙적 가치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는 선생의 한국미술사 시기구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조각예술은 시종 불교와 더불어 성쇠를 같이 했다"고 봤던 선생은 불교조각을 중심으로 삼국 · 통일신라의 미술사적 시기구분을 시도했다는 것. 정 교수는 "선생의 시대구분은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경식 교수는 고유섭 선생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라 일컬어지는 '탑파연구'를 조명했다.

"탑파연구는 문화의 암흑기였던 1930년대에 이뤄진 것으로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탄신 100주기를 맞아 선생의 학문세계는 민족주의적인 운동 차원에서도 규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우현 고유섭은?

미술사 '학문화'의 주역



1925년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했다. 1933년 3월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해 십여 년간 한국미술사 연구에 주력하면서 전국의 석탑을 양식론에 입각해 체계화했다. 이 같은 업적으로 우리 미술사를 처음으로 학문화한 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 <조선화론집성(朝鮮畵論集成)> <한국미술문화사논총> 등의 저서와 60여 편의 논문이 있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

반사와 '신심명' 한 구절

세상살이의 번거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번거로움 느끼는 '나' 조차 실체가 없는데…

우주에서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빛이 있는지 아는 것은 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돼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타고 고공으로 올라가면 하늘이 점점 검어지는 것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늘이 파란 것은 공기에 있는 분자들이 파란 색을 반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저녁놀이 아름다운 붉은 빛을 띠는 것은 태양의 빛의 각도가 공기 분자에 반사해서 붉은 빛만 우리에게 반사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공기 분자 하나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이 쓴 글을 접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을 신선하게 만든다. 금강산을 가 보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금강산에서 살아있는 금강산을 느끼지 못하듯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쓴 책에서는 항상 어딘지 허망한 구석을 느낀다. 깨달은 스승을 찾아서 수천 리를 마다하지 않은 구도자의 행적은 바로 이 생생한 진리를 느끼기 위해서이다.

이런 면에서 <신심명>을 접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달마대사의 법으로 증손자뻘 되는 분인 3대 조사 승찬 스님이 쓴 글이다. 신심명이라는 말 그대로 믿는 마음의 글이란 뜻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마음이 부처임을 믿는 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팔만대장경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다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빼어난 글이다. 이 <신심명>에 '능수경멸(能隨境滅) 경축능침(境逐能沈)'이란 글이 있다.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이 서로 연관을 맺으며,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의존성이 있다는 말이다. '나'라는 것이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사물을 매개로 해서 드러나는 경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눈, 코, 귀, 혀, 피부 그리고 뜻으로 느끼는 대상은 결코 그 대상 자체라기보다는 반사한 모습일 뿐이다. 이것이 반사가 가르쳐 주는 과학의 원리이다.

한 예로 '우리는 결코 책상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책상을 보기 위해서 빛을 책상에 비추면, 책상의 표면의 원자는 빛에 의해서 변화하면서 표면의 성질에 의해서 또 다른 빛을 내 놓게 되는 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책상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책상을 본다기보다 책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양자물리학자(양자 역학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자)에게 진리에 대해서 물으면, 과학자는 변화가 진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자꾸 책상을 책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책상의 변화를 지각할 뿐이라는 것이 현대 과학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세상살이가 항상 나를 번거롭게 할 때에, 이 번거롭게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번거롭다고 느끼는 나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심신명의 진리에 한걸음 가까이 간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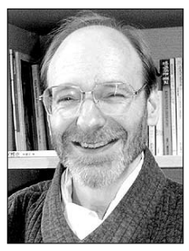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교학'으로 강단 서고 박사학위 받은 신부님들

서강대 종교학과 부임 서명원 신부



"성철 스님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한국인에게 한국불교를 가르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강한 사명감도 느낍니다."

캐나다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가톨릭에 사제로 입회하고, 파리7대학에서 성철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명원 신부(Bernard Senecal)가 2005년 3월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서 교수의 일성(一聲)을 들으니 이런 게 인연이구나 싶다.

그의 박사 논문 제목은 '퇴옹 성철의 생애 및 전서'. 성철 스님의 저술 전반을 훑으며 스님의 사상을 조명했다. 1400쪽이나 되는 논문에다 이해를 돕기 위한 500여 쪽짜리 사전까지 편찬했다. 서 교수의 논문은 성철 사상 주제로는 프랑스 내 최초이고, 한국불교 관련해서는 두 번째 박사 논문이다.

'선의 입문' '중국불교철학' 등을 이번 학기 강의하는 서 교수는 "강의를 통해 교수와 학생으로서 만난다는 건 소중한 인연이다"며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 연구… '선의 입문' 강의

성철 스님 연구를 위해 수행도 열심히 했던 서 교수는 대학원 강의에서는 수업시간의 1/3을 참선 수행에 할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육관 4층에 공간도 물색해 놓았다.

서 교수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제 삶이 바뀌고, 신앙심 또한 더욱 풍요로워졌다"며 "그런 맥락에서 불교와 가톨릭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함께 진리를 이뤄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동국대서 박사학위 받은 곽상훈 신부



"불교의 자비나 그리스도교의 아가페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불교와 그리스도교 공히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화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가톨릭 사제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18일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곽상훈(토마스 데 아퀴나스) 신부. 자비와 아가페, 그리고 종교간 대화는 곽 신부에게 화두와도 같은 것이었다.

가톨릭대 성신캠퍼스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1992년 사제서품을 받은 곽 신부는 동국대 불교학과 3학년에 편입해 석 · 박사 과정을 차례로 밟았다.

신학교 입학 전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아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동양사상연구회란 동아리 활동도 했지만 타 종교인으로서 불교를 전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가톨릭 신앙을 갖고 불교를 학문적으로 대하다보니 불교의 심성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곽 신부는 지도교수인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과 화엄경 강독을 함께 하고 방학에는 사찰 수련회를 통해 예불과 참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불교를 더 알려 노력했다.

자비와 아가페 다각적으로 비교

논문은 불교의 핵심윤리인 자비와 그리스도교의 아가페를 △자리와 이타 △지혜와 자비 △정의와 자비라는 관점에서 비교했다. 곽 신부는 "불교와 가톨릭 사이의 대화 속에서 양 종교간의 전통에 담긴 지혜와 사랑의 정신을 잘 길어내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일주문



청년회 법회 법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12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조계사 청년회 2900회 정기법회 기념법회에서 법문한다. (02)735-3724



평불협 정기총회

법타 스님은 3월 3일 오후 3시 성북동 통일법당에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창립 13돌 통일법당 개원 1주년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암대종사 열반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3월 23일 오전 10시 적광전에서 제54주기 한암대종사 열반재를 봉행한다.(033)332-6661~5



춘천불교방송 사장에

홍사성 前 불교신문 주필이 3월 3일자로 춘천불교방송 제3대 사장에 임명됐다. 홍사장은 불교방송 방송본부장, 불교TV 제작국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여성불자회 창립 기념법회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은 3월 9일 12시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부산여성불자회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51)817-3166



변호사 사무실 개업

사법연수원 불자모임 다르마법우회 34기 회장 이만덕 변호사는 2월말 서울 서초구 우성빌딩 6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02)587-8100

수불 스님 '몽산법어 선해' 테이프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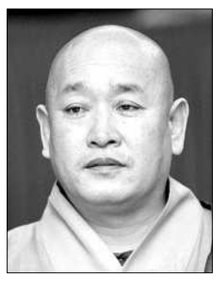
서울 안국동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사진)의, 참선인을 위한 육성 법문 테이프 <몽산법어 선해>가 나왔다. '몽산법어'는 중국 원나라 시대 몽산 스님이 지은 선수행의 길을 자상하게 설한 법어를 말한다. 60분용 테이프 8개 1세트로 구성된 <몽산법어 선해>는 '고원상인에게 보임' '각원상인에게 보임' '유정상인에게 보임' '총상인에게 보임-상' '총상인에게 보임-하' '무자십절목' '휴휴암주좌선문/대중에게 보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부록으로 수불 스님이 '불교TV 무상사 특별법회에서 설한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도 수록됐다. (02) 737-0695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인사 **천태종** △참의원장 권무원 △총무국장 월도 스님 △교무국장 월중 스님 △의전과장 덕진 스님 △사회과장 정도 스님 △섭외과장 성도 스님 △시설과장 대명 스님 △교무부 서기 준영 스님 △사회부 서기 혜공 스님

불교복지전문연구소 개설 적극 추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



"앞으로 불교는 문화와 복지라는 옷을 입고 사회로 다가가야 합니다."

2월 24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임명된 지현 스님(봉화 청량사 주지 · 사진).

스님은 "사회부장의 당연직이었던 복지재단 상임이사가 별도 소임이 된 것은 종단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이고 사회의 흐름에 대한 불교의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재단 10주년을 맞아 부임해온 만큼 불교복지전문연구소 개설과 자원봉사자 교육 체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교 복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스님은 평소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산중불교에서 대중불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영주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왔다. 스님은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로 지방 복지관 자원봉사자 수급에 기여해 탁월한 사업 능력과 추진력을 보여 왔다.

그래서 종단 안팎에서는 스님이 불교사회복지의 영역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한국의 포교역량 몽골에 접목되길 …"

몽골 간단사 주지 초이잠츠 스님 방한



"몽골불교는 사회주의 정권의 혹독한 탄압으로 1937~39년 사이 십만 명에 가까운 스님들이 죽거나 환속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다시 살아나고 있다."

2월 26일 열린 한 · 몽골불교교류협의회(이사장 지성, 동화사 주지) 사단법인화 기념법회 참석차 방한한 몽골 간단사 주지 초이잠츠 스님(사진)의 말이다.

스님은 "한국불교는 포교와 신행에 대한 경험이 많다. 몽골이 한국과의 불교교류를 통해 이런 경험을 배울 수 있다면 몽골불교가 다시 꽃을 피우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한 · 몽골 불교간의 자매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간다면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90년대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몽골 인구 중 90%가 불교신자이며, 스님은 3천여 명 정도이고 그중 1천여 명이 간단사 스님이다.

몽골불교계는 올해 네팔 룸비니와 인도 보디가야에 몽골 사찰을 건립하고, 몽골 현지에 티베트 불교 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세계불교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도 올 6월 경 개최한다.

1951년생인 초이잠츠 스님은 69년 단증어서르 스님을 은사로 출가, 사회주의 치하에서 유일하게 활동을 해온 몽골 대표 사찰 간단사를 이끌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지역 종교화합에 최선"

포항사암련 새회장 난승 스님



2월 19일 죽림사에서 열린 포항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새 사암련 회장에 추대된 난승 스님(운흥사 주지 · 사진)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포항시장의 성시화 발언 사태 이후로 오히려 종교 간의 화합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신부님들과 조만간 1차 모임을 가질 계획이고, 여기에서 개신교를 포함해 불교와 천주교 등 각 종교가 화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정작 난승 스님이 걱정하는 것은 지역 사찰 간 화합. 난승 스님은 "이제는 여러 종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암연합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회원 사찰 수도 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972년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82년 동국대를 졸업한 후 월정사 교무, 포항 오어사 주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포항환경운동연합 고문,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도움 필요한 곳 어디든 가겠다"

불교봉사연합 새회장 서병흔씨



2월 26일 사단법인 불교봉사연합 제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서병흔(71 · 사진) 회장은 "누군가 앞장을 서야한다면 불교봉사연합의 5백여 회원이 봉사의 선두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서 회장은 또한 "앞장서는 일은 결코 상을 내는 일이 아니라 타종교에 비해 소극적인 불교봉사에 활로를 찾는 일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 붙였다.

2002년 12월, 불교봉사연합 창립 당시 조직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서 회장은 부산불교신도회 감사를 20년 동안 지낸 부산불교계의 오랜 일꾼.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토대로 한 서 회장의 봉사관은 확고하다. "불자라면 당연히 최고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서병흔 회장. 서회장은"내 남은 생 동안 내가 가진 사회경험과 재산, 몸과 마음을 모두 받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불교봉사의 영역을 넓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불교봉사연합은 앞으로 다도, 꽃꽂이 등 시민들과 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를 열어 도심속 수행공간이 될 예정이다.(051)863-0505 천미희 기자

은해사 승가대학원 졸업식



조계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원장 지안)은 2월 25일 은해사 경내에서 제3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지안 스님은 이번에 학업을 마친 7명의 스님에게 졸업장과 삼장 강사 증서를 각각 수여했다.

성북노인복지관 성상담센터 개소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은 3월 3일 '행복한 노후 성(性)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하면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정성욱 관장과 성상담센터 나임순 소장, 노인 상담봉사자 8명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욱 관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소한 고민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동산불교대 제22회 졸업식



동산불교대(이사장 김재일)는 2월 27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제22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 졸업생 중 60명이 대학 포교사과정을, 2명이 대학원 법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무진장 스님 김재일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광동고 신대식 · 청담정보통신고 최병철 교장 임명





종립학교인 광동고와 청담정보통신고 신임 교장이 임명됐다.

의정부 광동고등학교는 2월 21일 신대식(50 · 사진 왼쪽) 前 광동중학교 교감을 신임 교장으로 임명했다.

신대식 교장은 81년 광동고의 전신인 광동여고에 지리 교사로 부임했으며 99년부터 2004년까지는 광동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했다.

평택 청담정보통신고도 2월 25일 최병철(60) 교감을 신임 교장으로 임명했다. 최교장은 청담정보통신고 상업교사로 27년 동안 근무했고 95년부터는 교감으로 재직했다. 김강진 기자

박정삼씨 금강대 석좌교수에



천태종립 금강대(총장 김유혁)는 3월 2일 언론인 출신 박정삼씨(사진)를 임기 4년의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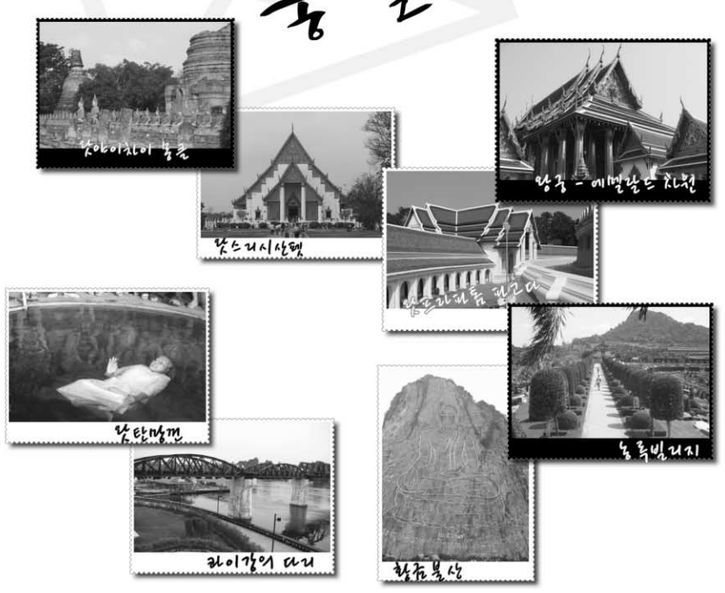
박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체육부장 홍보자료실장, 서울경제신문 기획조정실장, 국민일보 부사장, 스포츠투데이 부사장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개국 10주년 불교TV

태국으로 떠나는 불교TV 해외성지순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2005. 3. 28(월) ~ 4. 2(토) 5박 6일 일정 금액 790,000 원



제1일
- 인천 공항 출발
- 방콕 도착

제2일
- 태국 제 2대 왕조 아유타야로 이동
- 왓야이차이 몽콜, 왓스리시산펫 순례
- 왓노카야수타 사원 순례
- 칸차부리 이동 후 코끼리 및 뗏목 트레킹 관광

제3일
- 왓탐망껀 (물에 뜨는 스님) / 왓탐카우뿌 (동물사원)
- 파삿왕씽무엉씽 (석조 고적유물) 순례 후 중식
- 콰이강의 다리에서 탐카새 죽음의 계곡 열차타기 / 위령제 봉행
- 전쟁박물관 견학 / 석식 (콰이강 선상 디너)

제4일
- 왓부타몬톤 (걸어가는 부처상)
- 왓프라파톰 파고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탑) 순례
- 방콕 귀환 / 중식 후 왓프라케오
- 왓포 순례 (왕궁 - 에멜랄드 사원)
- 수상촌 관광 / 태국전통 궁중안마 체험

제5일
- 파타야로 이동
- 황금불상 및 농록빌리지 순례 (코끼리 쇼 포함)
- 승가대학 방문 (회향법회)
- 방콕출발

제6일
- 인천 공항 도착

불교TV 사업부 ☎ 02-3270-3333 / 887-2148 여행매니아 02-720-8828 www.btn.co.kr



불자 세상보기

서 인 원
문학박사 · 진선여고 교사

거꾸로 가는 국사 교육

역사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이다.

역사가의 명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2월 27일 독립 기념관을 갑작스럽게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도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것"라고 같은 의미의 발언을 했다.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미래를 위해서라면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23일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망언과 침략 35년간에 대한 무반성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간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의 역사까지도 선점하고자 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제 주변 국가들과 역사 전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일본과 중국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동북아 국가들의 미래가 과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 전쟁을 주도해야할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현황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만큼 확실하고도 체계적인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답은 한마디로 '절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 교과에 사회는 있어도 역사는 없다. 미국에 유학했던 교육론자들은 1992년부터 세계사와 더불어 국사를 사회과에 통합시켜 버렸다. 또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사 수업 시수를 주당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국사 교과서의 분량은 오히려 늘어나서 수박겉핥기보다도 더 나쁜 교육 환경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국사도 개항을 기준으로 국사와 한국근현대사의 두 과목으로 찢어놓고, 한국근현대사는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따라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배울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특히 수능 시험에서는 전 수험생의 28.1%만이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했으므로, 나머지 학생들은 전혀 배우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1997년 사법고시에서 국사 과목이 폐지된 이후, 2005년 이후에는 행정 · 외무고시에서도 제외된다.

국사 교육이 홀대되면서 관련 교원의 전문성도 크게 약화되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반사회 전공자를 선발하는 것이 교육 과정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역사 전공자를 잘 뽑지 않는다.

이렇듯 고교 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를 안 배우고, 국가시험에서도 국사 과목을 치루지 않은 공무원들이 일본의 독도 망언 및 침략에 대한 무반성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가는 중국이 왜 고구려사 등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이 왜 우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세대를 배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국사 과목을 사회 과목에서 독립시켜야 하며, 한국근현대사를 국사에 통합하거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야 하며, 국사 수업의 시수를 주당 3시간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발전된 국사 과목을 바탕으로 세계사 과목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쉽게 국사에 접할 수 있도록 국사 교육을 대중화하여야 하고, 연구 중심의 국사편찬위원회와는 다른 국사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국사 교육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엉망이 된 국사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 놓아야 다시는 소를 잃지 않는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가 아주 낮은 편이라는 인식은 사회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불자들까지도 부정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복지 참여와 관련된 불교의 이미지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나 포교에도 상당한 위축과 지장을 끼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외면하는 종교는 점차 설 땅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는 또한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겠다는 불교의 목표와도 상충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 서울 조계사에서 우리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선언'이 나왔다. 즉 기도비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이른바 '나눔운동'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모든 축원기도 동참비 가운데 15%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원천적으로 별도 회계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15% 나눠 100% 행복만들기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중심사찰 조계사의 '복지기금 적립 선언'은 한국불교가 한국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제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를 선구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종교가 타락과 위선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곧게 곧추서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시공을 초월해 건강한 종교가 지녀야 할 영원한 명제인 것이다.

조계사의 나눔운동은 조계사만의 독자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반드시 일파만파로 번져 나가 전국의 사찰들이 환희심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종교적 이상을 실천해 가는 불교를 우리 불자들이 힘모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불교는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다. '중생무변서원도'를 더이상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조계사처럼 전국의 사찰들이 앞다투어 사회복지기금을 적립해 운용해 나가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불자들은 물론 여러 사회대중들은 기대하고 있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책 리콜

백 년 동안 때 묻은 옷이라도 하루 동안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백천겁 동안에 지은 모든 불선업(不善業)도 불법(佛法)의 힘으로 잘 수순해서 닦으면 일시에 소멸하는 것이다. 〈심지관경〉

지난 2월 말 〈도산잡영〉(이황 지음)이라는 책을 펴낸 을유문화사가 이 책을 전량 수거해 다시 제작할 방침이라고 한다. 책을 출고한 뒤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일종의 '책 리콜'인 셈이다.

잘못된 부분은 책 전체 300여 쪽 가운데 4쪽에서 10여개 문장의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겹쳐있는 것이었다. 인쇄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였다. 이런 경우 정오표를 만들어 책 속에 끼워 넣어 오류를 바로잡기도 한다. 하지만 을유문화사는 책을 다시 찍기로 한 것이다.

제품의 결함에 대해 보상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인 리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통 부품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책 리콜은 전체를 다시 찍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막대한 손실을 감안해야 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 소식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금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에게 떠넘기기 바쁘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이익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기업은 소비자 위에서 군림하려 한다.

물론 을유문화사의 이런 선택은 독자에 대한 당연한 의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뉴스거리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원칙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 화젯거리로 등장한다. 그만큼 드문 일이라는 얘기다.

을유문화사는 적어도 금전적으로는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독자들로부터는 신뢰를 얻었다. 그 신뢰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을유문화사는 더 큰 것을 얻은 것이다. ■한명우(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정림사지 전시관은 일본풍?

부여에는 백제시대의 대표적 사찰이었던 정림사지가 있다. 그리고 정림사의 유물 등을 전시하는 정림사지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여군이 150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입해 만든다는 정림사지 전시관을 보면 기분이 이상해진다. 외관에서부터 우리나라 전통건축인가 하는 의아함이 들기 때문이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보니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일본풍 건축양식이라고 했다. 백제를 대표하는 정림사의 유물과 역사를 전시한 정림사지 역사관이 왜 우리 전통 양식도 아닌 남의 나라 건축양식으로 지어져야 하는지 한심하다.

무턱대고 건물을 짓기 전에 전시관이 대표해야 할 문화재가 어떤 역사 속에서 흥멸해 왔는지부터 검토하고, 전시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나혜준(충남 부여군 부여읍)

조계종 문장 등록에 대해

삼보륜을 조계종 얼굴로 등록을 했다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조계종이란 종단의 명칭도 몇 개가 등록되었고 그런 유사 조계종이 조계종의 삼보륜을 비슷하게 도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조계종에서 응용될 수 있는 도안을 개발해서 추가 등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동영상의 도안도 삼보륜을 응용해서 굴러가는 모양으로 하면 어떨까. 조돈창(조계종 홈페이지)

"법사스님 모십니다"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공수부대인 특전사 독수리부대의 불자 회장이다. 매년 (사)우리는선우에서 10월경 주최하는 장애우와 놀아주기 행사에 꼭 참석을 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부대는 매주 법사 스님이 번갈아 가며 오시는데 공교롭게도 매월 4번째 일요일은 아무도 오시지 않아 법회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 여건이 되면 찾아주기 바란다. 연락처 : 017-677-6491 / 0756

참군인(붓다뉴스)

제26회 만해백일장 시부문 대상작

바라보다

최송아(과천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나는 산세베리아
가만히 온실 밖을 내다본다
길 건너편에서는 오늘도
아침부터 포크레인기사가
뼈만 남은 창틀을 산산조각 낸다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마을의 고요
무너진 담벼락 사이에 끼어
목이 부러진 들꽃들도 축 늘어져 있다
쿨럭거리던 바람이 꽃잎을 흔들어대면
목이 터져라 재개발 반대를 외치던
혈서 같은 푸른 깃발들도
픽, 픽 힘없이 쓰러진다
반쯤 뿌리 뽑힌 살구나무엔
떠날 데 없는 텃새들이 앉아 있고
새로 생겨난 개발지구 화원에서
나는 지금, 왜곡된 계절인 줄 모르고
온 몸을 쭉쭉 편다, 일광욕을 즐기던
텃밭의 고추와 가지는 머리끝까지
소음을 뒤집어 쓴 채 편도선을 앓는다
텅 빈 축사 갈라진 여물통 사이
이름 모를 이끼들만 곰팡이로 피어있고
시커멓게 뚫린 벽, 구멍으론
불쑥불쑥 바람만 요란스레 드나든다
처마 그늘진 곳에 둥지를 틀고
겨울 양식을 장만하던 거미들
찢겨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본다
이젠 말라 흙먼지만 풀풀 이는 우물 속에
방금 호두알 하나가 떨어졌다
바깥 구경도 지루해진 나는
한껏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켠다

※산문부문 대상 수상작은 www.buddhanews.com에서

'현대' 만평

심 민 섭



제16기 전생 · 빙의 / 영 치유법 특별강좌!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 · 빙의/ 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빙 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빙의령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원격제령 천도법 ◉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 통 사 주 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 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 치유력 활성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본 강좌 개강 3월 16일(매주 수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교 육 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 신 (VIDEO) 교육과정

통신교육 방식
▶전생 · 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잎을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 (7회과정 비디오 테잎 총 20개)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본원에 출석수업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교육비 : 200만원



원장 상담학 박사 임 재 형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목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KBS,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과학원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무료공개강좌

※ 본 교육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1만원을 송금하시면 공개강좌 비디오 및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3월 9일 오후1시~3시까지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발우회



2월23일 화성 자제정사에 봉사활동을 나온 발우회 회원들이 호박죽을 끓이기 위해 아궁이에 장작을 넣는 모습.

"일 넘쳐도 늘 즐거워요"

"저기 저 동산이 '발우회 동산'이에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단 발우회 이귀례(49)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잔디와 꽃나무들이 조성된 동산. 독거 할머니들과 노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사는 화성 자제정사(이사장 묘희)에서 매달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발우회 회원들이 다듬고 가꿔 만들어낸 동산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자제정사를 찾는 발우회는 2월 23일에도 스스로 일거리를 찾느라 바쁘다.

"오늘은 메주를 닦아놔야겠어요. 냄새도 구수한 것이, 잘 띄워졌네요."

지난 겨울 띄웠던 메주를 '보물'이라며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손길에서 따스함이 묻어난다.

메주를 닦고 나자 발우회 회원들은 커다란 가마솥에 호박죽을 끓이기 시작한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부터 쉼 없이 죽을 저어주는 것까지 모두다 잔손이 가는 일이다.

이렇게, 5년째 각종 봉사활동을 섭렵한 발우회도 '몸살'이 날 정도로 자제정사에는 항상 일할 것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정사로 향한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를 임정수(55) 팀장은 자제정사 법인사무국장 경덕 스님의 말에서 찾는다.

"새로운 얼굴 한 번 비춰주는 것 자체가 외로운 자제정사 할머니들에게 큰 봉사활동이라고 하셔서 부담 없이 찾아오다 보니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오게 됐네요."

"봄이 오면 갈고 다듬어야 할 땅이 많아 일거리가 더 늘겠다"고 말하는 발우회 회원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봉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김강진 기자

▮후원해 주세요 - 서울 미아6동 '자비의 집'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소 '자비의 집(원장 신응균)'이 93년부터 서울 미아 6동에 자리 잡고 이웃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해왔다. 뿐만 아니라 노인 잔치, 의료지원, 무료 이·미용 서비스 등의 결연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이 곳을 돕고 있는 발우회 이귀례씨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항상 물품이 부족하다"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을 지원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02)945-4200

기도금 15% 복지기금으로

조계사, 나눔 운동… '회향'의 참뜻 살려

부처님 출가재일을 보름 앞둔 3월 2일 조계사 신도회사무실, 기도 접수를 마친 신도들의 입가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정 아무개' 보살은 이번 출가재일 법회 기도금으로 2만원을 냈다. 정 보살은 여느 때보다 더 흐뭇한 마음이었다. 자신이 낸 기도비 가운데 3000원이 조계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과 불우이웃들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눔의 15% 운동'으로 조계사 신도들은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자리이타(自利利他) 보살행을 곧바로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조계사(주지 원담)는 올해부터 신도들이 낸 각종 기도금의 15%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복지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밝혔다. 원담 스님은 이런 사실을 3월 10일(음 2월 1일) 열리는 초하루법회에서 조계사 신도와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현재 조계사에서 열리는 기도는 각종 기념재일기도와 초하루, 보름, 생일, 49재 등 30여종에 달한다.

조계사는 이번 '나눔의 15% 운동'이 종교 단체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원담 스님은 "종단 소속 사찰들의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사회적 회향에 사용하도록 공식화 하는데 조계사가 앞장선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기존에도 매년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각종 불사와 사찰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사회복지에 배분하는 형태여서 사회복지 관련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다. 신도들이 낸 기도 동참비의 15%는 즉시 사회복지기금 통장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되면 사찰의 재정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들쑥날쑥하던 복지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본사, 남아시아 3차성금 807만원 조계종에 전달

본사가 '나눔의 손잡기'를 통해 모은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 3차 성금 807만원을 3월 3일 조계종에 전달했다.

본사 서정만 이사는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에게 제천 송화사(160만원), 명상의집 삿상(500만원), 일붕선교종(147만원) 등이 기탁한 성금 807만원을 전달했다.

서정만 이사는 "현대불교는 지난해부터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며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을 돕기 위한 성금이 계속 답지하고 있어 세 번째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정념 스님은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본사 서정만 이사가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본사는 3차례에 걸쳐 총 2억 3천 940만원의 성금을 조계종에 전달했다.

유철주 기자

조계종에 지진·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2월 25~3월 3일)

14교구범어사 5220만8000원 광주 정광사 1000만원 현대불교신문 807만원 돈암동보현사 100만원 17교구금산사 2497만9000원 천안안양암신도일동 100만원 18교구백양사 1568만3000원 삽교녹야원 100만원 제주불교신문 502만9600원 최상숙 1만원 진천보탑사 100만원 성불사신도회 134만4810원 화계사(성광스님) 1000만원

총 128,654,410원

조계종 재난구호 성금 총액(2004년 12월 28일~2005년 3월 3일): 1,871,574,462원

(ARS 1113건 5,565,000원 포함)

"이젠 말할 수 있어요"

장애아동 사회적응 훈련 '햇살교실' 졸업식

"나도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싶어요."

사회복지재단 승가원 한솔복지관(관장 성화)이 진행해온 장애아동 사회적응 훈련 '햇살교실'에서 2월 25일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왔다. 훈련을 통해 당당하게 말할 줄 알게 된 영석이(12)를 비롯한 네 명의 장애아동이 그 주인공이다.

이날의 기쁨은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있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밝은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대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날 행사는 관장 성화 스님의 격려사(사진)와 '햇살교실' 후배들의 송사, 졸업생의 답사, 또 재학생과 졸업생 가족들 간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증서와 활동모습이 담긴 앨범이 함께 전달됐다.

한편 '햇살교실'은 앞으로도 박물관·영화관 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운영된다. (031)716-4215 김강진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UFO와 하나님의 실체

몇 만년에서 몇천년전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UFO)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며 인간을 지배했었다. 그 기록이 기독교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반짝반짝 빛나는 단쇠(쇠덩이) 같은 것이다.
▷ 날개가 달려 있다.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바퀴가 달려있다.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수정같은 궁창이 있다.(돔(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씨:제트분사)
▷ 궁창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나열한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의 형상임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광명이 비친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명 TEL.042)623-0829 FAX.042)621-0110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부시맨이 콜라병을 하나님 선물로 알고 이를 神主모시듯 하는 것처럼 원시시대에 UFO(우주인)을 유일신으로 착각하고 맹신하여 신학(神學)을 연구했다면 그 신학은 궤변과 비과학 비합리 비도덕적 괴리로 뒤범벅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죽이는 하느님을 보았는가? 부처님이 화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 책 한권으로서 기독교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우리 모두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역군임을 자각합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는 것을---!

※ 광고후원은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에서 하는 것임.
※ 뜻이 있으신 분은 회원에 (054-633-1138, 010-2465-1357) 동참하십시요.

卍·心
(만의 위대한 힘)

만 성 지 음

卍의 최초 해설서

卍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卍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 도 기

회·원·모·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

원효 연구 30년 외길 은정희 前 서울교대 교수

나의 모든 의구심 원효에서 찾고있죠



1991년 <대승기신론소 · 별기>
2000년 <금강삼매경론>
2005년 <이장의> 역주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갈라진 세상. 마음마저 갈라져 삶은 거칠어져만 간다. 이 같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대안을 논할라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은 원효 스님이고, 화쟁사상이다. 하지만 원효 스님을 꼼꼼히 읽어낸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허무한 담론만 무성한 것은 아닐까.

말의 성찬에 등 돌리고 평생 묵묵히 원효 사상 연구에 몰두하며 1991년 <대승기신론소 · 별기(大乘起信論疏 · 別記)> 역주와 2000년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 이어 난해하기로 유명한 <이장의(二障義)>까지도 최근 완역하는 쾌거를 이룬 은정희(66) 前 서울교대 교수는 원효 스님을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이장의>는 원효 스님의 실천적인 불교관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핵심 저술 가운데 하나다.

은 교수는 1983년 박사논문에서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을 삼세념(三細念)인 무명업식(無明業識) · 전식(轉識) · 현식(現識)이 아라야식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에 주목, 이를 드러내 <대승기신론>이 중관과 유식의 지양 · 종합이라는 설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번역에 몰두해 원효의 주요 저술을 세 권이나 번역해 냈으니, 그것만으로도 은 교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원효 저술은 당시의 제(諸) 학문을 넘나드는 자유로움과 웅대한 스케일, 그리고 함축적인 서술로 인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 교수의 업적은 더욱 더 빛을 발한다.

번역에 가장 애를 먹인 저술은 이번에 출간한 <이장의>다. 번뇌를 끊고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실천적 단계를 설명한 <이장의>는 유식사상이 집약돼 특히 어려웠다. <이장의>를 읽으며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은 교수는 "한 자 한 자가 암호 같았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하지만 일본의 오오초오 에니치(橫超慧日) 박사가 편찬한 <이장의>의 연구편에 나오는 전거(典據)를 하나씩 찾아 읽으며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몇 차례의 강독을 거치면서 이해도를 높였다. 결국 수년간의 작업 끝에 오오초오 박사가 찾지 못했던 전거들을 30여개 더 찾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각고의 노력으로 출간된 번역본 <이장의>는 높은 완성도로 학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번역은 없을 것이다"는 찬사까지 나오고 있다.

은 교수가 이처럼 '험난한' 번역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학자로서의 양심 때문인지도 모른다.

"원효 스님의 원문을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가 드물다보니 원효 스님에 대한 논문들도 자연 날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언어는 기초에 해당하는데 이를 등한시 하고 연구를 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학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은 교수에게 원효학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문제에 처음 눈뜬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성(古城)에서 범인을 찾던 탐정 조수가 거미줄이 잔뜩 걸려 있는 왕좌를 보며 "저기에 아름다운 왕비와 위엄 있는 왕이 앉아있었겠지"라고 되뇌는 <괴도 루팡>의 대목은 그에게 큰 충격을 줬다. "내 앞에 있는 책상보다 내가 더 먼저 없어지겠구나"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소녀는 두어 달 간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거듭했다. 정답은 찾지 못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렇게 임시로 봉합됐던 문제의식은 1960년 조계사 일요법회에서 이기영 선생의 <금강삼매경론> 강의를 들으면서 원효 사상을 전공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발전했다. "가슴을 후련하게 해준" 이기영 선생의 강의는 그에게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사에 대한 의구심을 원효 안에서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8년 후 은 교수는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 본격적인 원효 연구의 길로 접어들었다. 태동고전연구소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8년간 우직하게 한학을 익혔고, 김동화 · 이종익 교수 등 불교학 거장과 강독을 함께 하며 불교학을 배워나갔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강독은 난해한 불교 개념들을 풀어내는 값진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는 "나의 원효 저술 번역은 강독의 결실이다"고 말한다.

이기영 선생 강의 듣고 원효 연구 결심
대학원 시절 강독 통해 불교 개념 정리
이제야 '내 공부' 원효 저술 완역에 진력

지금도 <인명론(因明論)> <구사론(俱舍論)> <종경록(宗鏡錄)> <조론(肇論)> <예기(禮記)> 등 7개 고전 강독이 그의 동숭동 자택에서 이뤄진다. 덕분에 그의 집은 언제나 공부하는 이들로 문전성시다.

은 교수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30여 년간 한결같이 학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 신주련(92) 씨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컸다. 군산 동국사를 다녔던 어머니는 절에서 들은 말씀을 전해주곤 했다. 그 말씀들이 어찌나 귀에 쏙쏙 들어오던지 귀 기울여 듣곤 했단다.

불법과의 인연이 지중했던지 출가의 기회도 있었다. 성철 스님과 석남사 인홍 스님은 읽어보라며 책을 주기도 하고, 절에 함께 가자고도 하며 은 교수에게 출가 의사를 은근히 떠 보기도 했다. 은 교수 역시 출가할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공부할 여건이 갖춰져 있었고, 함께 공부하는 선후배도 많은 속세를 굳이 떠날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했다. 그래도 원효 스님을 화두삼아 정진하는 그를 두고 주위에서는 '유발비구니'라 부르니 반은 출가한 셈이다.

원효 스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은 교수는 주저 없이 '부주열반(不住涅槃)'을 꼽는다. "'열반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의 이 말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다른 표현입니다. 원효 스님은 줄곧 부주열반을 강조했지요. 원효 스님의 가장 큰 목표는 보살도의 실천이었음을 웅변하는 말입니다."

지난 해 8월 서울교대 교수직을 정년퇴임한 은 교수는 이제야말로 '내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희색이 가득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효 저술을 번역할 계획이다. 자신이 세운 서원대로 원효 저술을 완역하고, 제자들과 한국불교사를 새로이 써나갈 생각이다. 그것이야말로 후학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은정희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1960)하고 1983년 고려대 철학과에서 <기신론 소 · 별기에 나타난 원효의 일심(一心)사상>으로 박사학위 취득.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역임. 역서로는 <대승기신론소 · 별기> <금강삼매경론> <연산군일기>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원효의 삼세 · 아라야식설의 창안' 등이 있다.

몽골불교에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몽골국립공원에 노천대불조성을 위한 10만등 동참불사 (1인 1등 1만원 밝히기 운동)

1200명 몽골교포 가운데 목사, 전도사가 460명. 가족 600여명이 살고 있다면 이는 누구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몽골 포교사회의 현실입니다. 20여년전부터 의료전도사업과 학교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파고든 한국의 기독교는 2천년 몽골 정신사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2002년 대한불교진흥원 주관 아래 한몽불교문화원이 개설되고 금강선원 후원으로 몽골고려사가 창건되어 의료, 교육, 장학사업에 뛰어들고는 있지만 460대 1의 눈물겨운 현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래 몽골 쟈이산국립공원에 황금부지 1만평을 확보하고 세계불교공원을 건설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하여 노천 부처님 한 분 조성하는 일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96세 구르도바 보취 라마 큰스님의 간절한 원력을 따라 몽골 고려사 주지 활안 한정섭 법사님께서는 1인 1등(1만원) 켜기 운동으로써 이 불사를 완수하기 위하여 대화주가 되어 탁발행각에 나서게 되었으니 미래불교를 걱정하는 한국불자 여러분께서는 십시일반 동참하여 세계불교공원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년 동안 소련 공산당에게 짓밟힌 몽골불교 부흥을 위해 몽골국립공원에 23m 노천대불을 세웁니다.

◆ 신청기간
◇ 1차 : 2005년 5월 20일 (음, 4월 18일) 까지 (몽골 부처님 오신날 행사일까지)
◇ 2차 : 2005년 7월 8일 (음, 6월 3일) 까지 (국립공원에 노천대불 낙성식일까지)
※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명단을 몽골불교공원에 기록하여 영원히 남깁니다

◆ 몽골세계불교공원추진위원회
• 몽골 불교대표 구르도바보취 • 몽골불교대학 총장 체대브 • 세계불교우의회 몽골대표 담마자브
• 아세아 불교 연구소장 볼칸 • 몽골대학생 불교연합회 남정주 • WFB몽골대표 담마자브
• 세계불교법왕청 대표 • 몽골 고려사 주지 활안 한정섭 • 석도림
• 후원 : 대한불교진흥원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 대한불교조계종 평화통일 불사리탑 서울 포교당 법화정사

◆ 몽골성지순례안내
◇ 제1차 : 2005년 5월 20일 - 23일 (음, 4월 13일) 3박 4일 110만원
◇ 제2차 : 2005년 7월 8일 - 11일 (음, 6월 3일) 3박 4일 110만원

◆ 문의 및 접수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 1인 1등 1만원 계좌번호 : 우체국 010983-01-003730 (예금주 : 몽골고려촌후원회)
◆ 500등 이상 권선하시는 불자님께는 몽골정부 초청으로 3박 4일 왕복 항공료가 나옵니다.
◆ 몽골 불자들은 고려사와 구르도바보취 노스님 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국립공원 노천대불조성을 위한 10만등 동참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참자 명단-접수순)

• 서울 금강선원 : 이주연, 최정자, 김미진, 운 산, 안경우, 우 민, 명 덕, 신용진, 신방년, 지 오, 유권규, 이희경, 유종경, 유지희, 김동학, 안희숙, 김병희, 김영국, 망구경희, 망김학숙, 망구자근, JHONE, 구자원, 염종선, 염대환, 정순자, 민유미, 최아름, 최선관, 서은경, 최삼은, 김상현, 염민지, 김진궐, 이영자, 김현길, 김정길, 김난희, 조경희, 고세영, 허영철, 김순자, 신현정, 조영란, 이상배, 채명기, 서태수, 서종선, 서종남, 서진수, 지성희, 이봉문, 혜여포유미용실, 김향숙, 김고은, 김희도, 이진순, 이영기, 연규옥, 이진아, 이혜진, 정인환, 이순옥, 정영학, 오정록, 김덕경, 권세명, 박권재, 박성제, 박슬기, 민현덕, 김한영, 민대홍, 민석홍, 인선희, 윤미경, 민규영, 민정요, 전현태, 차은진, 전새힘, 전자임, 용재완, 고영철, 이유진, 김영진, 남미자, 김다솜, 김동한, 최용성, 최수영, 최정석, 박종성, 최영자, 박대원, 정희숙, 신일랑, 김창규, 박봉희, 김승익, 이종업, 권상철, 우제길, 전현자, 우현영, 우인경, 우지윤, 김용조, 김성열, 김재환, 박용철, 박준혁, 이석우, 이상용, 정해균, 정준영, 정지영, 정판석, 이규일, 이현미, 권혁수, 권순우, 이달용, 이용철, 한의길, 오정희, 한호철, 김세미, 한현지, 김유정, 이종하, 유지현, 여환수, 천승열, 여정훈, 여태경, 석근태, 석우체, 신운식, 신상훈, 황윤태, 김동훈, 손관우, 조용호, 손복자, 조시영, 조은영, 조민경, 이상민, 이경자, 최성원, 문월운행 • 여주불교대학 : 석노수, 박영자, 이임선, 석장운, 석주현, 석성현, 김양순, 한미선, 석이영, 이부웅, 홍옥자, 이문기, 이혼기, 이종규, 이슬, 손해순, 장홍순, 박정자, 장동옥, 장동진, 장동우, 장보순, 이혼용, 장미희, 장동우, 장동화, 장희순, 여정순, 장유미, 장승준, 장동인, 장관순, 손해순, 장홍순, 박정자, 장동옥, 장동진, 장동우, 장보순, 이혼용, 장미희, 장동우, 장동화, 여정순, 장유미, 장승준, 장동민, 장관순, 한민수, 손정국, 이현희,이창열, 차민호, 김진희, 최영호, 김경찬, 오윤정, 홍보라, 유재식, 정두용, 권오철, 김영옥, 이희재, 구자하, 강혜옥, 최정락, 차혜주, 차윤탁, 짐재원, 손서연, 최지환, 송영수, 송민건, 송현아, 김봉순, 장해중, 김은예, 장윤구, 김종갑, 김태수, 김승수, 곽갈석, 곽용호, 전순옥, 지상희, 박경순, 강정학, 강석훈, 장이순, 장동철, 이종일 • 상락향수도원 : 김태성, 김일환, 최여종, 최순옥, 최금복, 이창규, 이정현, 최예지, 이이월, 윤여정, 윤여행, 윤여환, 윤충의, 양동국, 최순현, 양우미, 양현민, 정충재, 박영자, 정준원, 정준오, 방수미, 정준명, 정진환, 정수민, 정연호, 정진아, 윤수홍, 정정자, 윤천주, 윤혜경, 윤현화, 김경태, 김태은, 김희정, 김지현, 이선희, 김만석, 김정욱, 이성윤, 홍영희, 이호근, 김석만, 이순관, 유성철, 신경호, 신용호, 신상호, 김지학, 김진기, 김선기, 유선준, 이종순, 유정식, 유원식, 이대훈, 박상관, 이민규, 유창구, 유병용, 김혁기, 김계순, 김진미, 김진아, 김진옥, 김진일, 김학준, 황금순, 김자애심, 안병두영가, 이상근, 이창희, 홍종희, 신재식, 정찬영, 차문준, 정석화, 차성빈, 함인식, 함성찬, 함영수, 김옥수, 문기중, 문선경, 김동기, 김옥례, 이두정, 김용명, 심현성, 최승열, 박경자, 이진순, 이상명, 정용재, 노회원, 박장연, 강태규, 서광식, 이홍복, 유동희, 김호준, 김장수, 오승희, 김미숙, 박미정, 최춘화, 홍승현, 김대희, 이재철, 김대수, 신재창, 이경길, 김민기, 이범찬, 김경선, 안동순, 김민정, 김광민, 홍란이, 이순자, 이선화, 이형승, 홍성우, 윤성현, 이영은, 윤혜람, 이주원, 황윤기, 김정순, 권만섭, 안용주, 안용화, 박진화, 박덕규, 고일숙, 전혜경, 이용주, 황병국, 김경근, 김광재, 전영례, 양현석, 양승철, 이재영, 양재윤, 진석준, 장건선, 장용호, 장용진, 장민혁, 장순미, 이종순, 최보현, 유성철, 유아현, 윤숙경, 유성관, 강민아, 유시현, 김명숙, 유은영, 김덕봉, 손정아, 손형민, 심명희, 손창범, 장순환, 김진숙, 김동인, 최순창, 차갑선, 최은희, 최윤희, 한태현, 최해경, 한은주, 한진선, 한윤주, 정국용, 최수영, 최재원 • 의정부 : 최점이, 법 성, 장현숙, 한상열, 정성문, 배진여성, 강순희, 혀옥순, 김주남, 이순임, 현삼열, 신창섭, 이철대, 정진수, 이오재, 서병직, 이현호, 박선명, 이선각화, 최충섭, 방덕규, 김신옥, 방금옥, 박정민, 최연옥, 손수경심, 조정희, 이종현, 정인숙, 이강호, 김옥기, 현금자, 이대식, 황돌석, 임상혁, 최석기, 정두선, 한상용, 배양숙, 박귀임, 최남숙, 유진숙, 이수현, 박정자 • 부산 천지암 : 복창현, 복상현, 박인섭, 전영주, 전인수, 안재우, 안혜리, 안상철, 정춘자, 강정묵, 강안묵, 강옥희, 장원일, 장원빈, 안성식, 박현우, 차성철, 윤혜영, 차지현, 차현순, 김옥련, 강국필, 전일성, 한민호, 류무광, 안수만, 안진영, 안진희, 김종환, 서영일, 서용호, 한상진, 최준호, 안원식, 전정련, 신인연, 정상영, 장왕규, 장진석, 강순례, 이미화, 박종길, 박정호, 박정민, 복창현, 복상현, 박인섭, 전영우, 전인수, 안재우, 안혜리, 안상철, 정춘자, 강정묵, 강안묵, 강옥희, 장원일, 장원빈, 안성식, 박현우, 차성철, 윤혜영, 차지현, 차현순, 김옥련, 강국필, 전일성, 한민호, 류무광, 안수만, 안진영, 안진희, 김종환, 서영일, 서용호, 한상진, 최준호, 안원식, 전정련, 신인연, 정상영, 장왕규, 장진석, 강순례, 이미화, 박종길, 박정호, 박정민 • 안동 문수정사 : 김혜림, 김좌동, 현창호, 김화라, 김영진, 김지선, 조경순, 권명자, 오형대, 신혜민, 신홍식, 임인동, 임경연, 윤경순, 이혜현, 이보현, 조후로, 장명숙, 김채선, 망최명자, 윤계명, 정지해, 배재호, 황성연, 임승수, 임예슬, 강승지, 강선옥, 어혜숙, 김승범, 문점석, 황해기, 황석진, 문형일, 오정석, 우미라, 권택상, 박혜수, 최문석, 강병성, 강종성, 강양중, 황의도, 이은우 • 안동불교대학 : 최승봉, 최승철, 최동숙, 서수중, 김춘자, 서영진, 하지윤, 박찬우, 서상진, 박상하, 임옥련, 권순석, 최한나, 권재현, 차상자, 박채순, 이민식, 권윤혜, 권차희, 김희옥, 김부동, 권종학, 김경희, 엄선영, 우옥자, 김금난, 김명택, 김경일, 서기원, 권옥이, 김석홍, 김용주, 김일동, 김주현, 김유선, 장정희, 임진현, 임관현, 임선현, 임진현, 임미현, 강진옥, 김동수, 김종우, 이숙란, 이강우, 장성규, 권영매, 조수현, 김종훈, 김봉금, 김태민, 김태준, 이경숙, 정복희, 홍성혁, 김성길, 김영보, 김경동, 최민희, 최승익, 김경남, 김태민, 김태준, 이경숙, 정복희, 홍성혁, 김성길, 김영보, 김경동, 최민희, 최승익, 이강영, 이동재, 권태우, 권기흡, 권오형, 권혁주, 이안정, 이인석, 이기석, 최선명, 류경수, 장명모, 방 운, 김태균, 김자일, 최경석, 심기성, 최도수, 김기동, 이무경, 최문현, 최인현, 장철환 • 불교TV : 임현석, 김진한, 민병숙, 송영재, 이명희, 이해순, 신영숙, 임정훈, 임지혜, 김금선, 임기옥, 시복순, 김석영, 한기현, 강명미, 정영순, 이영숙, 변재옥, 최태근, 노윤구, 최동귀, 조인출 • 울산신불사 : 곽만근, 안인자, 곽윤규, 은수정, 이광식, 박옥동, 최문규, 권옥주, 유정옥, 김종성, 강순자, 김화곤, 김종필, 김종오, 김정래, 이택호, 강정애, 권선해, 원용철, 박신재, 백장현, 백수연, 백삼용, 김태경, 이외선, 김민석, 김용순, 김동금, 김태훈, 서재은, 서병일, 박순자, 최완규, 서미영, 김재봉, 서진영, 김석돌, 노상철, 정말숙, 장용하, 나상돈, 나상근, 강원석, 김정희, 나태순, 심치영, 김점례, 서정숙, 최선미, 김명선, 황선조, 김재근, 이성호, 이태동, 강금수, 박심현, 장용성, 김영숙, 장희주, 장희진, 박말수, 이경미, 김준철, 원태옥, 김상훈, 윤성원, 윤명탁, 이태석, 이태봉, 장성칠, 장명진, 장기영, 장명주, 이명순, 조성호, 나희연, 정용훈, 김정선, 김효석, 김연순, 손추자, 손은혜, 이동춘, 이진욱, 이정택, 최진상, 최진열, 김상복, 김상열, 조주경, 박수만, 이선명, 이선용 • 지장포교원 : 이봉신, 박춘옥, 이상구, 안기태, 장봉길, 이용운, 이종기, 김희익, 조명래, 김태정, 김인호, 정연보, 강상수, 김덕수, 이숙희, 김성락, 김종태, 최형동, 이복석, 박명현, 이채준, 이강웅, 최태규, 최병선, 정종귀, 박희문, 윤홍호, 윤한숙, 윤현주, 김희곤, 이가은, 김재중, 이현주, 김선빈, 문순자 • 충북교육원 : 이현직, 조항식, 이호일, 김상무, 강전홍, 최재철, 전수자, 유승준, 윤홍진, 한준석, 임현묵, 신학균, 김경달, 정진연, 이갑호, 양병석, 김종만, 두현, 천희, 서원솝

추가 명단은 다음주 광고에 게재합니다.

문은 본래 열려 있다…발밑을 보라

20년만에 열린 선화자법회

"문은 본래 열려 있다. 우리는 이미 그 문에 들어와 있다. 만약 열린 문을 찾지 못하고, 들어와 있음을 알지 못한 이가 있다면, 조용히 자기 발밑을 살펴보라."

2월 28일~3월 2일, 합천 해인사에서 선화자(禪和子)법회가 열렸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인각 스님은 입제식 대회사에서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이치부터 강조했다. 스님은 20년 만에 열린 선화자법회를 "수행자들이 자신의 공부 됨됨이를 선배 스님들과 만나 점검하고, 스스로 분발심을 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법회는 너무도 진지했다. 석종사 선원장 혜국, 각화사 선덕 고우, 축서사 선원장 무여,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 등 내로라 하는 구참 수행자는 물론 갓 강원을 졸업한 비구니 스님까지 2백여 스님이 참석,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참석자 대부분이 5년 미만의 초참 수행자여서 분위기가 매우 진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격려사에서 "선원 수좌들이 간화선의 종지를 선양하고 종풍을 진작해 선을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사기풍과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함주 현산 인각)가 마련한 선화자법회는 무여 스님의 <신심명> 강설, 고우 스님의 '수행자의 자세' 주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선화자법회는…

선화자(禪和子) 법회의 연원은 선방 안거 해제일에 조실 스님의 상당법문에서 시작된 것으로, 선방 스님들에게 선어록 등을 통해 불법의 안목을 키우는 목적으로 개최된 선법회다.

선화자란 말은 통상 스님의 호칭이다. 선(禪)은 양변을 여읜 마음을, 화(和)는 그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작용을, 자(子)는 이렇게 하는 수행자를 일컫는다.

지난 1986년 고우 스님(現 각화사 선덕)이 제안해 합천 해인사에서 개최됐으며, 당시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이 입제법문을, 봉암사 선원장 서암 스님이 <육조단경>을 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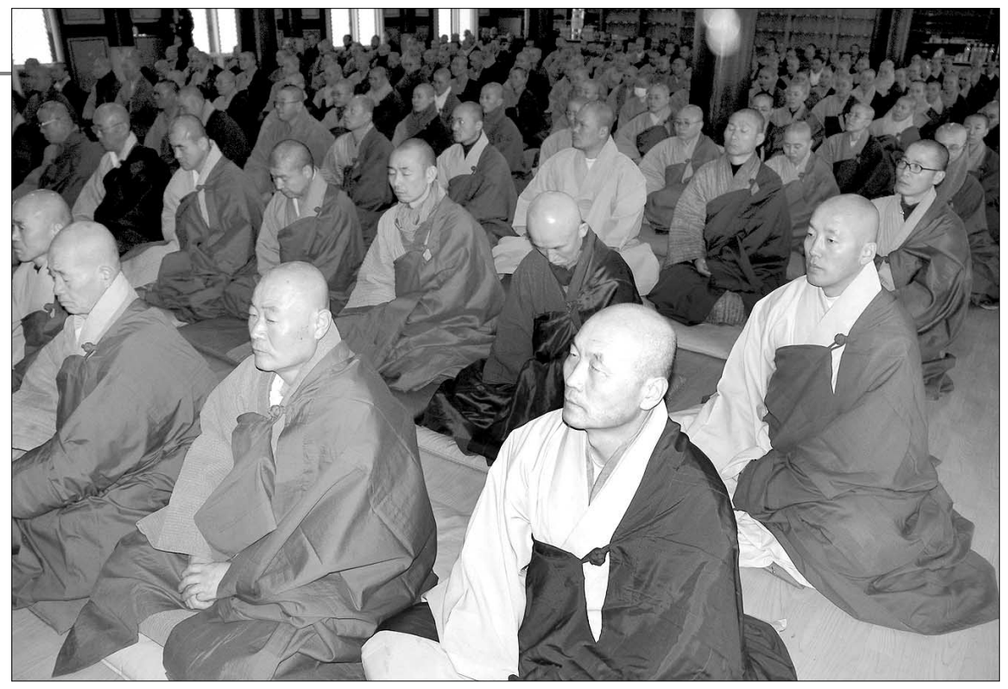
 # 초참 수행자에게 '공부 길'을 열어 주다.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한 <신심명> 강설은 초참 수행자들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계기가 됐다.

무여 스님은 <신심명>의 핵심을 '본래 면목이 바로 부처임을 알게 한다'는 것과 출가수행자는 '분별하려는 간택심, 좋고 싫음을 따지는 증애심을 몽땅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여 스님은 특히 <신심명>을 수행자가 화두를 들고 끝까지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어록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선종 3조 승찬 선사가 <신심명>을 통해 이를 수행자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심이란 아주 돈독하고 투철한 믿음으로, 온통 마음전체가 믿음으로 양심과 소신,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스님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은 초발심에서 견성하고 증득까지 하는 모든 믿음을 일컫는다고 강조했다.



전국선원수좌회가 20년만에 지난 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주최한 선화자법회에서 선방수좌들이 무여 스님의 <신심명> 강설을 듣고 있다.

무여 스님은 또 "<신심명>이 수행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상대도의 성취라는 것을 수행자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데 있다"며 "'본래성불'이란 것을 알면, 눈을 뜨고 보는 그 자리가 바로 깨침의 세계이고 부처의 세계라는 것을 깨치게 된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이어 "수행자는 세간법을 싫어하고 불법을 좋아하는 것조차 쉬어야 한다"며 "수행자는 생사를 해탈 하려는 성불의 원력도 역대 조사의 법문에도 끄달리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신심명> 강설이 진행되자 스님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연신 메모지에 강설 내용을 받아 적는 스님들도 보였다. 또 2시간가량의 강설이 끝나자 삼삼오오 모여 서로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 1986년 선화자법회에도 참석했다는 지윤 스님(남원 성련사)은 "'수행은 공부의 장애가 되는 간택심과 증애심을 벗고 이를 막아버리는 작업'이란 무여 스님의 <신심명> 강설을 듣고 자기공부를 점검하게 됐다"고 말했다.

3월 1일 열린 고우 스님의 특강도 선원수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수행자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한 고우 스님은 "간화선 수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조사선의 올바른 이해"라며 "조사스님들이 화두를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야 하고, 못 깨닫는 수행자는 부득이 참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우 스님이 "수행자는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자, 한 비구니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치기도 했다.

올해 강원에 입학한 한 스님은 "큰 스님들의 감로법문을 듣게 신심이 났다"며 "이번 선화자법회를 통해 스스로 공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어른 스님들에게 수행의 진척을 확인하게 돼 앞으로 수행하는데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참가소감을 피력했다.

해인사=김철우 기자

선배 선사들과 만나 공부 됨됨이 점검

무여스님 '신심명 강설' · 고우 스님 특강 이어져

"정견 통한 선사상 확립 계기됐으면"

인터뷰 선화자법회 복원 주도 지환 스님



"참선수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견(正見)을 통한 선사상의 확립입니다. 막연한 참선수행은 수행의 질을 부실하게 하고, 자기 변화의 내용에 차이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선방 수좌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선화자법회를 복원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선화자법회를 기획한 지환 스님(사진 · 조계종 기본선원장)은 20년 만에 열린 선화자 법회의 복원 배경과 의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수행법입니다. 수행자 스스로가 본래 부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간화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화자법회 같은 법석의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환 스님은 특히 선화자법회의 중요성이 전국 선원의 초참 후배스님들의 '공부 길'을 알려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당대 고승들의 잇따른 열반, 그에 따른 선지식의 부족, 위빠사나 등의 제3수행법 난립 등이 간화선 초참 수행자들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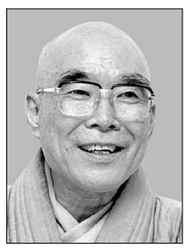
"간화선 수행자들이 더욱 분발심을 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또 수행자들이 시대흐름에 맞게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지성도 겸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스님은 이 같은 선화자법회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앞으로는 인원에 관계없이 매년 한 차례 법석을 열릴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의심하기 위해 의심하지 말라"

▌고우 스님 특강 요약



성철 스님은 20년 전 해인사에서 열린 선화자 법회의 성격을 사상정립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상정립은 수행자가 공부하기 전에 정견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성철 스님은 선적인 차원에서 정견을 올바로 세우는데 선어록 강의가 필요하다며 당시 <육조단경>을 강조했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출가할 때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다. 출가초심을 유지하려면, 세속의 행복 조건들을 내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부처도 조사도 행복의 조건들을 밖에서 찾지 않았다. 내면에서 찾으라 했다. 수행자는 밖으로 주어지는 행복조건들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수행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럼 수행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조사선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조사 스님들이 화두를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야 한다. 못 깨닫는 이는 부득이 참구를 해야 한다. 화두는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지 참구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알면 바로 깨닫고 모르면 의심을 해 알려고 공부하는 것이다. 후학들의 공부 자세는 이처럼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화두참구하는 자세는 정견을 바로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 또 수행자는 끝없이 발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삼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에서 삼매는 의심하는 그 자리에서 생각의 길도 말 길도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만약 그 자리에 조금의 알음알이가 붙으면, 삼매가 아니다. 삼매는 생각과 말이 끊긴 그 순간이다. 그 때 의심이 일어나 알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바로 삼매다. 때문에 수행자는 화두를 통해 알고자 하는 의지를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행자는 한국불교의 간화선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불교 간화선은 조사선 전통이 살아있는 정통 선수행법이다. 이를 더욱 활발히 살려내 조사선 전통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자 의무이다.

이와 함께 수행자는 불법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정견을 세우는데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한다. 또 이런 한국불교의 선정통을 수좌들은 물론 재가불자들이 생활화하고, 능력껏 사회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정리=김철우 기자

◆ '나의 수행법'은 기사 넘쳐 한주 쉽니다.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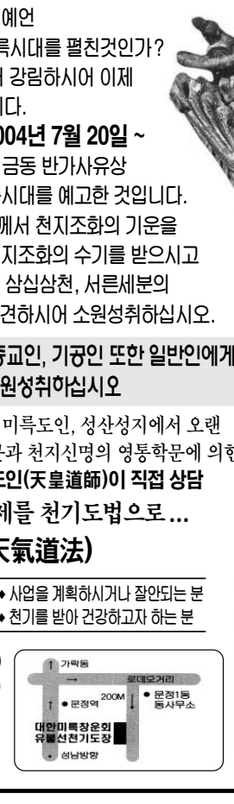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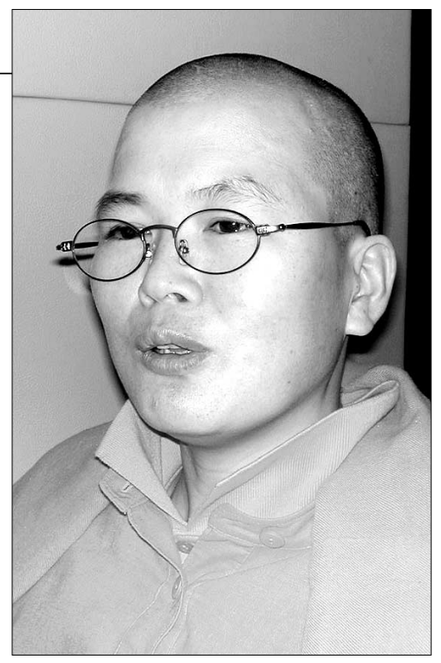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소외 이웃과 요가 나누렵니다

싸띠아난다 재단 설립 추진 스와미 싸띠아미뜨라

"우리나라 요가는 이익창출 수단이나 일시적인 유행 현상에 머무른 채 진정한 요가적 삶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성인만이 즐겨왔던 요가를 이제는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본디 스와미(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구도승을 일컫는 힌두어)는 옷부터 제공받은 음식까지 무엇 하나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한겨울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던 외투 한 벌까지 내 것이 아니라며 고개를 내젓던 한국 최초의 싸띠아난다 요가 출가수행자 스와미 싸띠아미뜨라를 만났다.



한국인 최초의 싸띠아난다 요가 출가자인 스와미 싸띠아미뜨라. '싸띠아미뜨라'란 '진리의 동반자'란 뜻이다.

한국 최초 싸띠아난다 요가 출가수행자

그는 무소유의 철칙을 지키는 것에서 모자라 한국 최초의 싸띠아난다 요가 아쉬람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로 고스란히 환원하고 싶다며 '싸띠아난다 요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스와미 싸띠아난다 지가 창시한 인도 싸띠아난다 요가가 인도 최초의 요가대학 비하르요가대학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빈민구제 사업을 벌이는 현실을 거울삼아, 재단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노라 했다.

무소유 철칙…이익 모두 사회로 환원

"수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 많은 이웃들이 싸띠아난다 요가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가의 고전 행법을 현대인에 맞게 체계화시킨 싸띠아난다 요가는 현대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행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절절한 경험이 배어있다. 그는 92년 인천 용화사로 출가한 이후 5년간 비구니로 수행에 매진하다 병약한 몸을 이기지 못해 인도행을 결심했다. 해가 지고 뜨는 것을 모르고 수행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질병의 그늘에 갇혀 눈칫밥을 삼킨 것만 몇 년이었다. '죽으려고 간' 인도에서 그는 싸띠아난다 요가를 만났고, 요가 수행을 통해 건강과 기력을 회복하고 스승 스와미 니란잔아난다로부터 출가수행자의 계를 받았다.

국내서 수행하다 아픈 몸 끌고 인도행

"우리나라 요가는 아사나(동작) 위주의 행법에만 치우쳐 있어 요가의 깊은 단계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싸띠아난다 요가 아사나의 특징은 각 관절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운영하는 전남 장흥의 요가센터에서는 노약자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도 신체의 제약없이 아사나를 행한다.

그리고 무리없이 이어지는 명상을 통해 심신을 이완시키는 것은 물론, 신체적 질병을 극복하고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누운 상태로 정신적 육체적 이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가니드라' 등을 통해 하타요가 위주의 일반 요가원과 구별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노인 · 어린이 · 장애인도 무리없이 아사나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아쉬람 곁에 손수 황토방을 지어 올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수련장에서 가까운 폐교를 인수해 누구나 언제든지 요가를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을 꾸몄다. 전남 장흥군에서는 일찍이 그와 뜻을 공유하고 사띠아난다 요가 아쉬람을 '건강을 가꿀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을 논의 중이다.

"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가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요가가 각 가정마다 보급돼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를 밝힐 수 있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061)862-4563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목동 샨티 요가원서 해부·생리학 강좌

요가붐을 생산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요가철학과 이론에 대한 이해가 요청되는 가운데 요가 관련 해부학 · 생리학 강좌가 마련된다.

목동 샨티 요가원(원장 이선근)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3월 12일~5월 14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요가 실수련에 있어서의 해부학과 생리학' 강좌를 연다. 의학박사 이미현(차병원 대체의학 연구센터 동종요법 연구원) 씨가 지도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순환계 · 내분비계 · 신경계 등 인도를 비롯한 외국의 요가 교육기관들이 채택해서 쓰고 있는 요가자격 코스 교과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시간 30분간의 본강의에 이어 3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돼 있다.

목동 샨티 요가원장 이선근 씨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올바른 요가지도를 위해 필요한 지식이라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강좌를 준비했다"며 "요가지도자, 테라피스트, 요가지도자 교육생 등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료는 1회 1만원씩, 40명 내외 선착순 마감. (02) 2643 – 5802

강신재 기자

■ 해부및 생리학 강좌 일정

PART 1 (기초해부학과 생리학)

날짜	강좌내용
3월 12일	인체
3월 19일	소화기계
3월 26일	순환계
4월 2일	호흡기계
4월 9일	근육계
4월 16일	신경계
4월 23일	내분비계
4월 30일	골격계
5월 7일	비뇨기계
5월 14일	항상성
5월 21일	자세법

PART 2 (실수련에 있어서의 해부학과 생리학)

날짜	강좌내용
5월 28일	아사나
6월 4일	무드라, 반다와 크리야
6월 11일	호흡
6월 18일	아눌로마 빌로마 호흡
6월 25일	웃짜이호흡
7월 2일	옴(AUM)의 과학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 혜능 선사, 노모를 남겨두고 출가하다

출가란 무엇인가? 간단하다. 세간의 포기이다. 더 거창하게 말한다면 삶의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다. 석가씨 집안으로 옮겨오면서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기존 가치관의 틀과 가족관이 깨어지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주변의 혼돈과 충격은 출가인 당사자에게도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 한국같이 효가 강조되는 문화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선종의 중흥조 육조혜능 선사의 출가 역시 이런 세간적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조계대사별전〉에 의하면 혜능 스님은 몰락한 가문의 후손으로 노모를 모시고 땔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중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발심하여 출가를 결행하게 된다.



고난에 찬 필부의 생활을 떠난 초연한 세계를 평소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육조단경〉의 원형으로 알려진 돈황본에는 "혜능은 숙세의 업연이 있어서 어머니를 하직하고 황매의 빙무산으로 가서 오조홍인 화상을 예배하였다" 라고 하여 비교적 출세간적 입장에서 선사의 출가를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후 기록들은 세간적인 가치관과 시각이 알게 모르게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사의 출가가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노모에 대한 걱정이 주류였다.

선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후의 기록들은 이 부분에 대해 참으로 친절하게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먼저 〈육조단경〉 덕이본의 기록이다.

"한 객사에 있던 한 손님이 오랜 옛날의 인연이 있었든지 은 열 냥을 혜능에게 주어 늙으신 어머님의 옷과 식량을 충당케 하고 곧 황매에 가서 오조 스님을 뵙도록 가르쳐 주었다."

이후 〈조당집〉에는 더 자세하게 다소 '오버(?)' 라고 할 만큼 사실성을 갖추고 있다. "나무를 샀던 안도성이라는 사람이 황매로 떠난 후의 노모봉양을 걱정하는 혜능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은 일백 냥을 주어 식량과 의복을 마련토록 했다."

후원금을 준 사람의 구체적 이름은 물론 은 열냥으로는 (노모가)살아있을 동안의 부양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는지 백 냥으로 늘렸다. 이는 육조혜능 선사의 출가에 대한 세간적 가치관과 출세간적 가치관의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한 주변인들의 배려다.

즉 선사의 출가정신도 살리고, 집에 남아있는 노모봉양도 남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한, 참으로 '중도적'인 묘안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하겠다.

아주 후대의 기록으로 보이는 〈남화사지〉에는 애절한 노모와의 고별사연도 있다. 탁발승의 〈금강경〉 독송을 듣고 발심한 혜능은 황매산으로 출가하겠다고 거듭 간청하나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면서 간곡히 만류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외삼촌이 "꼭 출가를 하겠다면 저 동구 밖 큰 바위에 가서 허락을 받아오라"고 했다. 혜능은 바위 앞에서 7일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며 출가허락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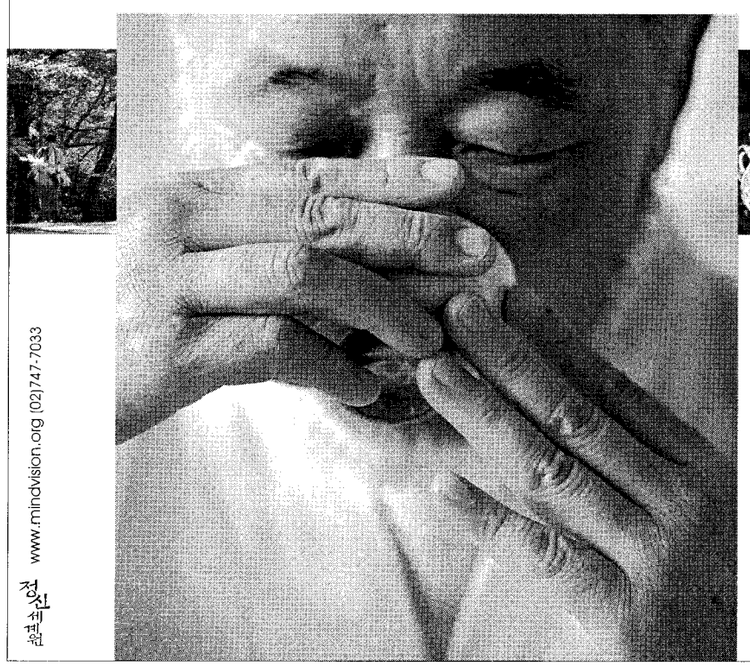
마침내 바위가 두동강으로 갈라졌다. 동네수호신인 큰 바위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이다. 이 바위는 그래서 별모석(別母石:모친과 이별한 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 삶의 틀과 가치관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 설화는 참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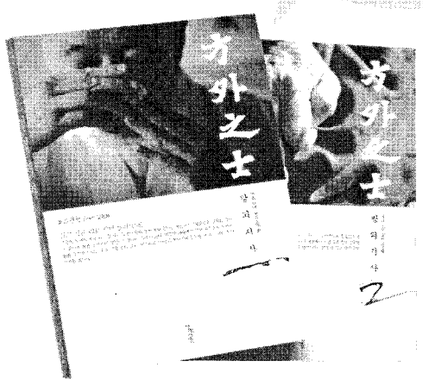
수행에는 인정(人情)이 원수라고 했다. 인정이 많으면 도심(道心)이 성글어질 수밖에 없다. 어정쩡한 타협론은 '승(僧)도 속(俗)도 아닌' 삶을 출가자들에게 요구하기 마련이다.

수행자로서의 정체성 상실은 결과적으로 불가(佛家)와 속가(俗家) 모두에 누(累)가 되는 것이니 냉정하게 본다면 '어설픈 중도론'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이론인 것이다.

수행에는 인정이 원수…정체성 상실 원인
僧도 俗도 아닌 '어설픈 중도론' 경계해야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方外之士!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뿐…
직장에 얽매여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만 하다가 한 세상 끝나는 것인가? 갑갑한 삶의 틀에서 빠져나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과연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백수의 제왕에서 무림고수까지 고정관념과 경계선 너머의 인생을 사는 13인 방외지사들에게서 진짜 잘 사는 법을 찾는다.
MBC 뉴스에 방영된 화제의 책
출간 즉시 교보, 예스24, 알라딘 베스트 진입



방외지사 1·2
조용헌 지음(강호동양학자, 원광대학교초빙교수,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저자. 현재 조선일보에 '조용헌 살롱' 연재 중)
김홍희 사진 / 각 권9,000원
방외지사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삶의 고수 13인 이야기
• 20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집을 수목원으로 일구는 시원 박태후의 귀거래사
• 뗏목 타고 서해 바다를 탐험하는 장보고의 후예 윤명철 교수의 대담무쌍한 도전 정신
• 백수의 제왕 강기욱의 "눈 먼 새도 날아다니면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온다"는 백수 철학
• 교사 출신으로 중국 제 1의 도교 문파인 화산파 23대 장문인이 된 곽종인의 여자 신선의 길
• 할리 데이비슨 타고 팔도를 돌아다니는 전직 기자 출신 시인 이원규의 지리산 생존법
• 역술계의 이종격투기장인 부산에서 입신양명한 박청화의 진기한 역술 공부 이야기
• 서울 이태원에서 계룡산으로 삶의 무대를 옮긴 산중무예 기천문 문주 박사규의 인생 역정
• 50년 세월 동안 한라산에서 화두를 잡고 초절의 삶을 사는 비구니 대각심 이야기
• 전국의 강을 두 발로 걸어다닌 신정일의 "걷다보면 길이 보인다"는 뚜벅이 인생
• 의사는 부업, 주업은 도학으로 평생 스승을 찾아다닌 내과의사 이동호의 구도 역정기
• 차 잎 냄새만 맡아도 원산지를 맞추는 품명가 손성구가 들려주는 인생 최고의 맛
• 실상사 앞에서 70 평생 발우를 만들며 살아온 지리산 터줏대감 김을생의 자연주의 인생론
• 늙어갈수록 아름답다는 나무의 철학을 깨치며 전통의 혼맥을 이어가는 소목장 이정곤의 삶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 뿐…." 오늘의 한국 땅에 사는 행복한 아웃사이더들의 인생행로를 저자의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낸 책. - 「조선일보」 박해현 기자
정신세계원 www.mindvision.org (02)747-7033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누가 밥맛을 안다 하는가



밥 먹을 때 밥 먹고

정말이지 밥 먹기 힘듭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이 밥 먹는 일입니다. 도(道)가 차 한 잔에 있듯이, 선의 비밀은 우리가 밥을 제대로 먹게 되는 날, 자연히 얻어질 것입니다.

어느 선사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스님도 도를 닦고 있습니까?" "닦고 있지." "어떻게 하시는데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에이, 그거야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까? 도 닦는 게 그런 거라면, 아무나 도를 닦고 있다고 하겠군요." "그렇지 않아, 그들은 밥 먹을 때 밥은 안 먹고 이런 저런 잡생각을 하고 있고, 잠잘 때 잠은 안 자고 이런 저런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도가 밥 먹는데 있으니, 우리는 밥 먹는 법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고, 그것을 배우는 학원이나 도장은 없는 듯합니다. 물론, 밥을 젓가락으로 깨작거리지 말라거나, 반찬을 수석거리지 말고, 소리 내서 씹지 말라는 식탁의 매너는 가르치지만,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음식의 도(食道)'는 가르치는 것 같지 않단 말씀입니다.

제가 권하는 비결은 간단한데, '음식'보다 '몸'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이 말에 보충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몸을 잘 모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불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고, 환상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착각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세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몸은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기 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은 대체로 남이 전해준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은 그만 제쳐두고, 이제 깊은 주의력으로 자신의 몸을 살피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자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시 유혹하자면, 다이어트의 효과도 뛰어나고 근본적입니다. 이 길은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야 하는 고통도 없고, 싫은 운동을 늘 해야 하는 강제도 없습니다. 편하고 쉽게 날씬해지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것이니, 다들 솔깃하지 않습니까.

제발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바꾸고 양을 줄이는 대신에, "음식을 느끼십시오!"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다면 다이어트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몸은 음식의 질과 양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연의 지혜'를 마음이 가로막고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줄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과 싸우는 길입니다. 싸움에는 소모가 따르고, 쉬 피로해지며, 그래서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다시 본래의 관성대로 돌아오고 맙니다.

몸은 음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에 전적인 통제권을 주십시오. 몸이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나는 '마음'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차 있다면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치를 밥이나 접시 위에 집어놓고, 그걸 까마득히 잊고는 다시 다른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속담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다른 일이 있거나, 고민해야 할 일이 신경 쓰이거나, 선을 보는 자리거나, 상사나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음식 맛을 느끼기 힘듭니다. 상념이 음식을 떠나 다른 곳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 경전인 <대학(大學)>에도 그런 경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음식을 먹지만, 음식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예컨대 가십에 열중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두고 온 일을 걱정하거나, 쓸데없는 논쟁에 마음을 빼앗기면 한 순간 이 자각의 끈은 어둠 속으로 홀연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는 음식을 느낄 수 없고, 마음 또한 그에 따라 혼란하고 탁해집니다. 이렇게 상념이 몸을 가로막고 있어서는 소화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먹는 음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를 넘어 음식맛과 조우할 때, 그때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다이어트 또한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자각과 유념의 끈을 붙들고 있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음식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배가 고픈 것을 알게 되는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고, 일주일 정도면 뱃살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 자연스럽게 기지개를 켜거나, 권투 선수처럼 주먹을 슉슉 뻗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으면 도 또한 멀지 않습니다. 불교가 노리는 최상승의 경지를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도(食道)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는 의심입니다. 이 의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길을 나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아니 믿어도 좋으니 앞의 선사의 말씀은 간곡히 들어주어야 한다.

"도는 밥 먹는데 있다."

밥을 먹기 위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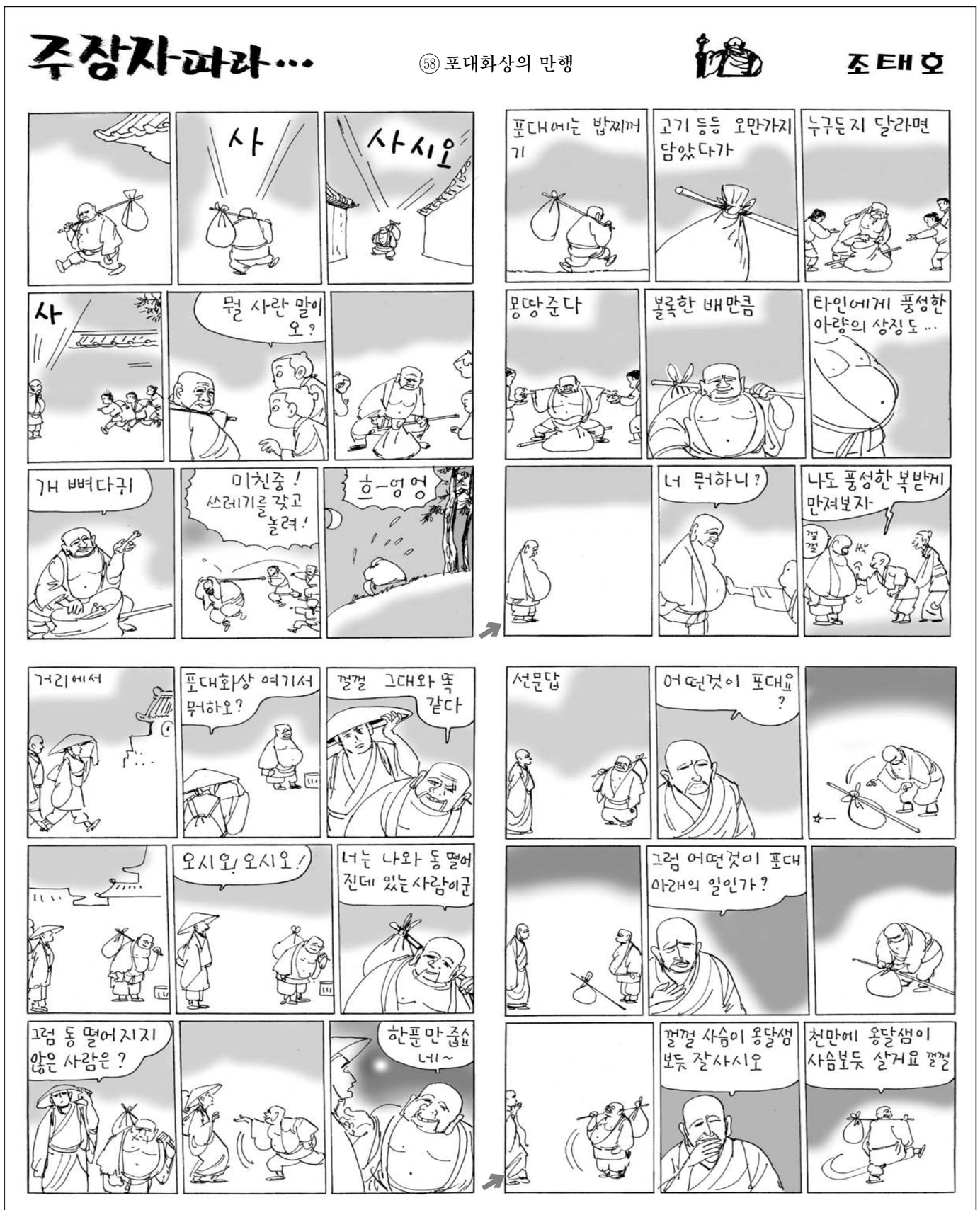
두 번째 장애는 그것을 믿는다 하여도 거기 도달하기가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천하에 어려운 일이 이 일입니다.

여기 또 의심이 가로막습니다. 그 동안 마음은 채우는 것이지, 비우는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비우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멍청하다고 놀림을 받거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까 싶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온갖 정보를 머리에 쓸어 넣고, 상대방의 의도를 거꾸로 재며, 제 욕심을 채우려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뒤처지거나 도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심신은 가뜬하고, 지각은 더 민감해지며, 지식에 대한 흡수력도 훨씬 증강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밖에서 오는 사물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훨씬 수월해지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훨씬 느긋하게 대할 수 있고, 그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에도 훨씬 관용적이게 되어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고 따릅니다. 누구나 심리적 여유가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하고 장사를 잘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라도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이는 역설이지만 진실입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진실은 늘 상식과 어긋나 보이는 법(正言若反)"이고, "진정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는 법(大巧若拙)"입니다. 그래도 아니 믿을 사람이 많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마음을 비우느냐인데…. 다른 것은 그만 두고, 위에서 적은 것 하나만 기억해주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밥을 제대로 먹을 것, 몸이 밥을 느끼도록 해 줄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의 불순물을 제발 좀 걷어내 줍시사 하는 것 하나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포대화상(?~916): 당나라 말기의 스님. 절강성 봉화 지역에서 출생. 비대한 신체, 주름진 얼굴, 불룩한 배의 독특한 형상으로 지팡이에 자루를 메고 돌아다니며 걸식했다.

네티즌 교리문답

관법수행과 화두법 수행의 차이는?

문 관법에는 용수보살의 중도관(中道觀), 원효 스님의 자성(自性) 진여관, 천태지자 대사의 지관(止觀), 세친스님의 유식관(唯識觀) 등 대승관법을 포함해 그 유형이 많습니다. 그럼 화두를 드는 간화선 수행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1 : 정진을 할수록 '관법이다 화두법이다' 등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번뇌를 끊으려는 방법입니다.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처음에 수행할 때는 관법 수행으로 수행력을 점차 쌓아가다 공부가 깊어지고 경지가 무르익었을 때에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옛날 조사들은 스승이 한번 할 하는 데 깨쳤다는 것도 자신의 수행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깨침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꼭 화두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불학자)

답2 :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도 얽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을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를 상대해 없는 것에 집착하는 무견(無見)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괴로움을 여의고 피안에 이르고자 수행을 합니다. 이는 해탈이 있다고 여기는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번민을 지우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지우려는 하나를 더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현실이 꿈과 같음을 단번에 실감하면 번뇌가 즉 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꿈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극하는 놈이 무엇을 집착할 것이며 무엇을 두려워 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얻을 것이며, 무엇을 잃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바탕 잘 놀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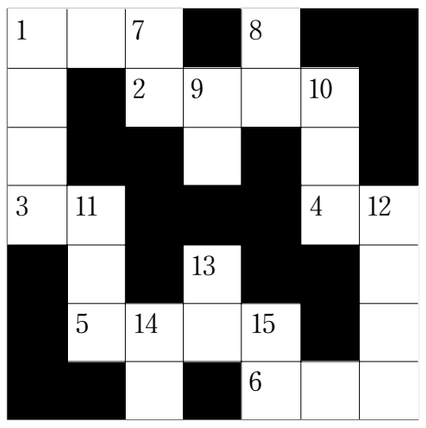
관법과 화두법은 아무런 차이도 없고 차이점은 이름뿐입니다.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개울)

답3 : 관법수행과 화두법 수행은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보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잘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원효 스님이 천태지자 대사의 5시 교판을 비판하며 <아함경> 등의 소승경전을 외면하지 않았듯이 통불교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간화선과 관법이 불협화음 없이 조화롭게 계승되리라고 봅니다. 가령 원효 스님의 자비관과 6바라밀 수행은 깨달음만 강조하는 한국 선수행의 보완점이라 생각합니다. (금강소석)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삼정의 하나로 영의정, 좌의정, ○○○ 2. 중매쟁이 할머니를 칭하는 사자성어 3. 불국사가 있는 도시 4. 괘사와 효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5. '등잔 밑이 어둡다'란 사자성어 6.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뜻하는 경제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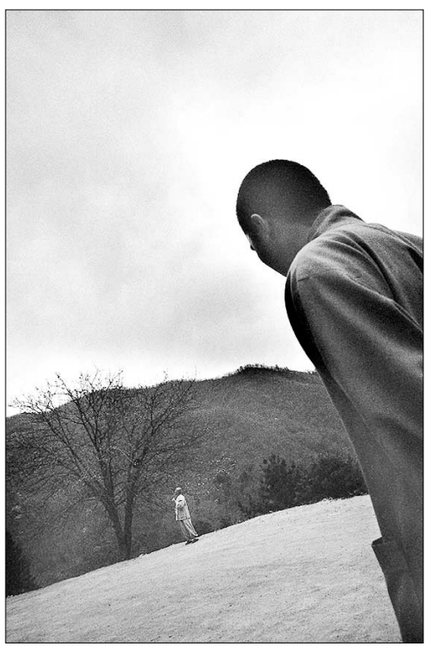
세로 1. '소귀에 경 읽기'란 뜻의 사자성어 7. 1월을 나타내는 다른 말로 '○○ 대보름' 8. 근소한 차이란 뜻으로 '○○의 승리' 10. 불교에서 말하는 십계중 하나로 사바세계라고도 함 11. 시간이 덧없이 빨리 흘러감 12.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 치르는 불교식 제례 13. 누워 있는 불상 14. 여름 또는 겨울 안거를 끝마치는 날 15. 이름난 장소 '관광○○'

예술가와 수행자는 한끝 차이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
박영택 지음
아름다운 인연 펴냄
1만5천원

박생광 · 김기창 · 중광 스님 등 禪에 취한 미술가 50인
삶과 불교, 작품세계 다양한 에피소드로 엮어


이갑철의 '해탈을 꿈꾸며'.

'예술가는 수행자나 다름없다. 그들은 예술이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다. 그래서 작가들 대부분은 자신의 작업을 일종의 수행 과정과 동일시한다.'

박영택 경기대 미대 교수(43 · 미술평론가)가 선(禪)에 심취한 미술가 50인을 만난 뒤 그들에게 느낀 공통분모다. 박 교수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예술가들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이들의 열정이 성불(成佛)하고자 사찰에서 정진에 힘쓰는 스님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가 만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작업의 주제를 설명하는 단어로 인연, 업, 윤회, 순환, 상생 등 다분히 불교적 사유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낸다.

최근 박 교수가 펴낸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는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정상급 작가들이라 표현해도 무방한 50인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한 책이다. 특히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소개돼 있어 불자들에게는 더욱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


김아타의 '뮤지엄 프로젝터 #039'.

이 책에는 유명 사찰에서 한번쯤 마주치게 되는 탱화나 불상 조각들을 제작한 작가의 설명과 작품 세계도 담겨 있어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함께 해준다. 작가들도 박생광을 비롯해 김광문, 김아타, 김호준, 백남준, 홍선웅 등 근현대 작가들이어서 일종의 '근현대 불교작품 100배 즐기기'란 부제를 달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예를들면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미륵대불'은 한국 최초의 근대 조각가인 김복진(1901~1940)이 만든 것이다. '미륵대불'은 40세라는 젊은 나이로 운명을 달리한 그가 말년에 제작한 것인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민족 해방의 꿈을 다분히 초월적인 미륵의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지은이는 설명한다.

운보 김기창(1914~2001)이 그린 '새벽 종소리'는 지은이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를 화면에 절묘하게 가시화한 작품으로 기억된다고 지은이는 회고한다. 운보는 이 작품을 발표하며 "충청도의 어느 사찰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종소리에 잠이 깨 절간을 거닐다가 문득 영감이 떠올라 그렸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보는 알다시피 청각 장애인 화가다. 귀가 어두운 사람이 종소리에 깼다는 사람이 이상해서 지인이 "어떻게 종소리를 들었냐"고 묻자 운보는 얼른 펜을 잡더니 "꼭 보아야만 사물의 실체를 아는 것이 아니요, 꼭 소리를 들어야만 깨는 게 아니다"는 선문답 같은 글을 써놓았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다양한 삶의 에피소드들도 등장한다. 한국 근대 미술사에서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천재화가로 꼽혔던 장욱진(1917~1990)은 어느날 자신의 부인에게 초상화라며 작은 불상 모습을 그린 '진진묘 보살'을 건넸다고 한다. 특히 이 작품을 그릴때에는 수행 하듯이 7일 동안 밥 한 숟가락 , 물 한 모금 입에 안대고 날밤을 세웠을 정도로 열정을 바쳤다고 지은이는 전한다.

광기의 예술가로 불렸던 중광 스님(1935~2002)은 항상 무애의 자유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것은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는 평소 스님의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왼손, 오른 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절대절명의 필법을 무시한 채 거꾸로 필순을 진행해도 아름답고 기운찬 글이 됐을 정도라고 한다.


운보 김기창 作 '새벽 종소리'.

'인생은 공, 파멸'이란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진규(1922~1973)는 인생이 공(空)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산다는 것과 작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자문하며 작업한 조각가라고 소개한다. 특히 권씨는 말년에 불교를 열심히 신봉했는데 그것은 죽기 직전에도 잘 나타난다. 자살을 결심한 그가 신변을 정리하고 경상도의 어느 절에 내려가 며칠간 묵으면서 친하게 지내던 스님과 마지막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을 정도라고 한다. 또 선을 형상화 하려고 노력했던 조각가 조인구의 삶도 자못 흥미롭다. 출가한 형님을 둔 독실한 불자인 조씨는 번잡한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낮에는 돌을 쪼면서 생각에 잠기고 밤에는 좌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지은이는 소개한다.

이처럼 이 책은 딱딱한 작품 해설이 아닌 구성이 다양한 에피소드 중심으로 엮어져 있어 미술관련 책이라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책 장을 덥고 나면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근현대 불교작품들을 큐레이터의 안내로 총 망라해 모두 감상한 느낌이 든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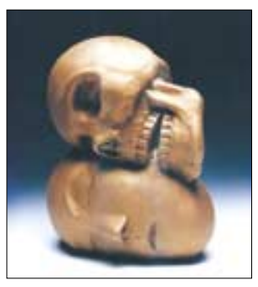


사진 위부터 서은애의 '생활 십일면 천수관음도', 오순환의 '민불', 이일호의 '생과사'.

전문가 서평



아들, 일어나다
베리 닐 카우프먼 지음 | 최영희 옮김
열린출판사 펴냄 | 9천원

영화 '말아톤'이 개봉됐을 때 주인공 초원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몇몇 아이들과 관람을 하며 내가 소망했던 것은 '이 영화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자폐를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도가 낮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특수교사인 나 자신도 '포기'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나도 한 인간으로서 갖는 감동에 가슴이 뜨거워 졌다.

지난 해 나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학부모님들과 지인들에게 '아들 일어나다'란 책을 선물했었다. 이 책의 내용은 자폐아를 정상아로 만들어 낸 한 가족의 실화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토론 주제로 많아 쓰이기도 했었다.

베리 닐 카우프먼과 사마리아의 행복은 세 번째 아이이자 첫 번째 아들인 라운이 태어나는 순간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라운이 태어나면서부터 허약하고 알 수 없는 염증을 앓는 등 불길한 징조들을 겪으며 조금씩 긴장으로 바뀌어야 했다. 그러한 1년이 지나면서 라운이 자폐아 증상을 보일 때 그 긴장은 극점에 달했다. 그러나 부부는 아이의 불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포기하지마 당신은 위대하다

"우리는 라운의 행동양식이 굳어지기 전에, 주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 애가 심각한 감정 문제를 유발시키기 전에 그리고 그 애가 지닌 평화와 기쁨이 순박하고 때 묻지 않은 동안에 이게임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폐아를 둔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이 책의 저자인 라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의 불행을 인정하지 않은데서 '라운의 기적'은 싹을 틔웠다. 전문가들, 의사나 간호사, 심리학자들이 지식과 관습의 울타리 안에서 라운의 상황을 자폐로 인정하려는 것을 보며 분개하는 부모의 사랑은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다.

라운의 부모는 자폐증상은 단지 특별할 뿐이고 반드시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로의 역할을 나눈다. 아버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도서관을 찾아 자료집과 보고서를 탐독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24시간을 라운과 함께 보내며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밤늦도록 부부는 아이의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 날마다 일지를 작성해 비교하고 분석하기를 잊지 않으면서 친절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러던 어느 날 라운이 냉장고 앞에서 우는 모습을 연출해 낸다. 그것은 바로 뭔가를 먹고 싶다는 적극적인 자기표현이었다. 이로부터 라운의 기적은 탄력을 받게 된다. 사실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원래대로 돌아갔을 뿐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본래로의 환원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눈물과 믿음과 사랑… 가장 큰 영양분은 바로 희망이었다.

"기적의 주인공 라운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포기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 ■노보영(서울 정진학교 교사)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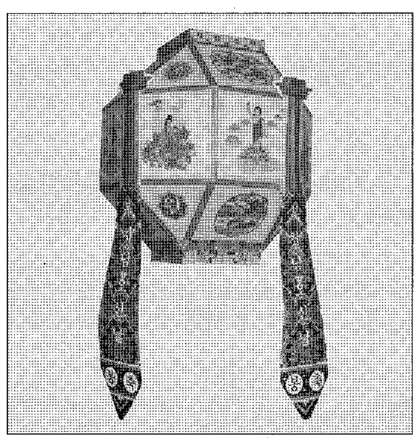
제23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각 사찰에서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지도하시는 스님, 법사님, 선생님 그리고 각 분야의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매년 전 · 후반기로 나누어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들로 새롭게 짜여진 이번 23기 강좌는 어린이 · 청소년 교화와 포교에 자신감 고취는 물론, 생활의 즐거움이 2배로 늘어나며, 불교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흘륭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기 간 : 불기 2549(2005)년 3월 28일~ 6월 2일 (종합실습 포함 총 72시간)
▣ 강 의 시 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 장 소 : 서울노인복지센타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100m)
▣ 대 상 : 만 18세 이상으로 불교레크리에이션에 관심있는 불자
▣ 강 좌 내 용 : 이 론 - 레크리에이션개론, 진행의 실제, 모임진행법
교리부문 - 포교론, 포교방법론
댄스부문 - 포크댄스, 레크댄스
음악부문 - 노래 지도법(싱어롱), 찬불가 & 율동
생활부문 - 마술, 풍선데코레이션,특강
게임부문 - 실내 · 실외게임, 전래놀이, 게임 진행의 실체
▣ 참 가 비 : 350,000원 (교재, 재료비, 실습비 포함)
▣ 온라인접수 : 국민은행 006-01-0801-770 /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김재성)
▣ 문 의 : ☎ 02)738-7860, 739-4967 / FAX 02)738-7863
홈페이지 http://www.burec.org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urec

※특 전 : - 수요강좌 무료수강(강의 기간 내)
- 교계 행사(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 2급 지도자 응시자격 부여(과정 60시간 이상 이수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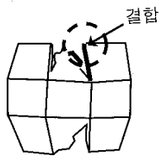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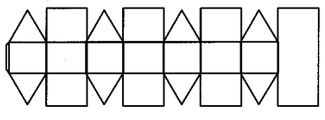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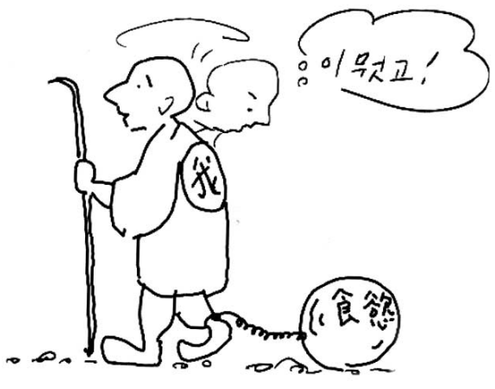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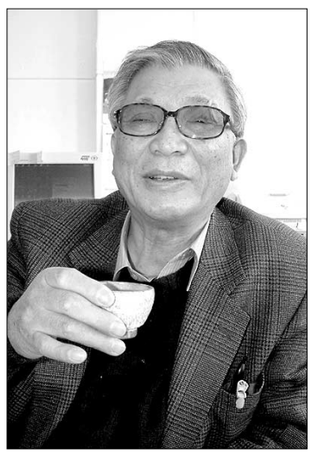
넘치는 식욕 이를 어찌할꼬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 전재근 글/그림 | 종이거울 | 9천원

"맛 판단하는 것은 혀가 아닌 마음"
식품학자의 맛 탐구 보고서





식품학자인 전재근 서울대 교수는 "맛을 느끼는 주인인 나를 바로 알아야 나와 맛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맛있는 것'을 찾으려는 현대인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잡지에는 연일 '맛집'이 소개되고 '원조'나 'TV에 나온 집'이라는 간판을 단 음식점은 장사진을 이룬다.

그렇다면 도대체 '맛'은 음식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심리상태가 만들어 낸 것일까?

전재근 교수(서울대 식품공학과 · 사진)는 최근 펴낸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에서 "음식 맛을 판단하는 것은 마음의 장난"이라고 주장한다. 과학적으로 볼 때, 맛은 혀에 있는 감각기관인 미뢰가 음식이 주는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꿔 신경중추에 전달함으로써 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맛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혀가 아니라 마음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먹는다는 행위는 우리에게 너무 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 그 중요성이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먹고자 하고, 음식 맛을 판단하는 마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이 책입니다."

책에서 전 교수는 "먹는다는 행위와 욕망을 끊을 수 없다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편으로 이용해보자"고 권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것을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의 마음을 고찰해 봄으로써 먹는다는 행위에 따르는 마음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먹는 것도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심오한 행위입니다.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을 견성(見性)이라 하는데 먹는 행위를 참구해 본래 자기의 성품을 찾는 것을 식성(食性)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는 음식'편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우리 몸속에 들어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한다. '먹는 사람'에서는 자신이 금연과 채식주의를 하게 된 경험을 소개한다. 참선을 통해 '먹고 싶어 하는 이 놈이 누구인가'를 참구하면서 서서히 담배와 고기에 대한 욕망을 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전 교수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육체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먹는 마음'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감 인식파(Cognitive Food Sensory Curve, CFSC)'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음식을 먹고 나타나는 뇌파의 변화를 감지한 CFSC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토대로 음식 맛을 느끼는 것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의 마지막 장에 실린 '한 식품학자의 맛 탐구 보고서'는 "음식의 맛으로 인해서 깨닫고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능엄경> 구절을 인용해 이러한 '마음 찾기'의 결과를 보여준다.

"나는 음식을 다루는 학자로서 맛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맛보는 맛이 나의 본 성품에 통해 있고 억겁에 통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식품학자로 물질적 현상에만 몰두하여 붓다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맛이 물질 속에 있는 줄 알고 있었을 뿐, 맛을 보는 나와 맛의 참 모습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혜담 스님 지음, 불광출판부, 8천5백원)=경기도 각화사 주지 혜담 스님의 법문집. 1993년부터 96년까지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1분가량의 방송 원고를 정리해 모은 책이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했던 법문인 만큼 글 주제도 여름휴가와 예금계좌, 명예욕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라 쉽게 읽힌다.



■ **<만다라>**(김성동 지음, 청년사, 9천8백원)=김성동씨의 소설 <만다라> 개작판이 청년사에 다시 출간됐다. 1979년 출간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소설의 개작판에서는 주인공 법운이 차표를 찢고 사람들 속으로 내달리는 본래의 결말과 달리, '피안'이라 쓰인 차표를 들고 정거장 쪽으로 내달림으로써 끊임없는 구도의 여정, 인간의 자유와 본질에 다가가려는 끝없는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 개작판 <만다라>는 2001년 출간된 바 있다.



■ **<신행수첩>**(5천원, 정우서적)=불자들의 신행을 도와주는 <신행수첩>이 새로 나왔다. 그동안 의식문은 세로쓰기, 우리말 해석경전은 가로쓰기를 고집하였으나 이번 수정판부터는 전면 가로쓰기를 채택해 훨씬 읽기가 수월하다. 또한 <금강경>, <아미타경> 등을 왼쪽 페이지에는 한문을, 오른쪽 페이지에는 우리말 해석을 달아 이해를 높였다.

티베트 불교 꼼꼼히 짚어보기



티벳 불교의 향기 최로덴 지음 | 대숲바람 | 9천5백원

티베트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의 땅'이다. 그 신비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티베트 불교라 할 수 있다. 밀교의 근본사상이나 수행체계는 배제된 채, 비밀스러운 의식이나 주술 등 표피적인 현상들만 알려진 탓이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 핵심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책 <티벳 불교의 향기>는 수행의 관점에서 현교와 밀교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은이는 인도 다람살라에 머물며 티벳불교고등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최로덴씨. 로덴은 달라이 라마가 내린 법명이다. 지은이는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인도국립박물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티베트어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성대원사 티벳박물관 홈페이지(www.tibetan-museum.org)에 티벳불교 입문'이란 제목으로 연재됐던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했다.

티베트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7세기경이다. 후기 인도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티베트 불교는 소승(Hinayana), 대승(Mahayana), 금강승(Vajrayana)의 삼승에 관한 경전, 가르침, 수행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티베트 불교는 심오하고 풍부한 전통을 가진 불교라고 할 수 있다.

1부 '불교, 그 해방의 이름이여'에서는 티베트 불교 수행자들이 초심자들을 위해 법문할 때 가장 먼저 설명하는 소승, 대승, 금강승의 수행의 길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부 '꺼지지 않는 불꽃, 이타의 길'에서는 수행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타심과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티베트 수행자들이 이기적인 습관에 길들여온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지은 게송인 '승리자의 아들, 보살의 37수행법'과 '수심팔훈(修心八訓)'을 우리말로 옮겼다. 3부 '탄트라, 금강승의 길'은 티베트 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탄트라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탄트라 수행은 현교(顯敎)에서 깨달음의 길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튼튼하게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지은이는 이 장에서 탄트라란 무엇이고 그 특징과 유형, 입문의식, 수행전통 등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본래 마음을 드러낸다는 '무상(無上) 요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귀찮은 모기도 쓸모가 있네



모기보시 조재훈 글 | 이호백 그림 | 6천500원

여름밤, 찌는 듯한 무더위와 함께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모기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모기를 쫓기 위해 모기향을 피우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이유도 바로 모기가 '귀찮은 곤충'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최근 출간된 <모기보시>는 모기도 소중한 생명체라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선뜻 공감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를 던져준다. 책의 주인공 명수는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49일간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 처음으로 절을 찾는다. 그곳에서 명수는 모기들이 실컷 피를 빨 수 있도록 윗옷을 벗고 나무숲에 앉아 있는 큰스님을 보고 의구심을 갖게 된다. 더구나 몸살이 난 어머니를 보러 명수네가 세 들어 사는 지하 방을 찾아온 큰스님은 "언젠가는 부처님께서 모기도 귀하게 쓰실 때가 있을 거야"라며 방안에 있는 모기약을 모두 거둬간다.

큰스님이 다녀간 후, 모기약을 쓰지 않는 명수네 방에는 모기들이 득실거려 고생하지만 모기가 잠든 명수의 눈꺼풀을 쏘는 덕분에 어린 동생들을 화마(火魔)로부터 구하게 된다.

책은 모두가 귀찮아하며 아무 생각 없이 죽이는 모기도 사실은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부모를 따라 처음 절에 온 아이의 눈을 통해 불상과 불구가 갖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으로 서울 한빛 맹아학교장을 역임한 조재훈씨가 글을 썼고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로 2003년 뉴욕타임즈 우수그림책에 선정된 이호백씨가 그림을 그렸다. 책 수익금의 일부는 환경보호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외	더북컴퍼니
3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림
5	조용헌의 사찰기행	조용헌	이가서
6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7	방외지사	조용헌	정신세계원출판국
8	입보리행론	산티데바	하얀연꽃
9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학고재
10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도서 안내:(02)737-0695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억겁 무명의 체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안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이것이 사경책이다!!
(사경하신 후 부처님 복장용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반야심경
• 경전사경 제1호
• 내지: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접지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문금강반야바라밀경
• 경전사경 제2호
• 내지: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접지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글반야심경
• 경전사경 제3호
• 내지:100P 미색모조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실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글금강반야바라밀경
• 경전사경 제4호
• 내지:100P 미색모조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실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문관세음보살보문품
• 경전사경 제5호
• 내지: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접지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글관세음보살보문품
• 경전사경 제6호
• 내지:100P 미색모조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제본:한장본 실제본 (220㎜×310㎜)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한글·한문반야심경사경지
• 한지낱장 (636㎜×313㎜)
• 값 400원

한글·한문보문품사경지
• 한지(3장 1조) (636㎜×313㎜)
• 값 1,200원

한글무상게사경지
• 한지낱장 (636㎜×313㎜)
• 값 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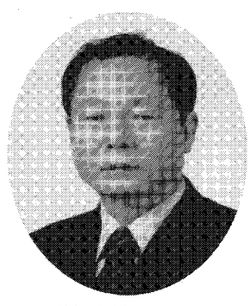


붓펜(사경펜)
• 제브라붓펜 1호 (모필-세자) 값 7,500원
• 제브라붓펜 2호 (모필-중자) 값 7,500원
• 리필용 카트리지 (1·2호리필용) 값 2,500원
• 제브라붓펜 3호 (경필-세자) 값 2,000원
• 제브라붓펜 4호 (경필-세자) 값 1,800원
• 제브라붓펜 5호 (경필-중자) 값 1,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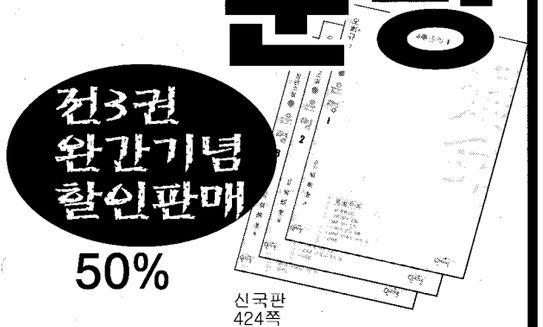
도서출판 동 진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051)515-8888(代)
FAX:(051)508-0101
H·P:011-554-2988

동 진 기 획
E-mail:tunhwang@yahoo.co.kr
www.dongjin.biz
www.tunhwang.com
www.동진기획.com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금강반야바라밀경 변상도(1357년 새김 · 보물 제877호)가 이번 전시회에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나무 결 사이 사이 부처님 숨소리 들리는 듯

'한국 고판화展'
(4월 3일 까지, 서울 일민미술관)

고려 · 조선시대 불경 목판본 30여 점 전시
전주 덕운사 '금강경' 판화변상도 공개 '눈길'
동북아 3국 현대展도 열려 나라 · 시대별 비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을 가진 나라. 인쇄문화에 일찍이 눈을 뜬 우리나라는 특히 목판인쇄를 통해 역사와 예술을 표현해 왔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서(古書)는 주로 목판본으로 제작됐고, 문자든 그림이든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종교에서 교화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불교와 목판화의 발달이 그 궤를 같이 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 세종로 일민미술관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불경 목판본 3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직지사 직지성보박물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용주사 등 전국 곳곳의 희귀 고판화들을 한데 모은 '한국의 고판화전'을 4월 3일까지 연다.

이번 고판화전에는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일반에 좀처럼 공개되지 않았던 전주 덕운사 제작 <금강경> 판화변상도(1357년 새김 · 보물 제877호)가 전시된다. 고려시대에는 대장도감(大藏都監 · 고려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의 판각업무를 담당하였던 국가기관) 등의 국가 관청에서 불경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방 사찰에서 만들어진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일민미술관 수석큐레이터 김희령 씨는 "불경 앞면에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을 나란히 형상화한 변상도 역시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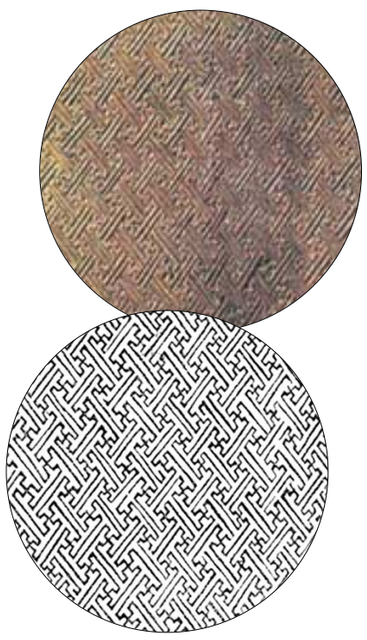
고려 대장도감에서 제작한 판각으로 조선시대에 찍은 <유마힐소설경>과 <현우경>(1245판),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화엄경>(1251) 판화 변상도 등도 고려시대 진열대에 올랐다.

조선시대 작품으로는 15~18세기의 직지사 소장품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제작된 <묘법연화경>, <석씨원류>를 비롯해 <부모은중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의 판본이 있다. 1665년 김천 직지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 변상도와 1796년 수원 용주사에서 간행한 <부모은중경> 변상도는 목판 및 동판과 함께 진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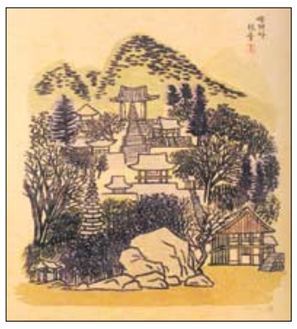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이 같은 불교관련 목판화 이외에도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의 유교판화를 비롯해 '화성성역의궤' 등 궁중 의궤나 반차도의 목판본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현대회화를 능가하는 구성미가 돋보이는 '수선전도(首善全圖)', 만자문(卍字文) · 연꽃무늬 등을 사방으로 촘촘히 새긴 능화판(책표지 · 보자기 등에 무늬를 박아내는 목판) 전시물 등도 공개된다.

한편, 한국의 고판화전과 함께 열리는 '동북아 3국 현대목판화'전에서는 불교를 주재로 목판 작업을 벌이는 현대 목판화가들의 작품도 접할 수 있다. '사인암' '쌍계사' '미황사' 등을 출품한 홍선웅, '도피안사전도'를 선보인 류연복 등의 한국 작가 작품과 함께 사찰 그림을 다수 그린 일본의 유명 목판화가 모리무라 레이 등의 판화도 다수 전시돼, 옛 목판화와 비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02)2020-2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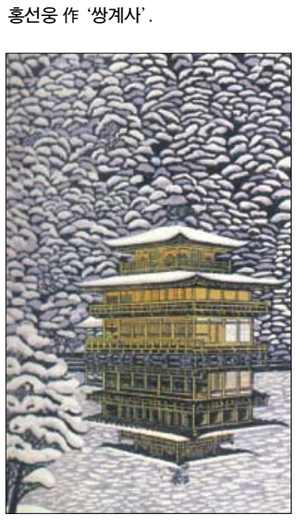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만자문판(위)와 만자문판 탁본(아래)(19세기 새김).



홍선웅 作 '쌍계사'.



일본 모리무라 레이作 'Kinkakuji Temple'.

이태호 명지대 박물관장이 말하는 목판화 감상포인트

1920년대 한국에서 활동한 독일인 신부 에카르트(Andreas Eckardt)는 '한국미술사'(1929)에서 중국이나 일본 미술과 다른 조선 문화의 고유한 유물로 고려 불경과 조선 후기 서적의 목판화를 들고 그 우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나무와 칼의 예술인 목판화는 불경의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별로 독특한 예술세계를 드러낸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목판화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유추되는 석탑 문양의 다라니가 화엄사 석탑에서 발견되면서, 신라때 불경의 삽화로 그려지는 변상도 판화가 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고려-귀족적 세련미
조선-질박, 민화 보는 듯
용주사 소장 '부모은중경' 최고의 회화성 자랑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왕실과 국가의 후원으로 방대한 불경 판각사업이 진행됐기에, 당시 목판화는 높은 완성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고려 문화의 귀족적 세련미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붓으로 쓴 사경(寫經)을 개별적으로 제작해 봉헌하는 일이 유행하면서, 불교판화는 사경의 변상도를 방불케하는 정밀함을 특징으로 삼게 된다. 마치 붓으로 그린 것처럼 세밀하고 촘촘한 각선(刻線)이 돋보인다.

11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송 원대 대장경과 구별되는 고려적 요소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목판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북송 판을 바탕으로 제작한 '어제비장전'의 경우 험준하고 뾰족한 암산(巖山)으로 채워진 중국본과는 달리, 산 능선을 부드럽게 표현해 흡사 고려 고유의 실경산수화처럼 느껴진다.

이후 <금강경>과 <부모은중경> 등 본격적인 삽화 형식의 판화 불서가 등장하면서 경전 내용을 요약한 그림이 더욱 다채로워진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삽화본 <금강경>의 경우 상단에는 경문(經文)의 내용을 시각화한 판화가 배치됐고, 하단에는 경문이 수록돼 있다. 그리고 맨 끝에는 '호법선신장도(護法善神將圖)'를 넣어 불경의 장엄성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 못지않게 많은 수의 불경들이 제작됐다. 지방 곳곳의 사찰에서 불경 목판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형태는 다양화되지만, 목판 제작이 민간에서 남발된 까닭에 세련미가 떨어지고 묘사도 투박해진다.

조선시대 목판화의 고졸한 형태미와 질박한 선 맛은 조선 민예의 감성과 상통한다.

그러면서도 명 · 청대의 다색판화를 수용하지 않고 청나라의 동판화도 거부했기에 조선시대 목판화는 단색 선묘의 한국미를 오롯이 간직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는 최고의 예술성을 구현한 목판화들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정조 때 왕실에서 제작해 용주사에 하사한 <부모은중경>의 경우 조선시대 불경 판화 가운데 가장 뛰어난 회화성을 드러낸다. 기존의 서술적 표현을 자제하고 모필 선묘의 맛을 최대한 살린 김홍도 양식의 판화 변상도다. 생생한 판각 솜씨는 그 판 자체가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여래정례> (1796년 새김).

강신재 기자

불화가 박정자씨 불교파노라마 박물관 건립발원展

불화가 박정자(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 후보)씨가 3월 19~23일 광주 남도 예술회관 1층에서 네 번째 불화 전시회를 연다.

불교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을 발원하며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고려불화의 섬세한 문양을 재현한 '삼세 여래 팔대보살'이 공개된다. 이외에도 탱화 전체를 순금으로 제작한 '미타회상도' 등 불화 250여점을 선보인다. 불교 파노라마 박물관은 나주 심향사가 건립 추진하고 있는 불화박물관으로, 박 씨는 이번 전시작을 중심으로 박물관 내부를 꾸밀 예정이다.

박정자씨는 "이번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을 통해 불화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읽을 생각"이라며 "불화를 매개로 불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61)333-4472

강신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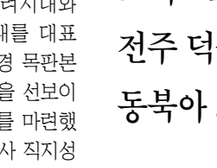
'각종 통증완화' 쑥뜸기 좌훈기 개발 출시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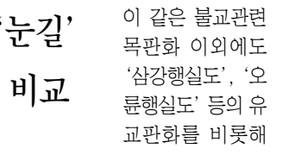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되고, 쑥뜸시 화상 위험이 없으며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편리. ISO 9001 인증제품 - 쑥뜸기, 좌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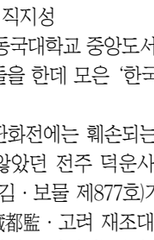
신상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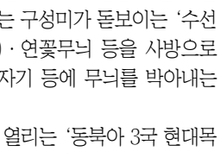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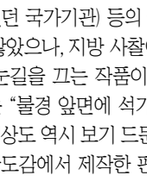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2)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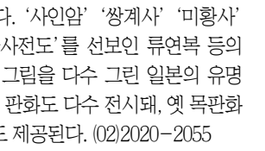


오행 좌훈기
적용혈자리 : 회음혈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신경성과민대장염, 성기능개선, 갱년기 장애





음양 쑥뜸기(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대리점 · 쑥뜸방 모집중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모사포유 www.moxa4u.com
D.M.I산업, 대구한의대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체인점 및 대리점 문의 : (02)521-6353~4
제품구입문의 : (02)598-9834

제3기 영남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본 연구 보존회에서는 영남 범음 · 범패에 뜻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및 축원 송주 등.
- 중급과정 : 신중작법 ,대령관욕, 각단 청, 상주권공, 각종 시식, 다비식,점안의식 등.
- 작 법 반 : 바라 작법, 승무 작법 등.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수시접수함.
제3기 개강일 2005년 3월 17일 (목) 오후 3시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회 소정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 보존회는 초 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 사찰 창건 및 운영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교육원 위치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아파트 상가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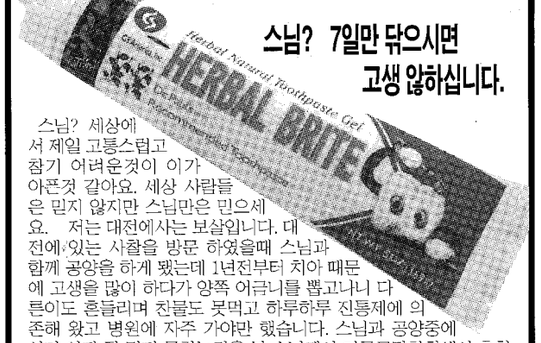
● 문의전화 : 055)745-8419, 011-867-8419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원장 한 파 강사 원 명 합장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능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2>



자살 충동 이겨낸 비구니

참 멋진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크린에서 그녀의 연기를 볼 때마다 '참 소탈하면서도 실감나게도 연기하는 구나' 감탄을 하였지만 그녀에게 그토록 심한 우울증이 있으리라고 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 어쩐지…. 그래서 그녀의 연기에는 슬몃슬몃 짙은 우수가 풍겨 나왔구나.'

그녀의 자살소식을 듣고 난 뒤에야 이렇게 억지로나마 추리해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자살로까지 몰고 갔을까요? 구구한 억측만 갑돌 뿐 어느 것도 당시 그녀의 절박했던 심정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는 몹시 힘들고 괴로워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살 직전에 불면증, 정신적인 혼란과 갈등,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였다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명연예인이기에 원활한 병원치료도 힘들었을 것이요, 어쩌면 심한 우울증 환자이기에 치료조차도 적극적으로 받으려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문득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의 직전까지 갔던 비구니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기에

목을 매기전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누구나 불완전 존재라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욕정으로 괴로워하고
지금까지 계속 들떠 있어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번뇌에 사로잡혀 쾌락적인 생각만 좇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짝 야위고 파리하니 흉한 몰골로
저는 7년을 헤맸습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밤이고 낮이고
안락을 얻기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끼줄을 구해들고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가기 보다는
이만 목을 매는 것이 낫겠다' 고 생각하면서.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 나뭇가지에 매고,
저는 그것을 목에 걸었습니다.
순간 저의 마음은 해탈하였습니다."(<테리가타> 시하비구니의 노래)

<테리가타>의 내용을 음미해보면 7년 동안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이고, 낮이면 그로 인해 지치고 힘들고 식욕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택한 길은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하 비구니는 자살에 '성공'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살아서 깨달음에 이르렀고 그런 까닭에 자신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이렇게 담담히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테리가타>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자살 직전에 삶 쪽으로 돌아섰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하 비구니의 말을 역추적해본다면 그녀가 그토록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이유는 바로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계속 들떠 있었기 때문'이고, '번뇌에 사로잡혔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와 '이 세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파악해서 알아채고 인정하는 것, 즉 세상은 항상 하지 않고 '나'라는 것은 영원불멸하지 않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것을 말합니다. 덧없고, 덧없기 때문에 괴롭고, 괴롭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없다는 삼법인의 이치를 알아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보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덧없는 나를 향한 이런저런 번뇌 망상들이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뇌 망상이란 덧없는 나를 바르게 보거나 생각하지 못한 까닭에 덧있다고 착각하고서 '그런데 왜 이런 거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지?', '나는 이러저러해야하는데 왜 그리 안 되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채근하고 옭아맴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런 생각을 품는 자신에게 깊은 자괴감을 품을 것이요, 마음은 평온을 찾느라 부질없이 이런저런 대상을 좇아다니게 될 것이며, 마음이 한 대상을 찾아 안주하지 못한 까닭에 수많은 번뇌가 그를 옴쪽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살의 충동을 이겨내어 훌륭하게 깨달음을 완성한 시하 비구니의 노래를 읽으면서 앞서의 여배우를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기의 절정을 달리며 뭇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목을 매기 직전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요, 그 속에서 완전한 자기를 찾아 모두가 똑같이 일생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줄 이가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삶을 향한 정견(正見)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하여 한 줌의 재가 되고 만 그녀가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한창 공부할때의 당당함이 풍겨나는 대선 스님은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오히려 도가 잘 일어나는데 요즘은 모든 면에서 너무 풍족해져 선방에서도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죽비의 기상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아쉬워 했다.

순간 순간 재발심하라

지상 백고좌

대선 스님

(완주 요덕사 주지)

요즘은 뭐든지 풍족해 근기 낮아져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죽비' 그리워

대선 스님과 수인사를 끝내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듣고자 한다"며 찾아온 뜻을 밝히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공 스님이 말씀하시길 '진언(眞言)은 불출구(不出口)'라. 참 말은 입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재아에서 비승비속으로 살고 있는 이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한 방 먹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든다.

평생 정진으로 일관한 큰 스님의 '한 소식'을 말로써 이해한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근처라도 갈 요량으로 스님의 초발심을 여쭈었다.

"나는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을 모시고 공부하던 좋은 시절에 출가했어요. 노 스님들의 귀염만 받고 어리광 피우다 세월만 갔죠. 아직도 '너 이놈, 어찌 그리 시원찮은 짓을 하느냐'고 호통치는 노 스님들의 음성이 귓가에 생생합니다."

"도봉산 망월사 춘성 스님을 10년간 시봉하셨다던데, 춘성 스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요"

"참으로 멋진 대장부셨어요. 평생 옷 한 벌 뿐이셨어요. 소지품은 물론 책 한권 소유하지 않으셨죠. 조실이시면서 당신 방도 없었어요. 팔십 노장님이 선방에서 사셨어요. 선방 중앙에서 정진하시다가 피곤하면 옆으로 팔베개하고 1시간가량 눕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불은 '부처와 멀어지게 하는 것(離佛)'이라며 평생 덮지 않으셨습니다.

노 스님은 일제 때 <화엄경> 80권을 통달한 화엄의 일인자셨습니다. <화엄경>에 뭔가 있는 듯하지만 심(心)뿐이니 조주 스님의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법당에 노 스님의 사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마치 춘성 스님을 옆에서 시봉이라도 하듯 '우리 노 스님'하면서 꽃꽂한 선방 수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조심조심 수행 이야기를 이어간다.

"춘성 노스님은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80세에도 목탁석을 했어요. 도봉산이 쩌렁쩌렁 했습니다. 잡다한 일도 손수 하시며 당당하게 사셨기 때문에 시봉드는 스님이 할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철 스님 회상에서 정진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70년대 초, 내가 해인사 선원장을 맡아 한철 났어요. 100여명 수좌가 막바지 일주일 용맹정진하는데 장군죽비 소리가 밤낮없이 콩볶듯 했어요. 부목이 만들어온 물푸레나무 장군죽비 10짐이 다 부서졌으니 엄청 맞았어요. 그래도 누구하나 불평하는 이 없이 정진했습니다. 부처님에게 경책 받는 것이기에 신명나고 환희심까지 일었던 것이죠. 사자가 밀림에서 큰 소리를 외치며 나오는 기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죽비였어요.

옛부터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한다고 했어요. 춥고 배고파야 도가 일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 부처님 진신사리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국사봉 원국사

강원도 횡성의 국사봉 제상바위 중턱에 위치한 원국사는 지혜의 길, 선행의 길, 믿음의 길로 모든 생명을 다 제도하겠다는 영원한 생명 아미타부처님의 기도도량이다.

원국사는 울창한 나무들이 곳 곳에 늘어서 있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용천수는 공덕을 갖춘 약수로 달고, 차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청수로 영험하여 많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적의 아미타 염불기도 도량입니다.



● 2005년 2월 21일 대구 최명옥 보살의 조상천도 49일 회향기도 청수의 얼음 물오름 사진 입니다.

불자님은 부처님의 광명과 환희와 생명으로 충만한 원국사에서 일체업장이 깨끗이 소멸되고 심중소구 소원 원만성취하옵소서.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옵나이다.

마음의 귀의처 국사봉 원 국 사
회주 법용스님 주지 진묘스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71번지
전화 033)343-1767~8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옻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 오장육부기능 정상화 / 신경조율, 관절염,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옻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옻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옻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옻조청 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솥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 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054-372-5721 금용사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옻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수행건강학과

대구 · 부산지역 학생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지역 교육장소에서 접수)
2. 교육과목
● 무량의경 (한문)
● 묘법연화경 (한문)
● 관 · 보현보살 행법경 (한문)
● 두뇌운동법 (의념) ● 호흡운동법 (조절)
● 유화운동법 (동작) ● 음식영양학 (체질)
● 기타교양과목 (특강)
3. 교육기간 : 4년 (8학기) 수료
4. 교육일시
● 대 구 : 화요일 오전10시30분-12시30분
● 부 산 : 목요일 오후 2시-4시
5. 교육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 2층
6. 기타특전
● 수료증서 수여
● 수행지도사 자격증 수여 (심사후)
● 건강활법사 자격증 수여 (심사후)
● 평생학부과정 진학자격부여 (평생무료학습)
● 이스트 웨스트 대학교 대체의학과에 편입가능
● 수료후 연구활동 등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
7. 문의전화 : (053)952-8711.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

(財)韓國平生大學

어나는데 요즘은 너무 풍족해요. 그러니 근기도 낮아져서 한 철 나고도 도인이 나오지 않아요.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죽비 기상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일곱 살에 천자문을 뗀 대선 스님은 어려서부터 '더이상 배울 것 없는 천재'로 유명했다. 중학교 때 <금강경>을 읽고 깨침을 갈구하다 도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19세에 계룡산 갑사로 출가했다. <천수경>을 단 하루에 외워 주위를 놀라게 한 스님은 계룡산 북사자암에 토굴을 짓고 3년 6개월간 생식하며 정진하던 중 홀연히 게송을 읊었다.

'고삐없는 소를 몰다 / 깊은 꿈 깨어보니 / 소 간데 없고 / 소 임자 이 아니네 / 무변대공(無邊大空)에 달빛 가득 비었구나.'

"그때는 불도 안 때고 솔잎을 주식으로 생식하며 공부했어요. 불 · 보살이 나타난다 해도 주저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공부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소 밥값 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쇠뿔도 단김에 빼듯이 밀어붙일 때는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요. 3천배 정진도 단숨에 해보세요. 생사를 걸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요즘은 근기가 낮아지고 있어요."

"공부가 잘 되면 마장도 많다는데 어떤 마장이 크던가요?"

"한창 때니 정력이 솟구쳐요. 참다보니 더 뻗쳐요. 다행히 공부에 힘이 붙으면서 잠잠해 지더군요. 그렇지만 완전히 뿌리가 뽑힌 것은 아니었어요. 내면에 잠재돼 있어 어느 순간 불이 붙으면 단번에 붙어 버리는 거예요. 색(色) 경계가 무섭긴 무서워요.

지금은 선에 대한 이론 홍수시대입니다. 한 방망이 맞아야 할 때죠. 내가 젊어서 짚궂은 수좌 노릇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은 <전등록>에 치중한 어느 노스님의 방 창문을 열고 '까옥 까옥' 까마귀 울음소리를 냈어요. 옛 조사 어록에 매달려 자기 소리를 하지 않은 것을 빗대어 까마귀 소리 내지 말라는 것이었죠. 죽은 소리는 소용없습니다. 자기와 계합하는 소리를 해야합니다.

1600년을 이어온 조사선은 가장 쉽고 가장 힘있고 직통으로 가는 공부입니다. 걸망속에 경허 스님의 '참선곡'과 <초발심 자경문>만 넣고 중노릇하면 공부 제대로 됩니다."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한폭의 달마도를 보는 듯 하다. 굵은 붓으로 쓱 그어놓은 듯한 눈썹과 입술. 얼굴에서 풍기는 광채에 '눈푸른 납자'를 실감한다. 공부가 한창일때의 거칠 것 없던 당당함도 은근히 풍겨난다.

이쯤해서 재가자는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는지 자못 궁금하다.

"공부는 인간성 회복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아요. 먼저 가정이 바로 서야합니다. 아이들을 무섭게 생각해야 해요. 애들은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훤히 알고 있어요. 인간성 회복의 근본은 경로사상입니다. 노인들을 잘 받들어야 해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치고 복 안받는 사람 없어요. 부처님도 '석가를 위하려 말고 아랫목에 있는 너희 산 부처를 받들라'고 하셨어요."


인간성 회복의 근원은 경로사상이라는 대선 스님.

이 시대에 풀어야 할 화두는 환경
산 허무는 것은 내몸 도려내는 것

대선 스님의 효심은 제방선원에 유명하다. 30여년 전, 해제 때 생가에 토굴을 지어 모친을 공양하고 안거 때면 선방에 들었다. 그 토굴이 오늘의 홍련암 청풍선원이다. 20여년 전부터는 홍련암에서 두문불출하며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공부하겠다며 찾아오는 선객과 일반인들을 위해 요덕사, 오도암 등의 참선 도량을 세워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어머니의 공부는 저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난해 91세로 가시는 그날까지 공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경전에 몰두하면 어머니가 65세쯤 눈이 밝아지더군요. 신문글씨도 돋보기 없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늙었다고 자포자기 하는데 가는 순간까지도 체념해서는 안됩니다. 초발심 못지않게 진(眞)발심이 중요하고 나아가 재발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이 재발심이어야 합니다."

"요덕사 정진원에는 재가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공부는 어떠한지요?"

"선은 승 속이 없고, 선 후배가 없습니다. 경허 선사의 사형인 허주 영산 스님이 이곳 완주를 지나가가 허수아비를 보았습니다. 스님이 입고 있는 누더기에 덧댈 요량으로 허수아비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어느 보살이 '스님, 허수아비는 어떻게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까요'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가자들도 공부가 익어가는 이들이 많아요."

'더불어 살아야할 이 시대에 함께 풀어야할 화두가 있다면 무엇인지' 묻자 스님은 단호하게 '환경' 이란다.

"80년대에 환경정화를 해도 늦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자연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을 헐어내는 것은 내 몸을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의 생명체들이 몇 년 버티기 어렵습니다. 벌써 오염으로 인해 생명체가 병들고 지구가 죽어가요. 시내에 서서 주위를 보세요. 병원과 약방이 즐비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참선 공부를 하면 거울을 보듯 훤히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은 멀리서 찾을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생활속에서 먹을 거리만 잘 조절해도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찰에서 행하는 발우공양 정신을 배워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 나와 이웃, 자연이 살아납니다. 특히 산중사찰에서는 조심 조심해야 합니다. 산 아래로 맑은물을 내려 보내야해요. 이것이 공부고 정진이고 기도입니다."

"스님, 입으로 말하지 않는 진언하나 들려주세요"

"아직 공부가 시원찮아서 움막하나 지어 다시 정진할까 합니다. 그때 한마디 해 드리리다"

글=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대선 스님은

1958년, 열아홉의 나이로 계룡산 갑사에서 만공 스님의 제자 혜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계룡산 북사자암에서 일대사 인연을 풀고자 생사를 걸고 3년6개월간 생식하며 정진했다. 그뒤 도봉산 망월사에서 10년간 근세 무애도인으로 일컫는 춘성 스님을 시봉했다. 해인사 성철 스님 회상에서도 꼬박 10년간 정진했고 금오, 향곡 스님 등 근세 큰 스님을 두루 찾아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화두일념으로 정진에 매진했다.

20여년전부터, 생가에 토굴을 짓고 속가의 모친을 모시며 두문불출해 왔다.

대선 스님의 훨저한 계율과 올곧은 정진은 주위에 알려져 종교를 초월해 공부인이 줄을 잇고 있다. 20여년 이어온 용맹정진(매월 1, 3주 토요일)을 거쳐간 재가 수행자만 500여명. 수봉산 아래 홍련암 청풍선원으로 시작된 수행처는 산내에 요덕사 정진원, 오도암 등 선방만 세 곳으로 늘었다. 스님은 "근래들어 물질풍요와 약해진 근기로 도인이 나오지 않는다"며 "한번 들어가면 10여년간 나오지 않고 생사를 결판짓는 수행처를 두어 개 세워 한국선불교의 맥을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모친이 91세로 세연을 다하자 수봉산 승정암터에 사방 8자크기의 토굴을 지어 올해 초파일 이후 다시 3년 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춘성·성철·금오·향곡 스님 모시고 20여년 정진
"생사 결판지을 수행처 만들어 맥 이어야"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허주 스님



허주(虛舟), 빈 배.

빈 배에는 어부도 없고 잡은 고기 한 마리 실려 있지도 않다.

그 빈 배에 그러나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허주 스님의 무언(無言)의 그림자다.

빈 배는 그냥 가만히 떠 있지는 않는다. 출렁거리는 물결 속으로, 흔들리면서 늘 춤추듯 떠다니고 있다.

만사(萬事)를, 그 만사의 여러 가지 모든 시름을 태우고 빈 배는 오늘도 떠다니고 있다.

내가 지금 어찌 감히 허주 스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랴.

그는 지극한, 하나의 목석(木石)같은 존재로 나의 뇌리에 인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 문병성

허주 스님은 구 척 장신의 거구다. 그가 가부좌를 틀고 선방 가운데 떡 버티고 앉을라치면, 드넓은 선방이 꽉 차 버리는 느낌이 들 정도다.

스님은 그처럼 거구이면서도 하루 두 끼 이상은 먹지 않는다. 그것도 아주 소식(小食)으로, 조금 밖에 먹지 않는다.

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꾸역꾸역 먹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스님의 신조요 신념이다.

그저 육신이 견딜만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더 이 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굽히지 않고 버텨 나가는 것이 그의 정신이다.

빈 배, 허주 스님을 향한 어떤 향수같은 그리움으로 하여 나는 지금 이 글을 조금씩 적어내려가고 있다. 그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시 같은 이야기를 가끔씩 내게 들려주곤 하였다.

'싯달타는 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싯달타는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오랫동안 서 있었다.

강을 건너야 저 건너편 언덕에 이르는데, 저기 피안(彼岸)에 이르는데….

싯달타는 생각에 잠겼다. 번뇌와 망상을 벗어나야만 강을 건널 수 있다. 번뇌와 망상은 꼬리를 물고 늘어져 놓아주지 않는다.

녹슬은 사슬처럼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는 고뇌의 흔적들. 싯달타는 저물어가는 노을 속에서 그렇게 무연히 서 있었다.

저물어가는 강가의 노을 속에서 싯달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서 있었다. 저 언덕, 피안에 이르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 길이 있다고 알고 있을 뿐, 그 길이 어디에 있고, 그 길을 향한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문은 열려 있지 않고 잠겨져 있다. 잠겨져 있는 문을 여는 길,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묘법(妙法)이다.

싯달타는 목이 말라 강물을 두 손으로 떠서 자꾸 자꾸 입 속에 넣는다. 강물은 달고, 어머니의 젖과 같다. 무한한 그리움이, 알 수 없는 사무침이 싯달타의 전신을 휩싸고 돈다.

짙은 황혼 속, 저 건너편 언덕받이에서 머리 흰 노인이 조그만 목선을 타고 노를 저어 싯달타를

적게 먹고 큰정신 지키다
물이랑 속으로 떠난 '빈배'

향해 다가온다. 노인은 싯달타를 향해 이렇게 묻는다.

"그대는 강물을 마시고 있더군. 그런데… 그런데… 그대가 강물에게 해 준 게 무엇이 있는가?"

싯달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냥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두고, 두 사람은 움직일 줄 몰랐다. 싯달타는 어린 부처님이었고, 노인은 당래하생(當來下生) 미륵불이었다…'

허주 스님, 빈 배. 그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웃었다. 가만히 스님은 미소지었다. 남해 보리암의 한 철 안거는 끝났다.

허주 스님, 빈 배. 그는 빈 배처럼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다. 그의 자취는 아무데도 남아 있지 않았다.

빈 배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망망하게 펼쳐진 남빛 바다, 그 물이랑 속으로 허주 스님은 떠나 버렸다. 내게 알지 못할 많은 의문만을 남겨둔 채 허주 스님은 훌쩍 떠나가 버렸다.

남해 바다, 은빛 노을처럼 반짝이는 물이랑 속으로 스님은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갑신년 동안거 해제가 지난 오늘, 나는 새삼 허주 스님의 행방을 떠 올리며 깊고 그윽한 감회에 젖는다. 그도 어딘가의 선원에서 결제를 맞고 해제를 맞고….

그러했을 것이므로. ■ 봉화 청량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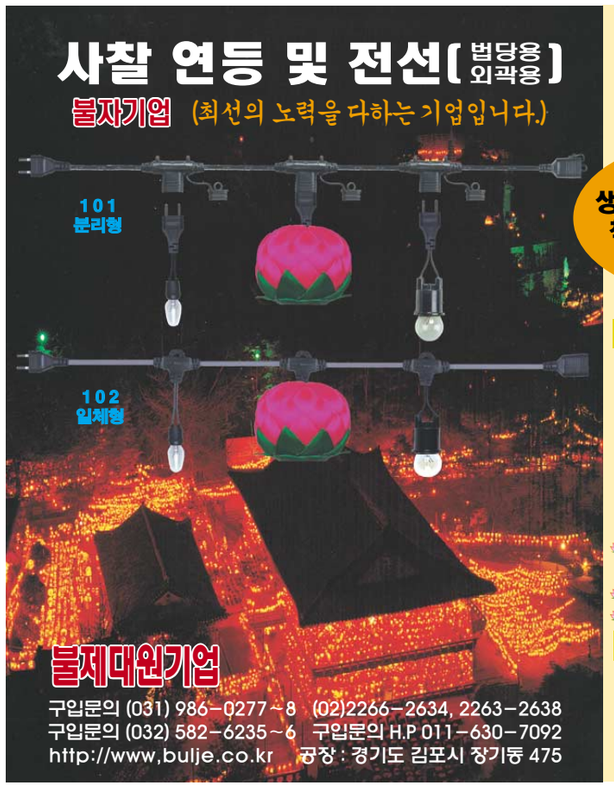
달라이라마 일본법문 및 사찰순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일본 가나자와, 음악당에서 2일간 법문을 하십니다.
이번 일본 법문은 인도에서만 친견하던 존자님을 일본에서 뵙고 법문을 듣고, 또한 벚꽃이 만발한 교토,오사카 등 사찰 순례를 하고자 합니다. 인연 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좌석 관계로 30분만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출발일 : 4월 15일 ~ 19일(4박 5일)
- 여행경비 : 110만원
- 장 소 : 일본 가나자와 석천현립음악당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제1일 4/15(금)	인 천 고마츠 가나자와	JL 994	12:25 14:05	인천국제공항 출발 고마츠공항 도착, 가나자와 시내 이동 후 일본 3대명원 겐로쿠엔 관광 후 호텔 투숙 및 휴식(대욕장)
제2일 4/16(토)	가나자와	전용버스		오전 : 모림사, 일본전통다원 히가시차야 관광 오후 : 석천현립음악당 달라이라마 법문 및 공식행사 참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온천욕)
제3일 4/17(일)	가나자와 야마나카	전용버스		전일 석천현립음악당 달라이라마 법문 및 공식행사 참석 후 야마나카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온천욕)
제4일 4/18(월)	야마나카 교 토	전용버스		야마나카 출발 벚꽃이 만발한 교토 도착 후 금각사, 청수사, 동본원사등 순례 후 호텔 투숙
제5일 4/19(화)	교 토 오사카 인 천	JL 963	15:10 16:55	오사카로 이동, 사천왕사 순례 및 오사카 성, 신사이바시, 도톰보리 등 시내 관광 후 칸사이 공항으로 이동 오사카 출발 인천공항 도착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정품)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컬라멘트가 6배 (특 컬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 품)
법당등(궁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2004년 '체험 경북가족여행'에 참가한 가족들이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경주 괘릉을 답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관광개발공사

불교·유교·가야 문화 체험여행

가족과 함께 떠나요

불교문화, 유교문화, 대가야문화 등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권을 가족과 함께 여행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연중 실시된다.

경북관광개발공사(사장 김진태)는 작년 성황리에 끝난 '체험 경북 가족여행'을 올해에도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불교문화), 안동 · 영주(유교문화), 고령 · 성주(대가야문화)와 더불어 경북의 산업관광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경, 깨끗한 자연으로 유명한 영천 등을 돌아본다.

이 프로그램은 4월 고령 · 성주의 대가야문화권(1박 2일)을 시작으로 경주 5회, 안동 · 영주 4회, 고령 · 성주 2회 문경 2회, 영천 · 일원 2회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주, 안동 · 영주, 고령 · 성주
가족여행 프로그램 진행
참가경비 절반 지원

이번 여행은 매달 2회씩 회당 16가족 120여명을 모집한다. 연간 1000여명이 경북의 문화유산과 지역을 체험하게 되는 셈이다. 공사 측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참가경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이번 체험여행의 핵심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신라불교문화권 체험여행이다. 6월 4~5일, 11~12일에 출발하며 나머지 3회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찬란한 신라불교가 이뤄낸 정수인 남산 및 황룡사지, 불국사, 석굴암 등을 전문 강사의 문화해설을 들으며 돌아볼 수 있다. 특히 불국사를 방문할 때는 불교관련 퀴즈를 제시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불가의 전통무술이 전해져 내려오는 골굴사에서는 선무도를 배운다. 이 밖에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3D 입체영상을 관람하고 경주민속공예촌에서 신라 금속공예를 체험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또 청정한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된 영천 지역의 천년고찰 은해사와 거조암을 방문하거나 보현산 자락 별빛마을에서 별자리를 탐구하는 코스도 마련돼 있다.

안동에서는 부석사와 소수선원, 병산서원 등을 답사하고 탈춤을 배운다. 고령과 성주에서는 지산동고분군, 양전동 암각화, 동방사지 7층 석탑 등을 돌아보거나 대장경을 판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여행단에 참가하고자 하는 가족은 행사일 15일 전에 경북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www.ktd.co.kr)나 여행이야기(www.travelstory.co.kr), 다음레저(www.toumfood.com)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054)740-7330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고령 · 성주 대가야 문화권 코스 ●

일정	프로그램	비고
첫째날	가야금 체험 대가야왕릉전시관 지산동 고분군 답사 대가야 문화학교 체험	
둘째날	개경포 개념공원 답사 양전동 암각화 답사 합천 해인사 답사	

● 경주 신라불교문화권 코스 ●

일정	프로그램	비고
첫째날	남산 답사 황룡사지 답사 야외상설국악공원 관람 및 체험 가족간 소개	골굴사 선무도 체험 및 해사 · 거조암 방문도 계획 중
둘째날	보문호수 산책 신라역사과학관 체험 경주민속공예촌-신라토기 및 금속공예체험 안압지 답사	

게시판



불교귀농학교 15일 개강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제16기 불교귀농학교(사진)를 개강한다. 3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땅을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서로를 살리는 길'을 주제로 주2회 총 20시간 강좌와 2차례의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02) 737-6181

어르신 목욕도울 봉사자 모집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3월 24일 주간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욕행사에서 뇌졸증 · 장애 노인을 보조할 신체건강한 남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031) 919-8677

뇌졸중 · 치매 어르신 집단치료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뇌졸중 · 뇌손상 · 경증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단치료를 실시한다. (02)466-6242

가사도우미 교육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취 · 부업을 희망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21일 부터 25일까지 가사도우미 교육을 실시한다. 접수는 11일까지. (051) 782-5005

주간 · 단기보호 어르신 모집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는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간 · 단기보호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화 및 방문으로 상담을 받은 후 건강진단서와 질병진단서 각 1부씩을 제출하면 된다. (031) 455-0551

20면 상식 퍼즐 정답

우	의	정		박		
이		월	하	빙	인	
독			마		간	
경	주				계	사
	마		와			십
	등	하	불	명		구
		경		소	비	재

극장가



여자,정혜 / 드라마 / 100분
개봉예정일: 3월 10일
감독: 이윤기
출연: 김지수, 황정민 등
등급: 15세 이상
정혜에게 어린 시절이란, 한 손엔 연필, 다른 한손엔 담배를 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엄마의 조용한 모습과 어린 정혜로선 감당하기 힘들었던 기억뿐. 유일한 그늘이었던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은 삶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이다. 그런 여자 정혜에게, 어느날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사랑이 찾아오는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 / 휴먼드라마 / 133분
개봉예정일: 3월 10일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출연: 클린트 이스트우드, 힐러리 스웽크 등
등급: 15세 이상
"항상 자신을 보호하라!"라는 프랭키(클린트 이스트우드 분)의 가르침 속에 훈련은 계속되고, 마침내 매기는 승승장구하며 타이틀 매치에 출전한다. 때로는 상처를, 때로는 격려로 함께한 프랭키와 매기는 어느새 서로에게 가족의 정을 느끼며 아버지와 딸 같은 관계로 발전해 가는데….



쏘우 / 스릴러 / 100분
개봉예정일: 3월 10일
감독: 제임스 완
출연: 리 웨넬, 대니 글로버 등
등급: 18세 이상
'고든'은 이번 사건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연쇄살인과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끔찍한 연쇄살인의 현장에 자신의 펜이 떨어져 있었고, 그 증거물을 근거로 '탭' 형사(대니 글로버)가 자신을 찾아왔던 것. 한편, 연쇄살인을 추적하던 '탭' 형사는 닥터 '고든'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 뒤를 쫓는데….

공연

생명이 움트는 소리 '청춘가악'

서울시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창단연주회 '청춘가악'.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설단체인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창단연주회가 3월 11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생명이 싹트는 봄을 맞아 활기찬 무용음악과 노래,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이번 창단음악회 <청훈가악>에서는 단원의 플룻 협연,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악장인 고보석의 거문고 협연, 구성진 남도민요 등이 이어진다.

김성진 단장의 지휘 아래, 거문고 고보석, 플룻 왕주연, 소리 정승희, 이경아, 조혜원, 정수완 등이 참여해 플룻 독주와 국악합주를 위한 무용환상곡, 거문고 협주곡 '수리재', 성주풀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등을 공연한다.

앞으로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연계하여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구심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37명의 고, 대학생들이 선발됐고, 올해 7회의 정기연주회와 1회의 특별연주회, 음악캠프 등을 개최하며 전문적인 청소년 단체로서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02) 399-1185~7

전시

꿈과 일상의 중도는 어디메뇨?

이왈종 화백 제주도 생활 화폭에



'제주생활의 중도', 2005, 한지위에 혼합, 191×284.

어느 날 홀연히 제주로 떠난 화가. 그는 잠자고 밥먹는 시간 외에는 그림만 그렸다. 제주에서 15년간 '중도(中道)'를 얘기해온 이왈종 화백이 그림을 통해 '제주생활의 중도'를 선보인다.

이 화백은 3월 3~20일 서울 사간동 갤러리현대에서 '꿈과 일상의 중도'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연다. 회화와 종이부조, 부조판화, 목조와 입체물 등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에는 '제주 생활의 중도'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두 가지 주제의 총 60여점의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중도는 이 화백의 좌우명으로, 그는 모든 것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의 철학을 그림에 담아왔다.

개인전을 갖는 갤러리 현대 옆의 두가헌 갤러리에서는 50돈짜리 순금판에 양각한 에로틱한 이씨의 그림들이 피카소의 작품들과 함께 전시된다. (02)734-6111

이은비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이미지큐브-부처님일대기



이미지큐브는 연속하여 모양이 바뀌는 입체블록으로, 정육면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개하는 동안 12면의 다양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장난감이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동안,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또한 8개의 정육면체를 전개하며 두뇌발달과 창의력에 도움을 준다. 내부에는 자석이 삽입돼 있다. 크기 : 7cm x 7cm x 7cm, 가격: 1만원. (02) 732-15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7일 06:00 불교강좌
8일 07:05 아침저널
9일 14:05 음악의 마을
10일 19:00 박진선의 트롯시대
11일 11:05 행복 스튜디오
12일 18:15 BBS 집중토론
13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7일 07:50 명상음악산책
8일 15:10 명상육아
9일 23:40 한국의 명찰
10일 12:00 달라이라마 법문
11일 09:00 영상니르바나
12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13일 17:30 불교TV스페셜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3월 11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영어법문<디스커버링 부디즘>(3월 11일 오후 09:20~10:00) 티베트에서 수행, 포교를 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의 영어법문을 쉽고 과학적인 접근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불자가 아닌 이들도 관심을 갖고 불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관음종 총무원장상)

달라이라마를 가까이서 뵈며

최영숙 (경남 창원시 남양동)

관정식에서 관음보살의 자비 느껴…평생 이타행 발원

2001년 12월은 달라이라마께서 처음으로 한국불교신도들을 위해 관정을 베푸신 달이다. 관정이란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칭송하고 진언을 외우며, 내 자성신이 관세음보살님으로 되는 것을 느끼면서 보살계를 받는 것이라 한다.

나는 그 행사에 동참하기위해 델리에서 승용차로 12시간을 달려 다람살라에 도착했다. 다람살라, 두 번째 가보는 곳이다. 인도에서의 첫 여행지가 여기였다. 달라이라마가 계신 왕궁이 있는 곳은 메크로 관저이다. 아마 제일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듯 했다.

다람살라는 티베트인들이 중국에게 주권을 뺏기고 인도로 망명을 와서 살고 있는 곳이다.

티베트인들은 한 가정마다 스님을 한분씩 출가시키기 때문에 다람살라 그 자체가 수행의 장소로 여겨질 정도로 자줏빛 가사를 걸친 스님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염주를 목에 걸거나 손에 쥐고 있는 모습, 항상 염불을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 모습들에서 작은 불교왕국이란 느낌이 든다. 사방을 두르고 있는 산꼭대기엔 하얀 만년설이 덮혀있고, 새벽이면 개들이 몰려다니며 짖어대는 소리도 우리의 불성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로 들리니 가히 종교적인 곳이라 생각된다.

그 맑고 맑은 기운을 받으며, 우린 달라이라마께서 직접 관정을 주시는 예비 관정식을 받기 위해 절로 향했다. 1997년에도 난 다람살라에 왔었다. 많은 고생 끝에 도착한 이곳에서 난 그 분이 다른 나라로 설법하기 위해 차를 타고 떠나시는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 망연자실 서 있으니 달라이라마를 뵙기 위해 뒤니지에서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외국인 부부가 말을 걸었다. 그 때 그 부인은 달라이라마를 먼발치에서 보고는 환희심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난 그 때까지도 달라이라마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달라이라마의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토록 환희심에 젖게 했을까 궁금했었다.

드디어 4년만에 나는 그 분을 뵈러 가는 길이다. '살아있는 부처' 달라이라마를.

부처님께 올릴 하얀 비단을 손에 받쳐 들고 가는 내 가슴은 그 때와 같은 궁금증으로 뛰었다. 절로 들어가기에 앞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검사를 받았다. 마침내 절로 들어선 순간, 경내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세계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티베트인들, 스님들이 중간에 우리들 자리를 남겨둔 채 빙 둘러앉아 각자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에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이었다. 자리가 다 갖추어지자 달라이라마께서 나오셔서 법단에 앉으셨다.

사진으로만, TV로만 뵙던 분을 직접 만나는 순간, 아! 난…할말을 잊었다. 나도 모르게 내 뺨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 성인의 모습은 저렇구나….

온 몸에서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자비심의 빛! 난 그만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분 앞에 있다는 환희심으로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으니, 모든 번뇌가 다 씻겨 나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상태로 난 그 분을 만나고 있었다.

장장 5시간에 걸쳐 예비관정식이 치러졌다. 달라이라마는 간단히 인사를 끝내고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불경을 외우고, 법문을 하고, 그 법문을 청정 스님과 설오 스님이 통역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한국 스님이 통역을 하면 우리들이 잘 알아듣는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던 그 분.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동안 모든 이를,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법을 만나 열반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애절함이 가슴에 와 닿았다.

자비롭고 순박한 눈길로 지극히 굽어 살펴보는 그 모습은 관세음보살 그 자체로, 힘들면 하품을 크게 하며, 아무런 걸림이 없이, 아무런 꾸밈도 없이 천진불 그 자체로 우릴 반겨주셨다.

티베트불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예불을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의미로 갈마보병의 물을 돌린다. 우리 일행은 왼손바닥에 물을 조금 받아 오른손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입을 몇 번 씻고, 귀, 눈, 코, 손, 배꼽, 머리에 바르고 물을 세 번 마신 후 입을 두 번 씻었다.

중간에 뜨거운 우윳빛 차를 돌리기도 했다. 기도가 끝나고 우리에게 길상초(갈대) 긴 것과 짧은 것 두 개가 주어졌다. 내일 본 관정식이 시작됐다. 우린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생각하며 그 분이 이끄는 대로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명상을 시작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그 때, 천신들이 씻은 것처럼 청정한 하늘의 물로 그와 같이 저도 씻어주소서. '관세음'이라 이름불리는 항상 자비하심에 절 올리며, 모든 여래시여! 저에게 나투시어 관정을 주옵소서!

그렇게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느끼며,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평안케 하시는 그 분께 내가 쌓은 조그만 복일지라도 모두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회향했다. 관정식이 끝나고 보리수 씨앗과 붉은 색 명주실이 주어졌다. 나는 한동안 팔찌처럼 묶고 다니면서 그걸 볼 때마다 그 분의 가르침과 자비심, 온화한 미소를 떠올리며 행복해했었다.

오후에 왕궁에서 달라이라마를 뵙고 질의응답할 기회가 주어졌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던 점들을 물었는데, 모든 질문에 상세하고도, 친절히 답변해주셨다.

티베트에 자주 가시는 분이, 티베트국민들은 달라이라마를 뵙는 게 소원이고, 항상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 눈물을 머금고 기도를 드린다며 국민들에게 전하실 말씀은 무엇이냐고 여쭈었다. 달라이라마는 "지금은 중국의 냉혹한 독재에 힘들겠지만, 티베트 국민은 티베트만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적을 위해서도 걱정하며 기도를 하라"고 전했다. 대승의 나아갈 길도 설명했다.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죽음의 두려움'에 관해 물어보자 "죽음이란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긴 여정에 있어 이생은 하나의 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선 근기에 맞게 선택된 종교를 존경하는 마음도 가져야한다고 했다.

인간의 의식세계에 대해서 말하며, 꿈속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중음신 상태에서도 나를 닦을 수 있다며, "참나를 찾기 위해 제법무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 · 정 · 혜를 닦아 바르게 정진하라"고 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이익 되도록 정진에 게으르지 말며, 보리심, 공성, 지견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심을 내야한다고 가르쳤다. 다람살라에서 우리 일행은 지극히 평화로운 마음의 화신이 되어 업과 번뇌, 장애를 맑혀서 항상 보리심에 젖어 있기를 바라며 떠나왔다.

그윽하게 풍겨 나오는 당신의 향기 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당신의 그윽한 눈빛 속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무(無)로 돌아가며 당신의 환한 미소에 모든 중생들은 살이 찌옵니다. 모든 이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짐이 많아 어깨가 무거우심에도 그 짐을 마다않고 다 지시는 분이시여.

부처님! 제 마음 하나하나 모두 당신께 바치옵니다.

그 지혜, 그 자비 모두 구족하신 분, 부처를 이룰 때까지 귀의하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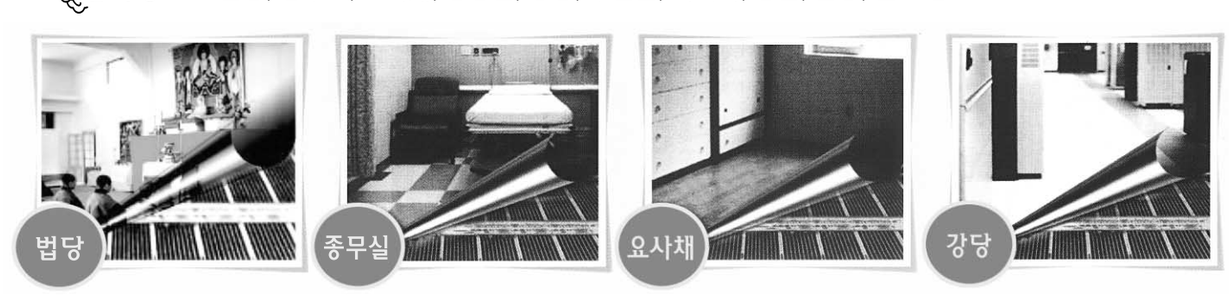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법당 난방 걱정 끝!
배관난방이 아닌 선상발열체 난방시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 기준 월 3만원대 - 1일 8시간 30일 기준]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설치장소 법당, 종무실,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기숙사, 병원, 별장, 콘도 등



세계 7개국 발명특허를 획득한 수입완제품.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면상발열체 난방시스템으로 21세기 사찰 난방의 새로운 혁명을 한국전자난방이 만들어 갑니다.

난방 종류별 단가 비교표

구 분	심야전력(축열식)	전기판넬	도시가스	보일러등유	LPG	한국전자난방
가 격(원)	31,24(kwh)	71,5원	500원(㎥)	650원(ℓ)	950원(kg)	71,50원(kwh)
연료소비량(월)	192(kwh)	167(kwh)	13(㎥)	17(ℓ)	12(kg)	43,2(kwh)
난 방 비(평당)	5,998원	11,941원	6,500원	11,050원	11,400원	3,088원
단가지수(%)	194	386	210	358	369	100
10평 난방비(원)	59,980원	119,410원	65,000원	110,500원	114,000원	30,880원

음이온 시험 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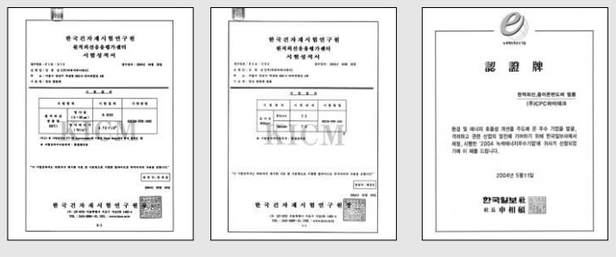
시 료 명	음이온(on/cc)	발급번호
발열필름	158	kfim-236

원적외선 시험성적서

방 사 율	방사에너지	발급번호
90.3%	3.64×10²	kfi-403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시험결과

검증 인정서



경제적 난방!! 간편한 시공!! 반영구적 설비!!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이제 기름의 1/3 가격으로 난방 끝!]

"봄맞이 난방보수 특별 이벤트"
이벤트 기간 설치 의뢰시 종전시공비의 10% 할인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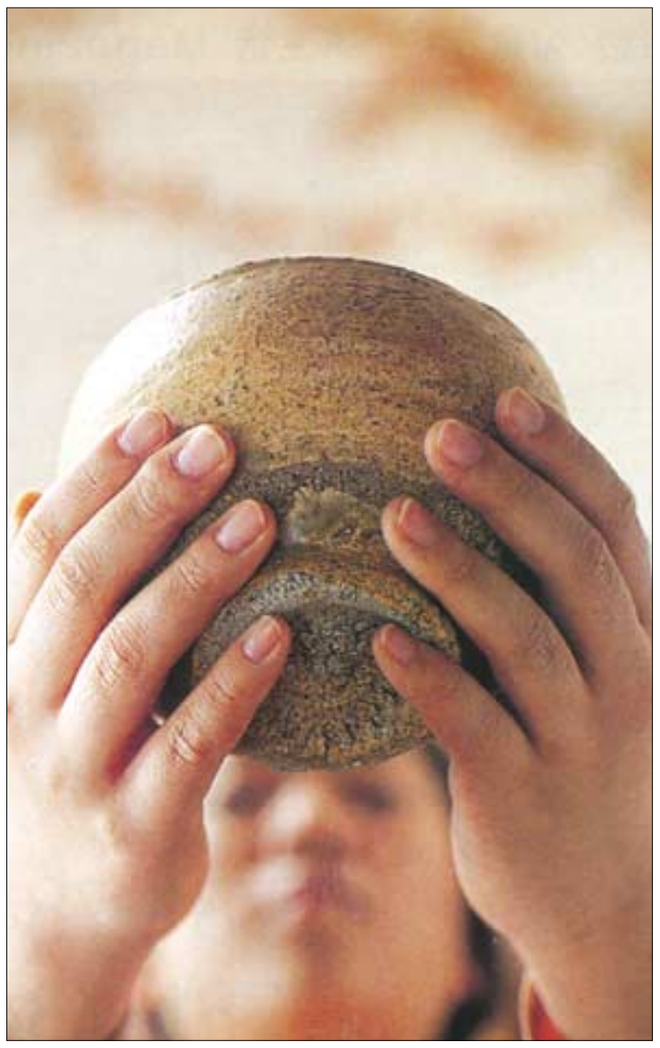
- 특별보급기간 : 2005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
- 특 별 이 벤 트 : 설치비 10% D/C
  원적외선 방석 2개 증정(예불시 사용하세요)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 "keh21.com"

(주)한국전자난방
keh21.com '21C 난방의 선두주자'

■ 설치의뢰 080-017-0100 ■ 상담전화 043)221-6006

찻그릇, 이렇게 관리하면 안전 차의 매력에 빠져 3년째 차를 즐기고 있는 양수현(36)씨. 지난 주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하다 아끼던 찻주전자를 깨고 말았다. 높은 선반에 둔 다구를 한 손으로 꺼내려다 놓쳐버린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다구를 전문적으로 수리해주는 곳이 거의 없어 양씨는 깨진 다구를 바라보며 속만 태워야 했다. 이처럼 애지중지하던 다구를 자칫 방심하는 사이 손에서 놓치거나 다탁(茶卓) 모서리에 부딪쳐 깨뜨린 경험이 차인이라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특히 도자기로 된 다구는 깨지기 쉬워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차인의 친구'라 할 수 있는 다구를 좀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차문화공예연구소 '운중월(043-881-2960)'의 김동현 대표에게 안전하게 다구 관리하는 법을 배워본다.



두 손으로 가슴 높이에서 옮겨야

젖은 손 금물, 찌꺼기 오래두면 갈색 자국 생겨

■ 다구 다룰 때



다구를 다룰 때는 항상 두 손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 손으로는 다구를 잡고 한손으로는 바닥이나 옆면을 받쳐야 실수로 다기를 놓쳤을 때 바닥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다구를 다룰 때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면 주의가 흐트러져 놓치기 쉽다. 물에 젖은 손으로 다구를 만지는 것도 금물이다. 다구에 물기가 묻었을 때는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구를 감상할 때는 바닥에 부드러운 천을 여러 겹 깔아 두고 다구를 높이 들어올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선반에서 꺼낼 때



찻사발을 높은 선반에서 꺼낼 때는 오른손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은 사발 안에 깊게 넣고 엄지와 약지가 사발 바깥 면을 받치도록 잡고 들어낸다. 그 다음 왼손으로 찻사발 굽을 받쳐 들고 가슴 앞으로 가져온다. 찻장이나 낮은 선반에 있는 찻사발을 꺼낼 때는 꿇어 앉아 두 손으로 사발을 감싼 후 양손의 약지로 굽을 받쳐 가슴 앞으로 가져온 후 이동한다.

잎차 다관을 선반에서 꺼내거나 이동할 때는 오른 손 검지로 뚜껑을 누르고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야 뚜껑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찻사발이나 잎차 다관을 모두 들어올릴 때 새끼손가락으로 굽이나 잔 바닥을 가볍게 받치는 것이 안전하다.

■ 다구 옮길 때



한 벌로 구성된 잎차 다기를 옮길 때는 다기를 다반 위에 놓아 가슴 높이 정도로 들어 올려 옮긴다. 찻사발의 경우는 다반을 사용하는 대신 한 손으로 굽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옆면을 감싸 쥔 다음 가슴 높이 정도로 들고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 다구는 가슴 가까이에 두고 옮겨야 다탁이나 장식장의 모서리에 부딪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찌꺼기 버릴 때



다관이나 찻사발 등에 차 찌꺼기를 오래 담아두면 갈색 자국이 생기므로 사용 후 바로 씻어 말리는 것이 좋다. 다관에 남은 차 찌꺼기를 꺼낼 때 역시 자칫 다관을 놓치기 쉬우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고리형 손잡이 다관은 손잡이 고리에 오른 손 검지를 넣고 왼손으로 몰대 밑을 가볍게 잡은 뒤 몸쪽으로 뒤집어 찻잎을 꺼낸다. 막대형 손잡이 다관은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은 몸통에 댄 뒤 앞으로 돌려 버린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제공=<월간 Tea&People>

차인연, 하이서울페스티벌 참가

오는 5월 4일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 시청 광장에 둘러 앉아 차 한 잔 나누어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는 '제3회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이날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차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로, 올해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한국차인연합회는 5월 4일 오후 2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주한외교사절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무료 들차회, '충담선사 다법' '신라화랑 다유회' 시연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유명 작가들의 다구와 차를 이용한 음식, 제다업체의 차 제품의 전시 및 판매도 이뤄진다. (02)734-5866

중견 도예가 찻그릇展 잇달아 열려



도예가 김종훈씨의 작품 다구 세트.

중견 도예가들의 찻그릇 전시회가 서울과 대구에서 잇달아 열린다.

도예가 서영기(경기대 공예학부 교수)씨는 3월 16~22일 서울 인사동 통인화랑에서 잎차 다기전 '죽연다관(竹淵茶罐)의 세계'를 개최한다. 서씨의 다기는 순박하면서도 빛깔이 아름답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시회에는 잎차 다기 100여 점이 전시된다. (043)422-4439

심산요 대표인 도예가 김종훈씨는 3월 11~19일 대구 예송갤러리에서 '深山에서 지펴낸 찻그릇'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20년간 찻그릇을 만들어 온 김씨의 두 번째 개인전으로 다완과 다기세트, 화로, 다식접시 등 20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053)426-1515

문경대학교 도예과 교수인 유태근씨는 3월 16~21일 대구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열한번째 개인전 '찻사발전'을 갖는다. 검은 빛깔의 도자기에 금을 채색한 '흑도 금채 다완(黑陶 金彩 茶碗)'을 비롯한 7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053)420-8014



최자, 진정국사 등 유불 교류 통해 차문화 발전

고려시대 ⑧

무신정권이 최씨 집권 시대로 넘어오면서 차츰 안정되자 중국과의 교역이 회복되고 문물교류가 확대되었다. 이규보를 위시해 최자, 이진, 김지대 등의 선비 차인과 진정국사, 원감국사, 보각국사 등의 대덕 차인이 차문화를 꽃피웠다.

중국은 국가에서만 관리하던 차 생산이 민간에도 허용됐다. 이안 노인의 <다구도찬> 같은 책도 나왔다.

일본은 영서(榮西) 스님이 송을 왕래하며 차씨를 가져다 심고 거리에 다점(茶店)도 생겼다. 또한 영서 스님의 <끽다양생기>와 도원의 <영평청규> 등이 출간되는 등 차문화가 이론적 바탕과 체계를 갖추려는 시기다.

① 진정국사는 차를 즐기고 <호산록> 등의 저술과 다시를 남겼다.

② 최자는 <보한집(補閑集)>과 다시를 남겼고 천책과는 다우였다.

③ 원감국사는 많은 다시와 다게(茶偈)를 남겼다.

④ 보조국사 일연의 <삼국유사>에 차 이야기가 나온다.

⑤ 이진은 수선사의 혜감국사와 교분이 두터워 차로서 정을 받고 다시 마음을 담아 보낸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⑥ 청명국사 천인은 후에 혜심에게 조계의 요체를 전수받았으며 차를 많이 마셨다.

⑦ 선원청규는 중국 백장회해의 '백장청규'를 바탕으로 쓴 사원의 청규다.

⑧ 김지대는 무신으로 중서시랑평장사에 오른 차인이다. '유가사'의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애송한다.

⑨ 금의 장종은 송차를 적게 수입하고 자국의 생산을 늘이려 애썼다. 7품 이하의 사람들은 차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⑩ 남송의 다상들로 편성된 다상군은 금의 남하를 저지했다.

⑪ 도륭은 일본 선종을 확립했다.

⑫ 조맹부는 서화가로 그가 그린 '투다도(鬪茶圖)'가 유명하다.

⑬ <다구도찬>은 심안노인이 점다법에 필요한 다구 12종에 그 역할과 찬을 붙인 다서다.

⑭ 영서선사는 1168년과 1187년 송에 유학하고 차씨를 가져다 심었다. 그의 <끽다양생기>는 일본 다학의 근거가 된다.

⑮ 백장청규에서 선원청규가 생겼는데 도원이 그것을 근거로 영평청규를 만들어 일본 사찰의 규범으로 삼았다.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고려시대	1193 <동명왕편>(이규보) 1196 최충헌의 집권 1206 진정국사 출생 ① @최자의 활동 ② 1221 송상(宋商) 115명이 오다 1225 토목공사 중지 1226 원감국사 출생 ③ @ 일연 스님 ④ 1224 이진과 혜감 ⑤ 1248 천인의 타계 ⑥ 1254 선원청규 ⑦ 1266 김지대의 죽음 ⑧	1190 장종의 활동 ⑨ 1198 송다(宋茶) 수입제한 1205 차를 민간에서 만듦 @ 다상군(茶商軍) ⑩ 1234 금의 멸망 1246 도륭의 도일 ⑪ @ 조맹부 ⑫ 1269 다구도찬 ⑬	1191 영서 스님 ⑭ 1192 염창막부 개설 1196 다점(茶店)이 있었다 1202 건인사 건립 1211 끽다양생기 @ 도원의 영평청규 ⑮
송대			
혜이안 시대			

부처님오신날 법보시 불서 안내

등공양의 공덕

부처님의 전생 · 탄생이야기,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 연등공양의 공덕, 관불의식, 봉축법어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 정가 : 1,800원

목차

제1장 석가모니부처님과 불교
1.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 전생 이야기가 주는 교훈
• 연등불께 수기받은 선혜 행자
2.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
• 탄생연도와 불교연호
• 룸비니동산과 탄생게
• 아시타 선인의 눈물
3. 부처님의 생애
4.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

제2장 부처님오신날과 연등
1. 연등(燃燈)과 연등(蓮燈)
2. 연등(燃燈)의 유래와 종류
3. 연등공양의 공덕과 빈자일등(貧者一燈)
4. 연등행사의 어제와 오늘

제3장 연등놀이문화와 관불(灌佛)의식
1. 연등놀이문화의 이모저모
2.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제4장 부록
1. 부처님오신날 봉축발원문
2.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발원문
3.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

※ 200부 이상 주문시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핸드백에 쏘~옥 들어가는

포켓용 한장본 불서 안내



■ 크기 : 10cm×17.7cm

■ 금강반야바라밀경	144페이지 / 2,500원	■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 2,500원
■ 천수 · 반야심경	100페이지 / 2,500원	■ 무상법문집(영가전에)	110페이지 / 2,500원
■ 천수 · 관음경	110페이지 / 2,500원	■ 예불독송경	89페이지 / 2,500원
■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 2,500원	■ 지장보살예찬문	78페이지 / 2,500원
■ 관세음보살보문품	90페이지 / 2,500원	■ 천수 · 금강경	166페이지 / 3,500원
■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 2,500원	■ 금강 · 아미타경	162페이지 / 3,500원
■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 2,500원	■ 지장보살본원경(상)	163페이지 / 3,500원
■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 2,500원	■ 지장보살본원경(하)	175페이지 / 3,500원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한 뿌리를 믿고 의지해야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어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문 불교와 인연을 맺고 줄곧 선원에 다니면서 주인공의 끈만 쥐고 간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 갑자기 제 주변에 마음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각자 자기의 방법만이 옳은 정법이라고 합니다. 영가 기도를 올려야 한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 108배를 올려야 한다는 등의 말들을 합니다. 가는 방법은 달라도 목적지만 같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쩐지 지금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영가 기도문을 읽고 108배를 올리는데 머리가 아프고 몸 상태가 영 안 좋아지더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 같습니다. 분명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마음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유혹 속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혜안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감하였습니다. 한생각 내 주십시오.

답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자신을 믿고 가다 보면, 어떠한 게 잘되다가도 딱 멎고선 안될 때나 답답할 때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도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잔잔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파도가 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도와 잔잔한 물과 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등한 이치를 알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거는 탤런트가 영화를 만드는 데 아무리 힘들어도 한마디 하고 나면 괜찮아 지듯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수습하려면 공부시키느라고 답답하게 모르게 만들고 끄달리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어도 '이게 뭔가?' 하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요. 한탄하게 하는 것도 너고 답답하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선 내려놓을 때, 그게 습관이 되면서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놓고선 가게 되면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 본래 깨우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딱 막아 놓고는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도리를 알아야, 내가 죽어서도 떳떳하고 절대로 꼴리지 않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꼴리지 않아야 어디든지 내 자유껏 갈 수가 있는 거고, 내 자유껏 건질 수가 있는 거고, 내 자유껏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즉 말하자면 살아서 인가가 됐기 때문에 죽어서도 인가가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정말 서로 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내가 항상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자기 선장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보라는 거예요. 벌써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하니 사단들이 나고 괴로워하는 거죠. 또 사단을 얘기할 때도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론만 얘기하고 가는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겪는 얘기를 모두 다 합니다. 그러면 벌써 그건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방방 안 뛰겠습니까? 자리가 잡힌 사람은 그런 걸 해결을 하고 가거든요.

우리가 고등 동물로써 사람 중에도 진짜 사람이 돼야 부처님 한도량에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고(苦)를 고라고 생각하면 고가 되는 거고, 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라고 집착을 한다면 그건 멸하질 않아요. 그래 도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도의 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으면 망상의 길을 걷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 생 한 철 살면서 우리가 부처님 한도량에 이르려면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는 되지 않지 하고 열심히 하세요, 뭐든지.

왜냐하면 지금 살면서 그저 배고프다, 못 입는다, 돈이 없다, 어디 취직이 안된다, 취직해서 다니다가 떨어졌다,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벅석거리면 오히려 그것이 제동이 걸리질 않아요. 떨어지게 하는 것도, 굶게 하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바로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냥 놓고 편안해야 해요. 그건 뭐 몸뚱이가 펄펄 뛰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마음의 부처 속에서 나오는 보살들이 전부 응신이 돼서 돌봐 주시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이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도 되는 수가 있죠. 한자리를 믿고, 한 뿌리를 믿고 의지하고 해야 나무가 크게 자라는데, 그렇지 않고 '에이그, 저기 가서 한번 해 봐야겠다.' 하고 저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저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되죠. 정말 진짜로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형성돼서 나온 구녘도 그 구녘이고 들어갈 구녘도 그 구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들어가는 거보다도 살아서 들어가야 하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깨우치지 않았어도 그렇게 자꾸 닿는단 말입니다. 관하면 자꾸 닿아요. 닿아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관해도 안된다고 하면서 그냥 모두 그러거든요.

여러분과 나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모든 걸 내버렸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봐도 본 게 없고 들어도 들은 게 없다. 만나도 만난 게 없고 또 가고 와도 가고 온 게 없고 모두 제자리걸음이고 하나도 한 게 없다. 내가 먹은 것도 없다.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먹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금덩어리가 돼서, 그게 자불이 통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장 죽는다 하면 거기에 그냥 푹, '어쩌면 좋은가' 하고 야단법석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친척들한테도 식구들한테도 미리미리 관하는 도리를 알려 줘라 하는 거죠. 급하면 그래도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때로는 어떻게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왔을 때에 제일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는데다가 관하는 도리를 자손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것이 재산 물려주는 거 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 주고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항상 자기가 그대로 자기 자불을 알아서 여여하게 살아라 이랬는데, 누구에게나 본래 다 갖추어져 있고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도 다 그대로 여여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각자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예전에 때로 "시자야!" 불러서 "예!" 그러면 "응, 알았다." 이러는 선지식도 있었다는데 말입니다. 사계절이 오는 거 보세요. 이게 전부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하나도 스승 안 되는 게 없는데 마음이 들떠 가지고 빨리 좀 해 보려고 여기 가서 해 보려고 하고 저기 가서 해 보려고 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거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아무리 좋은들, 이론이 아무리 좋은들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질 텐데 말이 좋다고 들으러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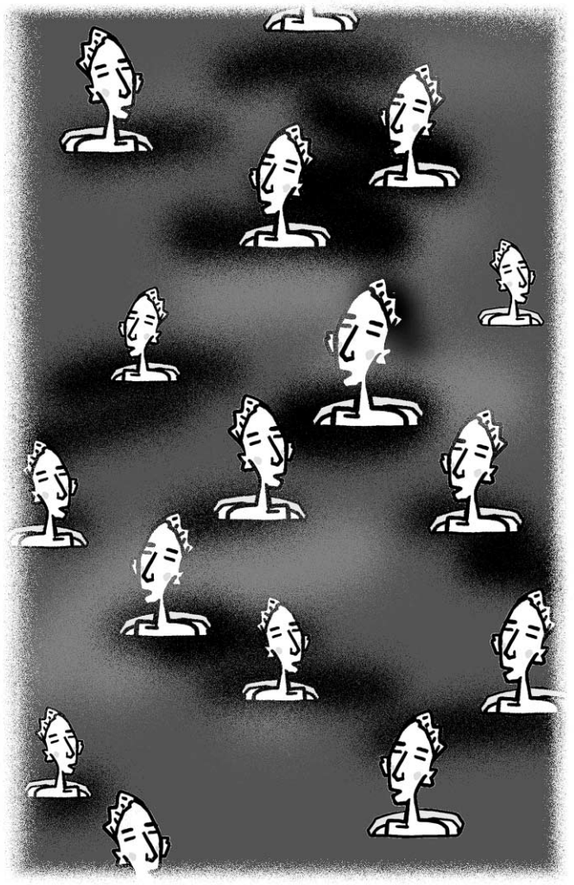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봄날이 온다면

무엇을 막론하고 다 녹일 수 있어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나요?

문 저희들이 공부해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집중을 하면서 관해야 하는지요? 보이는 모습을 다 벗어 버리고 주인공 자리에 의식적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지요? 아니면 텅빈 공체로서 대우주와 하나 된 상태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마음을 형상화시켜서 하나로 집중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답 어느덧 입춘도 우수도 지나고 경칩이 다가오는데, 입춘이라고 한 뜻은…, 어디다가 갖다 붙여도 말이 되고 뜻이 됩니다. 형체적인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자는 거죠. 또 우수에는 입을 뗀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면 말을 하고, 말을 하면 움죽거리는 게 되는 것이 바로 우수, 경칩이죠.

그래서 봄이 오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날이고, 입이 트이는 날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경칩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껏 뛸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름은 있되 이름 없는 이름이기에 함이 없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름도 그냥 공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알고 본다면 이름도 천차만별로 많지만, 그 이름대로 자기의 차원과 모습이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의 봄날이 온다면 무엇을 막론하고 다 녹일 수가 있고 얼릴 수도 있어서 자유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본래 자기 뿌리와 싹이 동시에 같이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염주도 많이 걸고 다니는데 줄에다 알을 꿰어야 염주가 되죠? 그렇다면 사람도 염주와 같이 그렇게 겸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야 하고 어디를 믿어야 하고 이런 게 없이, 육신과 정신계가 본래 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주알은 어디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염주를 꿴 줄이죠? 줄은 정신계라고 비유할 수 있고, 알은 물질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주는 불가부득 누가 믿어라 안 믿어라 할 게 없이 줄을 믿어야 하겠죠. 그런데 믿는다는 언어도 불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니까, 그대로 꿰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염주가 되듯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죠. 그럼으로써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같이 겸해 있으니 그대로 믿어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다면 줄이다, 알이다 하는 이름을 찾을 필요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비유를 할 때에 싹은 뿌리에 붙어 있고 뿌리는 바로 싹을 살리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지요. 그 뿌리로 인해서 사는데, 다른 데 어디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도 떠나서, 부처님을 숭상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그대로 자기를 믿어야죠. 바로 싹을 내게 한 장본인이기도 해요, 뿌리가! 그리고 모든 것은 그 뿌리가 흡수해서 올려보내니까요. 싹은 또 모든 걸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요. 이런 거니까 내가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대로 결집이 돼 있다니까요. 염주와 같이 말입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저 은하계나 태양계도 그렇지만 지구도 그렇게 염주알처럼 줄에 매달려서 돌아갑니다. 마음의 줄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인간도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줄은 매듭도 없고 시발점 종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은 시발점이 있고 종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이 안에서 훌떡 벗어나야, 정신계 물질계를 벗어나야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물질계 테두리 안에서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정신계로 무(無)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묘법입니다.

그러니 믿으란다고 믿지도 말고, 믿지 말란다고 안 믿지도 말고, 또 누가 이러고저러고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무조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지니고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뜻과 인간 생활 자체와 진리가 바로 합류화되어야 진리지,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믿어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듯이, 염주알이 자기 줄을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염주알이 저절로 줄에 꿰어져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꿰어졌기 때문에 염주알은 걱정도 안 해요. 줄 끊어질까 봐 걱정도 안 하고,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대로 줄을 믿고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하면 그대로 움죽거려져요.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뿌리와 싹이 그대로 한 몸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고 맡겨 놓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맡겨 놨다가도 못 믿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 번 맡겼으면 맡긴 그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좀 시일이 가서 풀릴 수도 있고, 시일이 안 가고 단박 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바로 천차만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서 아이구! 요렇게 맡겨야 하나, 저렇게 맡겨야 하나! 하는데 그렇게 몰락 놓을 수 없을 것이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게 불찰이 아닙니까, 네? 뿌리로 인해서 싹이 났는데,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그렇게 못 믿어서야 어찌 삶을 보람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워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본래 꿰어져 있으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맡겨 놔야 할 데가 바로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마주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굴 믿어요? 부부한테도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슬프고 즐겁고 한 거는 자기 뿌리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즉, 마음내기 이전의 마음은 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내는 건 아무렇게나 막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30면으로 계속

자기 선장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보라!

☞29면에서 계속

마음을 내겠지만 마음내기 이전의 마음은 아주 정확합니다.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낼 때 마음의 선장한테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주고 안 주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라면 부처님 될 수 있는 능력이 99%가 됩니다. 이건 한 찰나 생각만 잘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무식하고 안 무식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못나고 잘나고 간에 반드시 한 줄에 꿰어져 있는 염주알과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염주알을 꿴 그 줄을 믿어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다스리고 행하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줄 알고 그 자리에다 되놓는다면 앞서의 게 없어지고 새롭게 입력이 들어가면서 보람 있는 새 삶이 나온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오거든 모든 것은 마음의 용광로에 다 놓으십시오. 자기발전소 용광로에다가 다시 돌려놓고 관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질 못하고 자꾸 끄달리는 겁니다. 놓고 말길 수 있다는 건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먼저 일체를 그 자리에 돌려놓고 맡기고 지극히 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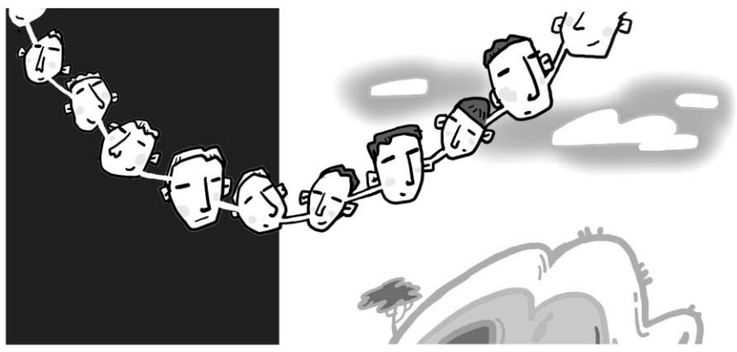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마음의 용광로에 다 놓으십시오

기독교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문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기독교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절에 다니는 불자 가족인데 말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종교 시간에 일 주일에 한 시간씩 종교 수업을 받아야 되고 아침마다 아침 예배와 기도를 꼭 해야 하는데 내신 성적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답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수습을 해야 하고 자기가 돈을 떨어뜨렸다면 자기가 집어야지 누가 대신 집어 주는 사람 없어. 대신 죽어 주는 사람도 없고, 대신 아파 주는 사람도 없고, 대신 먹어 주고 대신 잠자 주고 대신 공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대신 깨우쳐 주는 사람도 하나 없어. 그러니깐 자신으로부터 주처가 있는 거지 타의에 주처가 있는 게 아냐. 그러니깐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 주인공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한다는 걸 믿으면 돼.

예수님도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장난 같고 귀신장난 같은 거니라!' 이랬거든. 그런데 '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듣는 사람들이 '각자 나'라고 해야 될 텐데 그냥 '나'라고 했으니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한 건데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질 못했어. 즉 말하자면 나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도깨비장난 같고 귀신 놀음 같고 허무하다고 이랬거든. 그거를 신자들이 예수님만 믿고 딴 거는 믿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못났든지 잘났든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너를 형성시킨 보배가 바로 너의 불성이니라. 너의 뿌리니라.' 이러신 거지.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나무로 비유했고 그 근원은 바로 뿌리로 비유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느니라.' 했거든. 그랬으니까 따르기는 따르되 믿는 것은 너를 믿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불교다 기독교다 가톨릭교를 떠나서 그렇게 모두 타의에 의존하고 믿고 그러면 기복이란 얘기야. 기복으로 믿어서는 공덕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자꾸 거죽으로 끄달려서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이 되지. 자식들한테도 그 문제들이 확대가 되고 나가서 잘못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의 주처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공부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일거수일투족을 주처에서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정돈만 된다면 절대로 흔들리고 그렇지 않는단 얘기야. 알았지? 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문 가장 근본적인 의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알기로는 전생으로부터 윤회가 돼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 다음 세상에도 또 윤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나가다 보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 생명이 과연 어떻게 생겨났는가? 기독교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뭐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도저히 수긍이 안되는 얘깁니다. 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리라 믿고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겨났고, 한마음은 어떻게 있어 왔고 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우주의 근본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오대양 육대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속 내용을 보시고 뇌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하게 되어 있나.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나로부터 알고 간다면, 좀 오래 살려면 오래 살고 이젠 옷을 벗어야겠다 그러면 벗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천하 만물만생이 다, 즉 말하자면 벌레에서부터 진화되는 것은 생각에, 마음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바로 요런 거다 하고, 모르면 귀도 먹고 그러면 벌레는 벌레대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가다 보면 벗어나게 되겠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차원에 따라 전체가 차원이 크고 눈이 뜨여지고 귀가 뜨여지는가?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편안치 못하게 사는 여러분도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그 백지장 하나 사이를 두고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진짜 하려면 무조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일체 생활을 다 맡겨 놓고,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끌고 다닐 수 있고, 당신만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해결사는 내 주인공밖에 없다. 대신 가 줄 사람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사람도 없다. 내가 혼자 와서 혼자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참나를 발견하고 감응이 될 때, 그때에 한 번 하늘을 쳐다보고 울고 한 번 땅을 내려다보고 땅을 치고 울 때 그때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인 말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콩이 아주 잘 익었다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콩깍지가 탁 벌어지지만 덜 익은 거는 속껍데기가 짝짝 붙어 가지고는 아무리 까도 안 까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죽는다는 뜻을 비유한 얘기입니다. 까져야 할 텐데 안 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몸을 벗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툭 건드리기만 해도 콩깍지가 탁 벗어지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대로 해 나가되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생각이 나겁랑 바로 내려놓고, 저 생각이 나겁랑 또 맡겨 놓고, 올고 싶겁랑 자기 주인공을 붙들고 올고, 감사하겁랑 그 자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한 일 년 계속 가봐요. 진짜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모두 겉껍데기로서 앨 쓰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불이 붙어서, 몸에 불이 닿았을 때 남이 내 불을 꺼 주는 게 아니라 제가끔 자기 불 끄느라고 애를 쓰지 누가 불 꺼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가엾게 생각하고 자기 주인공한테 감사하고 사세요. 때로는 자기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것도 보여 주고 저것도 보여 주고, 꿈에 보여 주고 생시에 보여 주고 그러는데 속지 마세요. 그래서 환상천도 넘어서서 모든 것에 속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3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 전통의식반(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기초(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 연구(제공의식, 현장실습)

3. 교육기간(6개월)
● 원서접수 : 2005년 2월 14일 ~ 3월 19일 (토요일) ● 개강일시 : 2005년 3월 25일 (금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교 통 편 : 차량운행

3.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신간안내
-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 저 자 : 백설운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봉행 제3회 낙태(유산)아 무보시 49재 천도 대법회

아빠, 엄마 저희에게도 새생명을 주세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 그것은 바로 태아 입니다.
이것은 홍당무도 토끼도 아닌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으로 비롯된 무서운 살생 그것도 바로 나의 자식을 살생한
과보를 그냥 무태반 하시겠습니까.
모두 참회 합시다.
그리고 허공을 떠돌고 있을 나의 어린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줍시다.

주지 지홍 합장



❖ 일시 : ● 제3회 입재 - 3월 17일 (음)2월 8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은 수자영가기도일 입니다.
※당일 대중공양 보시를 받습니다.
❖ 기도비 : 무 료
❖ 접 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 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위 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 스님이 직접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정법수행 정진도량 팔공산 지 혜 정 사

우울증… 자신의 참모습 보면 극복돼

마음병 불교식으로 다스려요

최근 영화배우 이은주씨의 자살원인이 '우울증'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병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생동안 전체인구의 5명중 1명이 걸릴 수 있는 '우울증'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다. 우울감이 지속되고 신체가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거나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는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면 누구나가 '우울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자가진단표 참조).


뭉크의 '절규'

◇**반복되는 생각, 깊어지는 증세**=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때 내가 그렇게 안했으면 이 지경이 안됐을텐데…' 우울증 환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탓'으로 돌리거나 끊임없이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복되는 생각은 결국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불교와 상담심리를 접목하여 우울증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울한 마음'을 '나 자신'과 혼동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불교적 '연기관'에 따라 원인과 결과를 고찰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

명상상담연구소의 원장 인경 스님은 "인간을 다섯 가지 더미(오온)의 집합체로 보는 불교적 관점에서는, 우울증도 감각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불교와 심리치료를 접목하여 연구하는 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 서광 스님은 "불교에서는 마음, 앎, 인식이 '나'와 '너'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며 "이러한 구분이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고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언한다.

◇**기억의 저장고 깨부수기**=서광 스님의 저서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30송>에서 제시하는 우울증 치료법은 절 수행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고통을 108배나 1000배로 떨쳐버린 후 편안하게 누워서 5~6분간 휴식한다. 그리고 이완된 상태에서 명상훈련을 시작한다. 의식 속에 떠오르는 두려움과 불안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전생과 내생, 자신의 죽음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본다.

그리고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명상을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나와 타인이 어떻게 연결돼있는지 자각해나간다.

전현수신경정신과원장이 실시하는 '명상과 자기치유 8주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울증 환자들은 온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우울증은 어디서 오나'를 고찰한다. 환자들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주의를 이동하면서 순간순간 몸과 마음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바디 스캔(Body Scan: 몸 훑기)' 명상을 한다. 이렇게 몸을 살펴보고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각하고 나면 분노 · 기쁨 · 집착과 마찬가지로 우울함 역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정에 불과할 뿐'임을 알게 된다.

"아무리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내 기억'의 저장고 안에 우울하고 부정적인 원인이 들어있으면 우울한 기분은 계속해서 들기 마련"이라는 인경 스님은, 우울증도 부처님의 4성제와 같이 '고 · 집 · 멸 · 도'에 따라 파악해볼 것을 권한다. 먼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우울증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인과론적으로 고찰해본다.

그 후 자신에게 적합한 명상방법을 찾아 치료해나간다. '나'에 대한 생각에 온통 집중돼 있는 환자에게는 '나는 누구인가'를 화두로 드는 간화선을 추천한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불안한 우울증 환자는 코를 통해 드나드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여 명상한다. 보폭에 집중하며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자각하는 걷기 명상법은 괴로운 기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환자에게 적합하다.

나·너 구분에서 문제 생겨
두려움·불안 받아들이고
집중하며 몸·마음 관찰



◇**치유사례**=서울 구룡사에서 진행되는 '명상과 자기치유 8주 프로그램'이나 명상상담연구소의 '고 · 집 · 멸 · 도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 중에는 일반병원 정신과를 다니다가 알음알이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다.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명상과 자기치유 8주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울증 환자 서윤화(대학생 · 가명)씨는 "내가 못나서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며,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참모습'이 아님을 알자 비로소 부정적이고 우울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우울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진단표 30문항중 14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14~18개: 가벼운 우울증
일상생활 속에서 가벼운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운동 등을 통해 기분전환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19~21개: 중증 우울증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다.

△22개 이상: 매우 심각
전문의 상담과 약물치료가 시급하며 주위의 도움을 받아 안정을 취한다. 경우에 따라 직장을 잠시간 쉬고 치료에 집중한다.

항목	내 용	반응
1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예
2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예
3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할 때가 자주 있다	예
4	밖에 나가기 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예
5	앞날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예
6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아니오
7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아니오
8	아침에 기분좋게 일어난다	아니오
9	예전처럼 정신이 맑다	아니오
10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별로 없다	아니오
11	내 판단력은 여전히 좋다	아니오
12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 못지 않게 건강하다	아니오
13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아니오
14	정말 자신이 없다	예
15	즐겁고 행복하다	아니오
16	내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아니오
17	미쳐버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예
18	별일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진땀이 날 때가 있다	예
19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예
20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을 여전히 즐긴다	아니오
21	기분이 좋은 편이다	아니오
22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아니오
23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낀다	예
24	나의 잘못에 대하여 항상 나 자신을 탓한다	예
25	전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때가 많다	예
26	전보다 내 모습(용모)가 추해졌다고 생각한다	예
27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예전보다 힘이 많이 든다	예
28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예
29	요즈음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예
30	이성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있다	아니오

(제공: 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2500년 역사의 완결된 의학체계

15세기에는 티베트의학체계가 장파(Jangpa)파와 쥬파(Zurpa)파 두 학파로 나뉘어졌다. 17세기에는 제5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의학의 열렬한 후원자였으며, 그의 섭정 상예 ·p초(Sangye Gyamtso)는 위대한 티베트의사이자 남류리(Blue Beryl)로 알려진 사부의전의 주석서를 찬술한 의학자였다. 1696년에는 제5대 달라이라마에 의해 착포리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1916년에는 제13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의 라싸에 멘치캉 의학천문성산학교를 세웠다.

1959년 티베트 봉기 이후 티베트인들은 인도에 망명하여 1961년 제14대 달라이라마의 주도하에 티베트망명정부가 인도의 다람살라에 티베트의학원을 설립하였다. 이 의학원은 달라이라마 성하의 어의이신 예시 돈덴과 잠양 타시 쵸나와 같은 의사들의 헌신에 의해 건립되었다.

1982년 티베트에서 오랜 감옥생활에서 풀려난 텐진 꽤달(달라이라마의 수석의)이 방대한 티베트의학지식, 특히 티베트의약

인도 망명정부, 1961년 다람살라에 의학원 설립
사부의전에 기초 발생부터 약물학 까지 총망라

처방전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인도 망명정부로 합류하여 티베트의학이 또 한번 크게 발전하게 된다. 현재 티베트의학천문연구소는 산하에 50개가 넘는 분원과 인도, 네팔 그리고 유럽에 수많은 사설 병원들을 거느리고 있다.

티베트의 찬란한 문화유산이자 심오한 의학 사상인 티베트의학은 망명정부의 각별한 지원 아래 꾸준히 독자적인 전통 의료인들을 배출해 오고 있다. 1962년부터 1995년까지 티베트의학천문연구소의 면허를 받은 티베트의사가 150여 명에 이르며 그 중 여의사도 50명이 넘는다.

1979년 이후 중국 공산치하의 티베트자치주에서도 티베트의학을 부활시키는데,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와 대외적인 과시 및 선전의 일환일 뿐이다. 그들은 수많은 진료소와 라싸의 멘치캉 같은 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중국인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음의 대상이다. 불교가 배제된 티베트의학은 영혼 없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껍데기 티베트의술일 뿐이다.

1998년에는 제1회 국제 티베트의학대회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200명이 넘는 티베트 의사, 티베트불교 라마, 서양 의사, 과학자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1회 대회는 달라이라마 성하의 개회식 선언으로 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 2001년 제2회 국제대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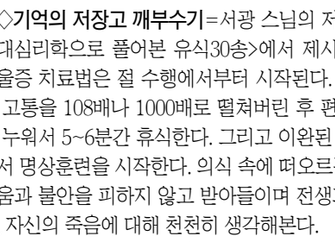
티베트의학은 하나의 완결된 의학체계이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고대의학의 하나이며 2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다. 수 세기동안 티베트의학은 티베트 중국 몽골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불교권 그리고 네팔 시킴 부탄 라다크 및 북인도의 히말라야왕국에서 광범위한 대중적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다.

티베트의학은 소바릭빠(gSo-ba Rig-pa: 의술)이라 부르며 <귀시(rGyud-bzhi)>라는 <사부의전(감로정요팔지비결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부의전은 <근본의전(根本醫典)> <논설의전(論說醫典)> <비결의전(秘訣醫典)> 그리고 <후속의전(後續醫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본의전은 여섯 장으로 이루어져 <귀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논설의전>은 31장으로 구성되어 발생학 해부학 그리고 생리학을 포함한 인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비결의전>은 92장으로 이루어져 여러 질환의 병인 증상 및 치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의전>은 25장으로 된 진단법과 약물학을 다룬다. <사부의전>에 더하여 全<사부의전>을 축약한 두 개의 장이 있다. 이렇게 <사부의전>은 총 156장 5900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티베트의사로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7년 이상 <사부의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 4년 동안은 약40여 장을 암기해야 하는 <티베트의전>을 공부한다. 매년 한 달씩은 히말라야에서 약초를 채집하는 실습도 있다. 의학교과서 공부 외에도 티베트언어학 문법 시학도 공부해야 하고 <보리도차제론>같은 기본 불교교리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아무런 조건없이 병의 고통을 받는 여러 불자님들께
청정한 황토물 감로수(지장수)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혜스님

청정한 우리 사찰에서는 이해못할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물영각과 백의관세음보살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마음병, 몸의병 (특히 위장병, 장병, 변비 같은 만성질환 등), 아토피 피부병 환자들이 왕림하셔서 정진기도와 감로수 물을 드시고 많이 좋아 지셨습니다.

청정 감로수 물(지장 水:사찰내에서 부르는 이름)은 기도 중 백의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물로 많은 중생을 건지라는 선몽을 주신 것입니다.

본 사찰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황토물 지장수를 드려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은 불자님들께 지장수를 드려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발원하였습니다.


백의관세음보살님

◆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을 타시고 성환역에 하차하시어 우신 1리 연화정사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연화정사 041)588-7779,010-6772-7485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37) 비슬산 용연사

개발·등산객 증가 동물 서식 감소

도시와 인접해 인공림 대부분, 식생들 튼실치 못하고 단조로와


웅장하게 서 있는 비슬산. '도성'과 '관기'라는 두 수행자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산이다.

신라 흥덕왕 때 도성(道成)과 관기(觀機)라는 두 수행자가 포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도성은 북쪽 산마루 도성암 바위에서, 관기는 그곳에서 10리쯤 되는 남쪽 관기봉 밑 토굴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따금 구름을 헤치고 달을 노래하며 왕래하곤 했다. 서로 오고 갈 때면 산의 나무들이 허리를 굽혀 맞으려는 듯했다. 어느 날 도성이 도를 깨쳐 벼랑사이로 '꽝'하는 소리와 함께 산능선을 차고 몸을 하늘에 날리며 간 곳 모르게 사라졌다. 관기도 뒤이어 득도를 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포산이성(包山二聖) 전설이다. 전설의 포산은 바로 지금의 대구 비슬산(悲瑟山)이다. 그 산에 있는 용연사는 신라 말에 보양선사가 운문사에 이어서 개창했다.

용연사의 가람배치는 천왕문-보광루-삼층석탑-극락전이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전형적인 일불일탑 가람이다. 마당 가운데

극락전 뒤 석축, 사방·방화벽 기능 갖춰

목련 나무 두 그루가 시자처럼 서 있다.

극락전 뒤로 석축이 가지런하다. 돌로 쌓았음에도, 눈에 전혀 무겁지 않다. 높이를 2단으로 하여 화계(花階) 역할도 겸하고 있다.

석축은 극락전-영산전-삼성각 뒤쪽으로 이어져 있다. 전각 뒤의 석축은 절개면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사방벽 기능과 함께 불이 났을 때 산불이 전각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화벽 기능도 갖고 있다.

절집은 전통적으로 목조건축물이라 화재에 매우 약하다. 그래서 갖가지 방화시설과 벽사물이 있다. 용연사는 절 마당 한 켠에 방화수를 담은 큰 항아리 물독을 비치해두고 있다. 물독에다 굳이 소금물을 담아두는 것은 소금이 화마(火魔)를 격퇴하는 벽사물이기 때문이다.

명부전 앞에 청운교가 걸려 있다. 지난번 매미 태풍 때 유실되어 다시 세운 것이다. 명부전이 매미의 폭력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옛 청운교의 자기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홍수가 명부전 지역을 깎아내려 전각을 크게 위협했을 것이다.

옛 글에는 비슬산을 '所瑟山' 또는 '苞山'이라고 했다. '苞山'이란 '수목에 덮여 있는 산'이란 뜻을 가진 중국어이다. 그러나 비슬산의 식생은 대구시에 인접해 있어서 튼실하지도 다양하지도 못하다. 원시림으로 보존된 곳은 없고, 거의가 인공으로 조성되었거나 관리된 숲이 대부분이다.

용연사 주변의 숲 역시 인공림이라 식생이 비교적 단조롭고 단순하다. 한눈으로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분서현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계곡과 절 주변은 온통 낙엽활엽수들이 에워싸고 그 너머로는 20년생 안팎의 소나무들이 단순림을 이루며 숲을 이루고 있다.

용연사 조류들은 주로 이 활엽수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중심으로 한 텃새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겨울철새로는 쑥새, 되새, 검은머리방울새, 양진이, 개똥지빠귀, 노랑지빠귀 등이 관찰된다.

쑥새는 산과 농경지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겨울철새이다. 멧새과의 겨울철새 가운데 가장 흔해서 '시골새' 혹은 '촌새'라고 불린다. 일부는 봄이 와도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여름을 보내기도 한다. 참새나 멧새와 비슷하지만, 짧은 뿔 모양의 장식깃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축은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산불이 전각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큰 절 뒤로 난 계곡길을 따라가면 명적암으로 이어진다. 무인지경에는 멧토끼와 고라니 발자국이 어지럽다. 비슬산에 서식하고 있는 포유류로는 삵, 멧돼지, 너구리, 오소리, 족제비, 노루, 고라니, 멧토끼, 두더지, 고슴도치, 두더쥐 등이 보고돼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지자체의 각종 개발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인해 이들 동물의 서식 분포의 빈도가 점차 감소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극락교를 다시 건너 사리계단이 있는 적멸보궁으로 가다보면 왼편으로 굴참나무 숲이 있다.

참나무들은 상수리와 도토리 두 종류의 열매로 종자를 퍼뜨린다. 상수리는 둥글넓적하게 생겼고, 도토리는 길쭉하게 생겼다.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에는 상수리가 나고, 나머지 참나무에는 도토리가 열린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둘 다 '꿀밤'이라고 부른다.

용연사 굴참나무는 나무 줄기마다 상처가 깊이 패였다. 이것은 배고팠던 시절 사람들이 상수리를 털기 위해 나무 기둥을 바위나 떡메로 쳐서 생긴 상처이다. 그래서 상처들이 모두 사람 가슴 높이에 나 있다. 게다가 풍뎅이와 같은 천공성 곤충들까지 덤벼들어 상처가 저렇게 더 깊어진 것이다.

적멸보궁은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왜적의 노략질을 피해서 통도사의 사리를 나누어 봉안한 것이다. 적멸보궁 주위로 측백나무와 히말라야 삼나무 등이 보인다.

향나무과에 속하는 측백나무는 조주선사의 화두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에 나오는 바로 그 나무이다. 중국에서는 '당백(唐伯)'이라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측백'으로 번역하고 있다.

적멸보궁의 처마 안 공포에다 멧비둘기가 나뭇가지를 물어다 둥지를 틀었다. 구조적으로 우리의 옛 집들은 새들이 둥지를 틀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눈비를 피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치기에 안성맞춤이다. 지붕과 처마 없이 벽체만 있는 요즘의 건물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약수터로 올라가는 오솔길은 온통 소나무 숲이다. 사방오리, 때죽나무, 산벚나무 등이 간간이 보이긴 하지만, 소나무 단순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소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곳곳에 노송도 보이지만, 거의가 20년생 안팎의 청솔이다. 이것들을 재목으로 키우려면 간벌을 해주어야 한다.

비슬산은 지질학적으로 백악기의 유천층군 화산암과 이들을 관입한 불국사화강암류로 구성된다. 특히 대견사 옛 터가 있는 비슬산의 서사면에는 얼마 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너덜지대가 장관이다.

영어로 테일러스(talus)라고 하는 이 너덜지대는 8만~1만 년 전 빙하기에 생성된 물리적 풍화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수직절리의 바위들이 산비탈에 굴러 떨어져 지대가 낮은 계곡을 따라 길게 쌓이는데, 이를 암괴류라고 한다.

대견사지 암괴류는 그 길이가 2킬로미터에 가깝고, 폭도 넓은 곳이 80미터에 이른다. 쌓인 깊이도 5미터에 이르는, 세계적인 암괴류이다. 그러나 암괴류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관심은 퍽 낮은 편이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용연사 굴참나무는 나무 줄기마다 상처가 깊이 패였다.

적멸보궁 처마안 공포에 있는 둥지.

쑥새는 산과 농경지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겨울철새이다.

암괴류는 수직절리의 바위들이 산비탈에 굴러 떨어져 지대가 낮은 계곡을 따라 길게 쌓인 것을 일컫는다..

여시아문

참선인을 위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의 육성법문

큰 깨침에 생사를 초월하라!



봉산법어선해
(蒙山法語禪解)



1Set(60분 Tape × 8개)
값 18,000원

본참공안을 의심할지니, 큰 의심에 반드시 큰 깨침이 있다. 천만 가지 의심을 한 의심으로 뭉쳐서 본참공안에서 결판을 내도록 하라. 움직이거나 가만있거나 한결같고, 자나 깨나 또렷또렷하여, 화두가 나타남이 물 속에 비친 달빛이 여울 속에서도 활발발하여 부딪혀도 흩어지지 않고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안으로는 고요하여 요동치 않고 밖으로는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의심 덩어리가 부서지면 바른 눈이 열리는 것이다.

① 고원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古原上人), ② 각원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覺圓上人), ③ 유정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惟正上人)
④ 총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聰上人) 上, ⑤ 총상인에게 보임(蒙山和尙示聰上人) 下, ⑥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⑦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대중에게 보임(蒙山和尙示衆), ⊙ {부록} 불교TV 초청 무상사 특별 법회(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

총 판 : 여시아문 Tel : 02)737-0695(www.yosiamun.com)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